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기도

우주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역사와 세월이 흐를수록 인간중심의 역사로 변하면서 그 말씀을 떠나 타락한 인간이 지성과 말씀을 떠나 버렸기 때문에 인간역사의 온갖 병폐가 만연하여 자구촌이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병든 자구촌의 역사를 치유하려면 그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뿐입니다. 기독교 강단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그 말씀의 회복이 이뤄져 인류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치유하는 오직 그 진리와 그 생명이 회복의 길이 되게 하시고 오늘을 사는 크리스천들의 사명으로 삼아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금주의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창세기 1장 1-2절)

□ L. A. :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 N.Y. : 143-17 Franklin Ave. 5Fl.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4년 9월 27일 (토) 제 1502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관계형성' 하며 '역멘토링' 하라!

바나리서치, 밀레니엄들 교회 오게 하는 5가지 사역원리 소개

점점 개인주의화 되고 있는 오늘날의 교회와 캠퍼스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에 기초한 사랑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 포스트모던의 격류 가운데, 이전 세대와는 전혀 다른 밀레니엄 세대와 씨름하는 청년 사역자와 리더들은 어떻게 그들의 영적 여정을 도울 수 있는가?

일반적으로, 포스트모던 세대는 희망이 없는 세대이며, 존재 바탕에 수치와 죄책감과 외로움이 있는 세대다. 말보다 이미지, 개인보다 공동체, 객관적 진리보다는 주관적 진리를 추구하는 세대다. 이런 세대의 중심인 밀레니엄들에게 복음과 진리를 충실하면서도 효과적으로 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는 모든 사역자가 고민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삶을 고통과 고난으로 받아들이는 이 세대에게 살아갈 근거가 되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독교공동체뿐이다. 이 세대에게 희망을 주는 공동체를 세워 가는 것은 바로 사역자의 몫이다.

바나리서치는 밀레니엄세대들과의 진지한 설문을 통해 이들에게 진정한 소속감을 주는 공동체, 신뢰할 수 있는 공동체, 희망을 주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공동체라는 진리를 알게 할 수 있는 5가지 사역 원리를 안내한다(5 Ways to Connect with Millennials).

밀레니엄세대들의 신앙유지를 위해서는 의미있는 관계형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라

교회를 나오지 않거나 떠나는 밀레니엄들을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첫 번째 요소는 바로 "관계 형성"이다. 설문을 통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교회에 남아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20대 청년들과 그 활동을 하는 20대들에게는 바로 중장년들과 친밀하고 의미 있는 관계형성이 있다. 다시 말해서, 59% 이상의 청년들이 자기 세대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삶을 살아가는 지혜와 도움을 받고 있다.

또한 어른들과 일동의 멘토링을 형성하고 있는 20대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점도 발견됐다. 밀레니엄 10명 중, 3명 정도(28%)가 목회자가 아닌 어른 멘토와 밀고 당겨주는 친밀함을 유지하고 있다

2. 문화를 분간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르쳐라

밀레니엄들에게 당장 요구되는 것은 바로 자신들의 감정과 이성을 오늘날의 문화적 현실들에 적용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점이다. 세상 문화와는 전혀 다른 독특한 기독교적 관점에서 세상 문화가 주는 도전들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만 한다. 밀레니엄들은 6일간 세상적으로 살다가, 주일만 거룩한 위선의 삶을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 주 7일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는 삶을 세상에서 실행하려고 한다.

실제로, 교회에서 활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밀레니엄들은 "교회에서 세상에서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수있을지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다. 46% 정도의 밀레니엄들이 교회에서 '세상 문화에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통찰력'을 배웠다고 말한다. 또한 "교회를 통해 자신이 왜 살아가는지를 알게 되었고, 삶의 목적이 분명해졌다"고 응답한다(45%).

3.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역 멘토링 기회를 만들어라

"역 멘토링"이란 말은 20대들과 인생의 경험이 깃들어 있는 중장년들이 서로 삶을 주고받는 멘토링 관계를 지칭한다. 즉 청년들이 일방적으로 어른들에게 도움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에 도움을 받는 이상적인 멘토링이다.

따라서 밀레니엄들에게 가장 효과적인 사역은 세상에서 자신들의 사역을 발견하고 사역하게 하는 것이다. 33%의 밀레니엄들이 바로 교회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섬김 사역을 하고 있고, 29%는 단기 선교, 그리고 24%가 교육부서나 봉사부서에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

4. 소명이 바로 제자도와 연결된다는 것을 가르쳐라

밀레니엄들이 교회에 남아서 활발하게 사역을 하는 것을 소원한다면, 소명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가르쳐야 한다. 이제까지 교회에서는 교회에 관심을 갖는 사람에게만 소명이 무엇이고, 교인들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가르쳤다. 그러나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밀레니엄들은 자신들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임을 받았다고 여긴다.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교회 안이건 밖에서나 사역을 할 수 있다는 소명을 받았다고 여긴다.

〈3면으로 계속〉

2면

자녀에게 최선? 부모에게 최선?

7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K원장)

16면

신앙의 본질회복을 통한 ...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16면

인터뷰
은혜의강교회 새 담임 우상훈 목사

중국인들 공직자 불신지수 최고!

로이터, 중국인들 10대 걱정거리 설문조사 결과 보도

중국은 지금 "세계의 공장"으로 불릴 만큼 괄목할만한 경제 성장을 보이고 있다. 자동차에서부터 이제는 첨단 기기분야에서도 "짝퉁"에서 시작해 애플의 아이폰이나 삼성의 갤럭시폰에 버금가는 스마트폰을 저가에 공급할 정도로 경제는 급속도로 신장됐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엄청난 부자가 된 중국인들이 빈번하게 자살을 하고 있다. 눈부신 경제 성장에 걸맞는 삶의 질이 아직 뒤쳐져 있기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사회학자들은 분석한다. 그러면서 중국인들에게는 걱정거리 즉 근심이 너무 많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한다.

로이터통신은 "중국인들의 걱정거리 톱10(China's Top 10 Social Problems: No Faith in the State, Selfishness)"을 보도해 중국인들이 갖고 있는 걱정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준다.

처벌받지 않는 공직자 비윤리적 행위가 원인
방관, 쾌락주의, 과도한 인터넷 의존도 포함

중국인들은 중국 공직사회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가장 큰 우려사항으로 꼽고 있다.

중국에서 새롭게 실시된 '중국사회의 10대 우려사항'에 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중국 공직 사회의 '신뢰 위기'를 가장 큰 걱정거리로 꼽았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산하 인민논단의 의뢰를 받아 실시된 이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58%는 공직자들이 민생은 뒷전이고 오직 상부만 신경 쓴다면서, 그 점이 자신의 관직에 관한 관료들의 시각을 반영한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민논단은 '당의 결속력과 투쟁 능력을 약화시키는 부패 공직자'를 맹비난했다. 인민논단에 따르면 응답자의 51%는 '처벌받지 않는 (공직자의) 비윤리적 행위'를 신뢰 하락의 이유로 꼽았다. 20%는 '금권주의'적인 시장경제를 지목하기도 했다.

〈3면으로 계속〉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모집 과정
● 목회학 박사과정(D.Min.)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On Campus Courses
2014 가을학기 수업 안내

Sept 29-Oct 3(9월 29 -10 월3일)
DI 8150 Contextualization for Meaningful Ministry
(의미있는 사역을 위한 상황화)

Oct 6-10 (10월 6-10일)
DI 8170 Methods of Social Research / Research Design
(사회조사방법론/리서치 디자인)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시 론

사슴나무골 텃밭 이야기(9): 목사의 습관 바꾸기

박동서 목사
(엘크그로브 가스펠교회)

직업병이라는 것이 정말 고치기 힘든 병이라는 말을 의사 친구로부터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목사의 직업병은 어떠냐고 물었더니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남을 가르치고 설득하려고 하는 설교병증이라고 해서 공감하며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사실 설교자로 부름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은사와 소명 때문에 설교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항상 안고 살아갑니다. 성경 본문을 갖고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전하길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먼저 씨름해야 하지만, 설교를 듣는 청중들의 삶과 믿음, 필요와 고뇌를 아는 목사이기에, 설교를 통해서 그들의 생각과 말과 삶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은 성령님의 절대적인 역사가 있어야 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설교자는 성도들을 위해 죄와 허물을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며, 바른 길을 제시해주어야 한다는 습관적인 강박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이런 습관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목회자의 길을 걷기 전에 엔지니어로 사업가로 살면서, 항상 발생하는 사고나 갈등에 대한 원인을 밝히고 해결책을 모색한 후 문제를 시정하고 고치는 삶이 이미 몸속에 뿌리깊은 습관으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인 문제 뿐 아니라 자녀교육과 가정생활까지 문제가 보이면 철저하게 분석해서 빨리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거의 본능적으로 작동을 하곤 했습니다. 제가 마치 무슨 해결사나 된 것 같은 착각을 하며 살았던 것 같습니다. 타락한 세상을 향해서는 영적인 경찰관이었고, 문제가 있는 성도를 보면 수술을 하려고 하는 영적인 외과의사 같이 굴었습니다.

항상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하고(Doer), 잘못된 것은 고쳐야 하고(Fixer), 문제는 해결해야만(Problem-Solver) 했습니다. 그런데 뒷마당 텃밭에서 농사를 몇 년 지으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첫 해는 내가 씨도 뿌리고 물도 주니 화초나 채소를 내가 키우고 있는 줄로 알았습니다. 성도들이나 이웃에게 결실을 나눠주며 내가 잘해서 농사를 잘 지어서 수확을 거둔 듯 으쓱대었습니다. 그러다 거동조차 불편한 어느 노부부가 사는 집에 전도하러 갔다가 망신만 톡톡히 당했습니다. 텃밭의 열매들은 크기나 맛이 비교도 안될 정도로 뛰어났고, 아름다운 화초들은 에덴동산에 온 것 같았습니다. 영감님의 말이 작년에 땅에 떨어진 씨앗들이 저절로 자란 것이고 물도 시간 맞춰줄 뿐 자신들이 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고 하면서, 농사는 하늘이 도와야 한다고 했습니다. 할머님은 비결이 하나 있다면, 뒷마당에 나가서 텃밭을 바라보면서 그저 내 새끼들 이뻐하고 같이 있어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텃밭의 채소나 화분의 화초들일지라도 주인의 마음을 안다고 했습니다.

목회자로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옆에서 그저 그들과 함께 있어 주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고, 그들이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해주는 목사로 살지 못했음을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목사의 병적인 습관을 고쳐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워낙 오래된 직업병인지 쉽지가 않습니다. 내 의지,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을 비우고 내려놓을 때 주님이 뜻하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방법이 채워지고 역사하기 시작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내 욕심, 내 고집을 비우면 하나님의 말씀, 성령님의 충만함이 그 빈자리에 가득 차게 됩니다. 웅변보다는 때로는 침묵이, 설득보다는 때로는 기다림이, 섣부른 행동보다는 차라리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용히 묵상함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체험을 배워갑니다. 목회는 주님이 하시는 사역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녀에게 최선? 부모에게 최선?

WSJ, 미국 극성부모 입학 늦추기(자발적 유급) 현상 분석과 진단

미국사회에서 대체적으로 고학력, 고소득 지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자녀들에 대한 높은 교육열이다. '타이거 맘'이나 '헬리콥터 부모'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에 사사건건 참견하는 부모들도 많다. 자기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고 느껴지면 사생결단을 낼 듯이 저돌적인 부모들도 제법 있다.

담당 선생님이나 학교장을 통해 해결이 안되는 부분은 교육위원에게 연락해 해결을 시도하기도 한다. 읍소의 형태뿐 아니라 비난과 야유를 넘어 협박성의 논조를 취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다음 선거에서 꼭 기억하겠노라며 투표권을 무기로 은근히 압력을 행사하려는 부모들도 있다.

숙제의 양, 성적, 급우관계, 학교 식당 음식의 질, 통학버스 연착, 운동팀 가입 실패, 연극이나 뮤지컬에서의 배역, 휴식시간 부족, 과밀학급, 학교시설 등 극성 부모들의 민원내용은 참으로 다양하다. 이런 부모들 중에는 변호사, 의사, 대학 교수도 있고, 연구원, 컨설턴트, 군 장교, 연방정부 고급 공무원 등 자신들이 속해 있는 곳에서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이제는 자녀들의 교육향상을 위해 자발적으로 유급을 하거나 초등학교 입학을 늦추는 더욱더 극성스런 부모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보도한다(Should Children Be Held Back for Kindergarten?: Many parents are holding back their 5-year-olds from school for a year, but the benefits are doubtful).

나이 많은 학생이 어린 학생보다 점수, 리더십에서 두각: 4-12%
VS
초기 이점 중학교 가면 사라져...나이보다 학교생활이 지성에 영향

노스캐롤라이나주 무어스빌에 사는 에린 오덤과 그녀의 남편은 지난해 몇 개월 간 딸의 유치원에 대해 상의했다. 두 사람은 딸의 다섯 번째 생일이 입학 제한 연령과 너무 가까워 반에서 가장 어린 학생이 될까봐 걱정했다. 유치원 교사는 딸이 학교에 들어가도 잘해낼 것이라고 두 사람을 안심시켰지만 오덤은 "딸이 학교에서 살아남기보다 성공하길 원했다"고 말한다.

두 사람이 결국 딸의 입학을 1년 늦추기로 결정한 것은 다른 부모들과 이야기한 후였다. 오덤은 "자녀를 빨리 입학시킨 부모들은 후회를 했지만 입학을 늦춘 부모들은 후회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딸의 유치원 반 친구들 9명 중 절반 정도가 입학을 늦춘 것으로 추정했다.

이런 자발적 유급을 학업적 레드셔팅(redshirting)이라고 부른다. 대학 스포츠팀에서 유망한 선수를 1년 동안 쉬게 하면서 연습을 시키고 향후 4년 동안 더 훌륭한 기량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드는 관습에서 이름을 따왔다.

미 국가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미국 유치원생 중 6%가 위와 같이 자발적으로 학교 입학을 늦춘다. 하지만 숫자는 지역에 따라 달라진다.

코네티컷주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가난한 학군에서는 레드셔팅을 하는 학생이 2% 정도이고 부유한 학군에서는 그 비율이 27%까지 올라간다. 레드셔팅은 육아나 유치원비를 1년 더 감당할 수 있는 가정에게 더 수월하다. 레드셔팅이 아이들에게 주는 이점을 둘러싸고 논란도 많다.

로스앤젤레스 소재 교육컨설팅회사 LA스쿨메이트의 제이미 바칼 컨설턴트는 8년 전 사업을 시작했을 때, 9월 1일에 만5세가 되는 경우로 입학 제한 연령을 설정한 학교에서는 여름에 만 5세가 된 아이들이 입학을 늦추는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던 것이 4-5월에 만 5세가 되는 아이들도 입학이 가능해지기 시작했고, 이제는 같은 해 2-3월에 만 5세가 된 아이들까지 입학이 가능하다. 같은 반 아이들 사이에 19개월까지 나이 차가 날 수 있다는 뜻이다.

몇몇 부모들은 자녀가 1년 동안 키도 커지고, 더 똑똑해지고, 더 적극적인 아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입학을 늦춘다.

그러나 미시간주 트래버스시티에서 활동하는 소아과 의사이자 '강한 엄마, 강한 아들'의 저자 멕 미커는 너무나 많은 부모들이 잘못된 이유로 자녀의 입학을 늦춘다고 말한다.

"어떤 아이들은 성숙하기 위해 1년이 더 필요하다. 하지만 아이에게 최선이라서가 아니라 부모에게 최선이기 때문에 입학을 늦추는 경우를 많이 봤다."

경쟁심이 매우 강한 오늘날의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이 우월감을 느끼기 위해 자녀가 수업이나 스포츠에서 두각을 나타내길 바란다고 마커는 전했다.

늦게 입학하는 것의 이점에 대해서는 연구 결과가 엇갈린다.

토론토대학교 스카버러 캠퍼스의 경제학자 엘리자베스 두이는 레드셔팅만을 연구한 것은 아니지만 학급에서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을 경우 어느 정도 이점이 있다는 연구를 여러 건 발표했다.

두이 교수와 공동저자 켈리 베다드는 여러 국가에서 실시한 대규모 연구에서 2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태어난 달과 시험 성적을 비교했다. 두 사람은 4학년에서 나이가 가장 많은 학생들이 가장 어린 학생들보다 4-12% 점수가 높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이 경향은 8학년에서도 나타났다. 또 다른 대규모 연구에서는 두이 교수와 경제학자 스티븐 립스콤이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리더 역할을 맡을 확률이 4-11% 더 높다는 결과를 내놨다.

미 국가교육통계센터에 따르면 미국 유치원생 중 6% 정도가 자발적으로 초등학교 입학을 늦춘다.

레드셔팅에 대한 연구가 장기적으로 이득을 보여주지는 않는다고 지적하는 연구자들이 많다. 초기에 누렸던 이점이 중학교에 가서는 사라진다는 것이다. 한 연구자는 자녀를 하버드에 보내기 위해 입학을 늦춘다면 생각을 바꿔야 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발행인 겸 편집인: 장영춘
■편집국장서리:유원정

· L.A. Office
·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 Tel(323)665-0009(대 표) (323)665-9025(광고국)
· Fax(323)665-0056(편집국) (323)665-0046(광고국)
· E-mail : la@chpress.net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 Tel(718)886-4400(대표) (718)886-4424(편집국)
· Fax(718)886-0074(대표)
· E-mail :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10월 31일까지 입학하시면
특별 장학혜택을 드립니다.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ESL Program
Bachelor Degree Programs
Bachelor of Religion in Theology
(Concentrations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Bachelor of Religion in Music
Bachelor of Religion in Business Administration
Master Degree Programs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Master of Christian Education
Master of Church Music
Master of Mission Languages in TESOL
Master of Divinity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Concentrations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Church Music
Doctor of Christian Leadership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Online 강의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 가능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idwest University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5751
E-mail: wdc@midwest.edu

PCUSA 탈퇴 결정한 달라스 하이랜드파크장로교회

달라스 하이랜드파크장로교회, PCUSA 탈퇴

780만불 탈퇴금 지불...교단 동성결혼 인정이 주 이유

텍사스주 최대 규모인 하이랜드파크장로교회(Highland Park Presbyterian church, HPPC, 담임 Bryan Dunagan 목사)가 지난 9월 8일 780만 달러의 탈퇴금 지불하고 미국장로교로(PCUSA) 탈퇴를 결정했다. 780만 달러는 교회 전체 건물가격의 현 감정가를 7천만 달러로 예상할 때 그 중 11%를 탈퇴금으로 계산한 가격이다. 교회는 탈퇴금을 지불함과 동시에 교회의 소유권을 미국장로교로부터 넘겨받게 된다.

HPPC는 텍사스에서는 가장 큰 장로교회로 4000여명의 등록교인이 출석하는 교회이며, HPPC 웹사이트(www.hppc.org)는 FAQ를 통해서 이번 소송건 합의에 관한 내용을 11개의 질의응답 식으로 자세히 적고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슈는 PCUSA의 동성애 건이다.

HPPC는 지난해부터 PCUSA의 진보적 움직임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강하게 표현했으나 수백만 달러의 탈퇴금 때문에 결정이 미루어지고 소송만 걸어놓은 상태였다. 그러나 올 6월에 열린 미국장로교 총회에서 정식으로 동성결혼을 인정함으로서 탈퇴금을 내더라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9월 8일 제직들이 탈퇴 안건을 상정하고 교인 투표를 통해서 780만 달러의 합의금을 내고 교회의 소유권을 넘겨받는 안을 통과시켰다.

HPPC는 향후 11월 3일까지 탈퇴금을 교단에 지불한 후 보수교단인 ECO(Evangelical Covenant Order of Presbyterians)에 가입할 예정이다. ECO는 2012년에 설립된 보수교단 '장로교복음주의언약회'로서 2013년 첫 총회 당시 30개 교회에서 현재는 151개 교회로 성장하는 신성교단이다.

이로서 ECO에는 교인 4000명의 달라스 하이랜드장로교회를 비롯해 교인 3500명의 캘리포니아먼로파크장로교회, 휴스턴의 그레이스장로교회, 미네소타폴리스의 호프장로교회 등이 가입되게 됐으며, 한인교회로서는 남가주 로렌하이츠에 위치한 선한목자장로교회(담임 고태형 목사)가 가입절차를 밟고 있다.

〈정리: 박준호 기자〉

'관계형성' 하며 '역멘토링' 하라!

〈1면에서 계속〉

실제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밀레니엄 중 45%가 자신들의 은사와 열정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소명 중 일부라고 여기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29%는 성경을 통해 자신의 전공 영역이나 직장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만들고 있다고 응답했다.

5.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더 깊어지고 충만하도록 만들어라

교회에서 남아 신앙생활을 하는 밀레니엄들은 그렇지 않은 동년배들에 비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한다. 다시 말해서, 성경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을 알아가며 세상에 하나님을 알리려고 한다.

실제로, 교회에 있는 밀레니엄 중 68%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개인적으로 다가와 정말 가슴에 와 닿게 도움을 준다고 응답했다. 또한 65%는 성경이 삶을 의미 있고 목적 있게 살아가는 지혜를 준다고 응답했다.

결론으로, 밀레니엄이라는 새로운 세대가 전속력으로 다가오고 있다. 교회공동체는 이들의 사고와 열망과 고투를 반드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기위해서, 교회에 남아서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밀레니엄들이 왜 교회에 남아있는지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러면 아주 독특한 이 젊은이들을 끌어안기 위해서 교회공동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보이게 된다.

중국인들 공직자 불신지수 최고!

〈1면에서 계속〉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우려 대부분에는 중국 정부에 대한 전반적인 불만감이 깔려 있었다. 약 49%는 중국 사회의 '방관자' 신드롬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방관자 신드롬은 간략히 말해 이기적이거나 지나치게 사리사욕만을 도모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응답자들은 공직자들이 그 같은 행위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답했다.

응답자의 40%는 '습관성 불신'을 거론하면서, 이 이슈가 10대 우려사항에서 4위로 뽑혔다. 응답자들은 그 중에서도 '정부가 하는 모든 발언'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고, 이어서 '식품 안전', '의료 안전', '현지 의사의 수준' 순으로 지적했다.

다른 응답자 39%는 부를 과시하고자 하는 허식이 문제라고 답했다. 약 3분의 1은 사회의 쾌락주의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최근 몇 개월 동안 정부는 국민 여론 관리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국민 여론은 공직사회에 대해 심각한 수준의 환멸을 느끼는 쪽으로 점점 더 기울어지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부정부패 척결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거물급 인사들을 등장시킨 온라인 포럼을 개최했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은 반부패 운동을 자신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표방하고 있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꼽은 중국사회의 10대 우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신뢰 부족 2. 방관 또는 이기심 3. 일, 삶, 사회적 지위에 대한 불안감 4. 습관성 불신 5. 허식 6. 사회적 추문의 미화와 열광 심리 7. 쾌락주의 8. 극도의 폭력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 9. 과도한 인터넷 의존도10. 자학심리.

자녀에게 최선? 부모에게 최선?

〈2면에서 계속〉

프린스턴대학교의 신경과학자이자 '똑똑한 뇌 사용설명서'의 공동저자 새뮤얼 왕은 사실 더 성숙한 친구들 사이에 있는 것이 어린 학생들에게 행동 면에서나 학업 면에서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그는 나이보다 학교생활이 지성에 더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의 대규모 연구를 근거로 들었다. 이 연구에서는 한 학년에서 가장 어린 아이들이 같은 연령이면서 학년이 하나 낮은 아이들보다 IQ 테스트 결과가 더 높게 나타났다.

미커는 입학을 늦출 필요가 없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 레드셔팅을 할 때 한 번 더 생각해보라고 조언한다. 그녀는 "레드셔팅은 파괴적인 교육 철학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레드셔팅은 근본적으로 자녀에게 높은 성취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하는 셈이다. 그것을 스스로 해내지 못한다면 부모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태도다. 미커는 "레드셔팅을 한 아이들은 결국 부모의 의도를 알아차리게 된다"고 덧붙였다.

특별기고

회심 없는 기독교인

정관일 목사
(토론토가든교회)

목회생활 42년을 넘기면서 기독교인들에 대해 세인들로부터 많은 비난의 소리를 들었다. 진정한 기독교인이라면 마음의 변화뿐 아니라, 삶에 변화를 가져야 하는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마음도 삶도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다.

기독교인은 그들의 행동으로 참인가를 말해줄 수 있는 것이다.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인데 그들 삶속에 아직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신앙고백에 대해 사람들로 하여금 의문을 떠오르게 하고 있다. 수십 년간 나는 수천의 사람들을 교회에서 만나 예배하고 세례를 주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도 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에게 진정한 회심(Conversion)을 경험해보지 못한 양상을 발견한다. 당황하기보다는 그때부터 나는 고민에 빠지게 된 것이다.

어떤 신자에게 고백을 들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지만 나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때 생각이 잘못이었다'는 고백이다. 심지어 어떤 목사들까지도 나를 당혹케 한 때가 있다. 그들은 한때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설교도하고 사례도 받았다는 것이다. 교회에서 믿음을 세워주려 하지 않고 믿음을 허는 일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교회에서는 집사들, 지도급들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이 진실된 신앙고백을 할 수 있도록 준비, 훈련을 해야 한다. 오늘날 교회의 사업(하는 일)은 이 참다운 회심의 사역을 수행하는 일과는 너무나 멀리 있는 것은 아닌가?

성경의 유효성은 인간 삶속에 혁명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성경의 윤리적 도덕적 표준은 비할 데 없는 것이다. 말씀의 진수를 엄격히 고수한다. 그리고 성경에 계시된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로는 아무리 흉악한 죄인들이라도 멋있는 크리스천들로 바뀌었다. 창녀들, 동성애자들, 그리고 살인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참변화가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부도덕하고 방황한 삶에서 순결과 미덕과 사랑으로 바뀌는 것이다.

존 뉴톤은 한때 탐욕적인 악덕 상인이었다. 그런 그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 "그리스도께서 이 야생 짐승같은 자신을 변화시켰다"고 간증한 것이다. 뉴톤은 현대에 가장 사랑받는 "Amazing Grace/나같은 죄인" 찬송을 지은자로 잘 알려져 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심을 필요로 한 사람들에게 다가가도록 부르셨을 뿐 아니라 교회 교인을 격려하도록 부르셨다. 사도 베드로는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하라(벧후 1:10)고 하였다.

단지 믿음의 고백만으로는 사람이 천국에 가는 보증이 될 만큼 생각에 평안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가에 대해 예의 관찰하지 않으면 안된다. 자신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사실은 아닌 것도 있다. 자신은 크리스천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심판 날에 구원이 실제가 아니었다면 얼마나 놀랄 일인가를 상상할 수 있을까?

예배참석만으로 안심하지 말아야 하고 반드시 회심이 있어야 한다고 하니까 새신자들은 물론 활동적인 신자들, 직분자들, 그리고 심지어 목사들도 질문하는 것이 있다. 과연 그들의 회심이 무엇이며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그 회심이 참인 것을 아느냐는 물음이다.

저술가 Gertrude Stein은 유명한 말을 남겼다. "장미는 장미고 장미는 장미다" 나는 가정하고 싶다.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이고 크리스천은 크리스천이다"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거듭났는지 아닌지 거기엔 중간지대는 없다.

한 사람이 공적으로 자신이 교회멤버라고 선언하면 그리스도의 몸의 한 부분이 된다. 하지만 회심이 없다면 그는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교회의 참 멤버는 아닌 것이다. 그런 이가 교회에 머물 때 언젠가 독이 되고 해가 될 수 있다. 그의 이름은 지상명부에 올려있으나 하늘에 있는 어린양 생명책 안에는 기록명이 되지 않는다.

현대의 기독교는 수많은 위기와 혼돈 속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다. 기독교 안에 가지고 있는 순수한 진리(생명)가 회색되어 종교냄새만 풍길 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영역을 잠식해 들어오고 있는 아픔의 현실이 번지고 있다.

십자가를 말하지만 피가 없고, 구원을 말하지만 예수가 없고, 지옥을 말하지만 실체가 없고, 교회를 말하지만 불쌍히 여김이 없고, 성경을 말하지만 진리가 없고, 예배가 있지만 성령이 없고, 사회가 있지만 양심이 없고, 선교가 있지만 긴박성이 없고, 교회가 비대하지만 회심이 없다.

왜 그런 것인가? 그 해결책은 없는가?

면직공고

필라델피아 노회는 제 78회 정기 노회의 결의에 따라
랜스데일 교회의 폐쇄과 곽현영씨는 목사직에서
면직되었음을 공포합니다.(권징조례 6장 42조에 의거하여)

주후 2014년 9월 16일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필라델피아 노회

구 독 신 청 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 국	$100	유 럽	$190
캐나다	$110	남 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 청 유 형	☐ 본인구독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 글 : 목 사 ☐ 영 어 : 평신도 ☐
배 달 주 소	
전화/Fax	( )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 달 주 소	
교회/기관명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신앙칼럼

강준수 목사
(라스베가스 안디옥교회)

양심을 지킵시다

사람은 사랑을 호흡하며 사는 존재이다. 사람은 울음을 터뜨리고 태어나면서부터 진자리 마른자리 갈아주시는 어머니의 모정과 가족의 사랑으로 성장해서 학교에 간다. 우정이란 사랑으로 세상을 배우고 자라며 애정이란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어 살다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을 남기고 눈을 감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사람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랑을 호흡하며 살다 가는 것이다. 한 순간도 사랑이 없이는 사람답게 살수 없다, 사랑이 항상 있을 것이다.

옛날에는 신부가 가마를 타고 시집을 갔다. 가마를 끌고 앞서가는 사람과 가마를 메고 뒤따라가는 사람 다 땀 흘려가면서 먼 길 가느라고 수고한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신랑이 기다리는 사람은 그 가마 한 가운데 앉아 있는 신부이다. 물론 앞에서 가마를 끌고 가는 사람은 신부를 잘 모시고 가면 신랑에게 막걸리 한 잔이라도 대접받을 것이라는 소망으로 산 넘어 고개 넘어 그 신랑 집까지 가는 것이다. 소망으로 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뒤 따라가는 사람은 가마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지만 한 가지 믿음이 있다. 바로 앞에 사람이 가는 대로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틀림없이 신랑 집에 도달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다.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다. 그러나 정작 신랑이 기다리고 반갑게 맞이하는 사람은 가마 속에 앉아서 신랑을 사모하고 있는 신부뿐이다. 사랑으로 가는 사람이다.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사람이 항상 있어야 신랑 집에 간다. 그러나 신랑에게 가면, 앞서 인도하던 소망도, 뒤에서 따라가던 믿음도 임무 끝이다. 더 이상 믿음도 소망도 있어야 할 것이 아니다. 오직 가운데 있던 사랑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이 세상에서 신앙 생활하는 성도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이 믿음이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으니 믿음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 신랑 되신 주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은 임무 끝이다. 믿음이 믿는 바대로 현실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앙생활 중에 소망 또한 항상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소망하던 천국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가 소망하던 것이 현실이 되어있기에 그 때는 그 소망을 더 붙잡고 있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사랑은 계속 있어야 한다. 이 세상에서도 사랑이 항상 있어야 하지만 천국에 가서도 사랑은 계속 있어야 된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던 우리들을 반겨 계속 사랑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살 때 있었던 모든 것이 다 떨어지고 사라져도 천국은 사랑만큼은 서로 주고받아야 하기에 거기서도 계속 있는 것이다.

가정은 사랑이 항상 있어야 하는 사랑의 보금자리이고 교회는 천국에서도 있어야 할 사랑을 배우고 훈련하는 곳이다. 그런데 장성한 사람은 사랑을 주는 쪽이고 어린 아이는 언제나 사랑을 받는 쪽이다. 덕스런 사람은 사랑을 베풀어 주지 못해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고 어린 아이같은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해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다. 특별히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라! 사랑이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들 보면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다.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온갖 원망과 불평을 일삼게 되는 것이다.

좋은 이웃을 찾을 것이 아니라 좋은 이웃이 되어주라는 주님의 말씀은 바로 사랑을 주라는 말씀이다. 교회도 마찬가지이다. 사랑을 받으려고 먼저 대접받으려고 하면 실망하고 상처까지 주고 떠날 수밖에 없다. 내가 먼저 사랑을 주고 먼저 베풀어야 한다. 그 사람이 장성한 사람이다. 인생을 살아가는데 믿음은 항상 있어야 한다. 그리고 희망도 항상 있어야 한다. 물론 사랑도 항상 있어야 한다. 이 세 가지 모두 항상 있어야 한다. 사람답게 살기위해서는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사랑이 없으면 믿음도 희망도 이미 의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이다.

푸/른/초/장

김요섭 목사
(남가주리디머교회)

기본으로 돌아가라
(시편 119편 73-80절)

모든 운동에는 기본동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동작을 잘 배운 사람이 운동을 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의 해결도 기본동작을 통해서 해결이 됩니다. 수학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기본공식을 알아야 합니다.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기본이 되어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져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을 때 기본동작을 반복 훈련함으로 이겨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삶에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환란의 폭풍 속에 서있게 되었을 때 이겨내는 방법은 신앙생활의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되면 모든 문제들이 하나하나씩 해결되게 됩니다. 아멘!

시편기자는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서 자신이 당한 고난이 유익하다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은 나에게 유익이 되면 되었지 결단코 헛되지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나를 더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고, 내가 기대하지 않은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십니다. 시편기자는 계속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가 고난에 처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 믿음의 근본으로 돌아가라 (v.73상).

고난을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의 첫 진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73절 상반절입니다.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첫 번째 진리가 무엇입니까? 믿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Who made you? God! 누가 나를 창조하셨느냐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라는 믿음은 우리 기독교 진리의 출발점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한발자국도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떠한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시편기자는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아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가 되기 위해서 지금의 고난을 당하도록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지금 겪는 고난의 시간도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는 믿음입니다. 따라서 고난에 처하게 되었을 때 우리가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믿음의 근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나를 지으셨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그 누구보다도 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연약함도, 나의 질병도,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치료되어야 할지 아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한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환란과 위기에 처하게 되어도 아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지으시고 만드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여주십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사 44:1-2) 하나님이 누구를 도와주십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어낸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듣기 원하시는 고백은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앞이 캄캄한 일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빨리 이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세우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일어난 줄 압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게 하여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난 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73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최우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간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도제목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고난 속에서 자신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깨닫게 하여 달라고 기도한 시편기자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게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신실하신 분이십니다(v.75).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옳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자신이 경험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옳게 행하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둘째,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v.76).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있을 지라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위로를 줍니다. 따라서 우리는 위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v.77). 우리가 환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가장 기본이 되는 믿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근본믿음은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첫 발걸음이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여 줍니다.

2. 고난 속에 성장은 다른 믿는 자들에게 용기를 줍니다(v.74).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74절) 시편기자는 자신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되었을 때 다른 믿는 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시편기자는 하나님의 약속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이 모습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취어집니다.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기쁨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은 항상 다른 그리스도인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내가 고난 속에서 믿음으로 성장하는 모습이 다른 믿는 자들에게 기쁨과 용기를 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할지 알게 됩니다. 내가 연약하게 되면 다른 형제들도 연약하게 되고, 실망하면 실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다른 형제들에게 낙심과 좌절을 주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은 기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는 근본믿음을 가지는 한 우리는 그 어떠한 문제들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며,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며, 긍휼을 베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성장해 나갈 때 우리 주위의 믿음의 식구들은 기쁨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다른 믿는 자들에게 기쁨과 용기를 주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메릴랜드 볼티모어 외곽 엘리콧시티에 위치한 독립교회인 벧엘교회(Bethel Korean Presbyterian Church)에서 다음과 같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 격

1. 복음주의적 개혁주의 신앙 노선을 따르는 장로교 목사.
2.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으로 목회학 석사(Master of Divinity)이상학위를 소지하신 분
3. 연령이 40세 ~ 50대 초반 이신 분
4. 3년이상의 이민목회 경력(부목사 포함)을 포함하여 총 목회경력이 5년이상 되신 분 (미국 정규신학교 에서 공부하거나 가르친 기간을 이민목회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
5.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하신 분
6. 2중 언어(한국어/영어)사용에 불편이 없으신 분.

제출서류

1. 1 차서류
   - 이력서(한/영 각 1부)
   - 자기 소개서(가족소개 포함)
   - 최근 6 개월 내 설교2 편(해당 CD/DVD또는 website 주소 제출)
   - 목사안수 증명서
   -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2. 2차서류
   - 1차 서류심사를 통과하신 분께 개별 연락드림

서류 제출처 및 기간

1. 제출마감(도착기준) : 2014년 11월30일
2. 제 출 처
   - 우편: 청빙위원회
     Bethel Korean Presbyterian Church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 Email: psc@bethelchurch.org
3. 기 타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교회 웹싸이트:www.bethelchurch.org.
4. 문의: 청빙위원장 이길용 장로 (443-889-9879)

벧 엘 교 회
(Bethel Korean Presbyterian Church)

사 역 자 청 빙

죠지아 주 제2의 도시인 컬럼버스 반석장로교회에서 담임목사 29년의 목회 열매를 함께 추수하며, 25,614 S/F의 새 예배당으로 확장이전하면서 주님나라 확장을 꿈꾸실 두 사역자를 청빙합니다. 현재는 출석교인 310명(영어회중 40명 포함)이며, 아틀란타 공항에서 남쪽으로 90마일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인구는 32만명(한인인구 약 2천명)정도이며,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다운타운으로 선정된 전원의 도시이고, 대도시에 비하여 생활비 및 각종 보험비가 저렴합니다.

[- 어린이 및 성인 교육담당 교육목사(전도사)
- 행정 및 은사팀들(찬양) 담당 부목사]

* 두 사역자의 기본자격 *
1.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자기의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
2. 개인 경건의 시간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는 자
3. 동성애는 죄의 성향이기애, 동성애자를 치료받아야 할 자를 품는 자

자격요건 신학교 졸업 혹은 예정자(교육목사나 전도사는 기독교 교육 전공자 우대)
이중언어 사용자(교육목사나 전도사는 1st 영어, 2nd 한국어)
미국 체류 및 해외 여행에 문제가 없으신 분

제출서류 한글 및 영문 이력서
학위 증명서 및 성적 증명서
신앙고백 및 목회철학(한글과 영어)
추천서 1매(밀봉 날인 필수)
본인 및 가족 소개서(가족사진 1매 포함)
PIF(Personal information form) Part 1 & 2
(download: http://www.pcusa.org/resource/personal-information-form/)

제출마감 2014년 10월 15일(수)
Dr. Ha, Jong Wook (청빙위원회장 하종욱 장로)
5301 Sidney Simons Blvd. Columbus, GA 31904
TEL. 706-580-9667 Email: ha_jong@columbusstate.edu
교회 Website: www.rockpc.org

컬럼버스 반석장로교회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미국에 임한 도덕적 쇠퇴기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최근 급성장하는 중국을 보면서 자주 논의되는 제목이 있다. 미국의 쇠퇴기가 도래했다는 주장이다. 미국은 현대에 나타난 최강대국이다. 소련의 몰락 이후에 전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가지고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미국의 영향력은 여전히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미국의 전성기가 끝나간다는 주장이 새롭게 일어나고 있다. 물론 미국의 문화 가운데서 문명말기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미국의 쇠퇴와 멸망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수이다. 종말론 예언으로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주장마저도 포함이 된다. 물론 어느 문명이든지 흥망성쇠가 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제국들이 왔다가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다. 세계를 지배하던 애굽, 앗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이르기까지 지역과 세계의 패권을 가지기 위해서 전쟁과 다툼이 그치지 않았다. 영원히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은 대영제국도 해가 졌다. 미국도 물론 예외가 아닐 것이다.

미국의 경제적 군사적 영향력도 관심의 대상이지만 우리의 관심을 더 끄는 것은 미국의 도덕적 타락이다. 이것은 세계적인 현상이고, 말세의 현상이기도 하지만 그 심각성은 날이 갈수록 더하여 간다. 미국의 도덕적 타락의 정도는 어느 방향을 보아도 명백하다.

미국을 둘로 나누는 가장 예민하고 치열한 싸움을 하는 영역은 아마도 유산abortion에 대한 것이다. Roe V. Wade의 유산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래 41년이 지난 오늘도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지난 2010년 유산에 대한 보고는 가히 충격적이다. 유산의 부분적 합법화 이래 지난 37년동안 무려 5천만명의 태어나지 못한 아이들이 유산당했다고 한다. 아직도 이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Bert M. Farias는 지난 5월 Charisma지에 기고한 글, The Great Deception in the American Church에서 도덕적 타락을 지적하고 있다. 그는 지난 세대 5-60년 동안의 급격한 도덕적 쇠퇴를 지적하고 있다. 바나그룹의 조사에 의하면 77%의 미국인들은 자신이 천국에 갈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한다. 또한 2/3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고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산업화된 사회에서 양부모 중에서 한 사람과 함께 사는 있는 비율이 가장 최고의 비율이고, 최고의 유산율, 최고의 성병 감염율, 최고의 십대 결혼율, 최고의 십대 마약 사용율, 감옥에 수감된 사람과 인구를 비례해 볼 때에 또한 세계최고이다.

지난 한세대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변화는 실로 파괴적으로 놀랍다. Farias는 이혼율이 2배로 상승했고, 십대 자살율이 3배로 증가, 폭력범죄는 4배로 증가, 수감자 인구가 5배로, 사생아 출생률이 6배로, 부적절한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이 7배로, 동성애 결혼의 합법의 현실은 이제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어디까지 내려갈지 도무지 멈출 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무법과 이기심과 자유방임은 기독교인들 사이에도 증가했다. 안타깝게도 교회도 예외는 아닌 것 같다. 세상의 지도자들의 비율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교회의 지도자들 속에서도 성적인 죄, 부도덕한 일들, 각종 중독과 이혼율까지 한국과 미국의 교회의 영적 능력의 약화를 보여주고 있다.

크리스천포스트의 Audrey Barrick 역시 같은 증언이다. 그가 보고한 조사, Survey: Departure from God is Cause of America's Moral Decline에 의하면 미국인의 74%가 도덕적 가치가 20년전에 비해서 많이 헤이해졌다는데 동의한다.

도덕적 해이와 쇠퇴를 가져오는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방송통신 등의 미디어를 든다. 한국과 아시아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던 드라마 여교수와 학생의 부적절한 관계를 그린 드라마라든지, 이제는 연상연하 관계없이 성적대상으로 보게 만드는 수많은 영화와 드라마들이 사람들을 세뇌시킨다.

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가정과 부모들의 무너짐이다. 가장은 영적인 권위는 물론 존경을 잃어버렸다. The National Cultural Values Survey는 미국인의 68%가 도덕적 쇠퇴의 이유로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뉴스 등을 든다. 하지만 더 많은 사람인 74%는 부모와 가정이 처음이고 그 다음이 미디어를 들었다.

미국인의 의식구조가 어떻게 변해가는가? 바로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성에 대한 기준이 무너져 내렸다. 크리스천포스트는 16%는 결혼하지 않은 성인들의 성적 관계는 결코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49%는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고 했으며, 65%는 자신들이 혼외관계를 가질 것이라고 했다. 또한 45%는 어떤 이유라고 하더라도 이혼은 합법화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놀라운 것은 미국이 지난 50년 동안 무너져 내리는 것이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요동치는 경제도, 미래의 갈 길과 소망을 제시하지 못하는 정치도, 문제에 문제를 안고 밑바닥이 보이지 않는 내리막길을 달리는 사회도 문제이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신앙적인 퇴락이다. 그 결과로 보여지는 도덕적인 쇠퇴함이 미국의 심각한 위기를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이 도덕적인 쇠퇴가 그 끝이 보이지 않음에 있다. 미국을 대표하고 살려야 하는 유일한 소망인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에 무엇인가 엄청나게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통계들은 우리의 눈을 여는 역할을 한다. 이것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생명이고 진리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못 전달하고 있는가를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소망이다. 미국이 수많은 위기를 경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영적 부흥을 주셨다. 제1차 각성운동과 제2차 각성운동은 미국을 살렸다. 그리고 그 시대의 세계를 살리도록 사용하셨다.

모든 것이 잘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풍요의 미국문화가 얼마나 기만적인지를 보여준다.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나사로 비유에서 보여주신 것처럼 부자는 자신이 지옥에 있는 것에 놀란다(눅16:19-31). 유대인들은 부자가 되는 것은 선하기 때문에 부를 주셨다고 생각했다. 자신이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은총을 베풀어주셔서 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부하면 좋은 사람이고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다. 천국은 당연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말씀은 엄청난 충격이었다(마19:23-25).

이방인들도 똑같이 생각했다. 라오디게아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부자이기에 하나님의 은총과 사랑을 받는 잘 나가는 것으로 생각했다(계3:14-22). 주님이 그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하여 책망하실 때에 그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에 속았던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부귀와 선함의 증거로 착각하면서 살았다. 라오디게아교회는 마지막 시대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다. 부와 번영에 취해서 언제 뜨거운 사랑을 잃어버리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현대인의 모습이다.

하나님께서 미국에 다시 영적인 기회를 주시기를 갈망하면서 기도한다. 미국은 세계에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내보내던 나라이다. 현재도 그러하다. 우리는 미국이 다시 살아나서 청교도의 신앙을 회복하며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미국의 새로워짐과 세계의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소원하고 기도한다. 옛날에는 미국교회가 한국교회의 부흥운동의 불씨가 되었었다. 뉴욕의 풀톤 스트릿 부흥운동이 미국을 덮고 한국의 원산과 평양의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불씨가 되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세워졌다.

한국인들의 이민이 활성화가 되면서 한인교회들은 약해서 가는 미국교회들에 활력소가 되어왔다. 예루살렘의 회복과 성벽의 건립이 남은 자들이었던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에스라,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남은 자로 쓰임 받기를 원한다. 나무가 베임을 당해도 그루터기가 남고(사6:13) 그루터기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하는(사11:1,10) 마지막 시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총을 사모한다.

미국의 도덕적 쇠퇴의 증상은 우리가 남은 자들이 되어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서 쓰임 받는 놀라운 새로운 일을 여시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메일:revdavidkim@yahoo.com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E-Mail: tlspc0316@gmail.com

Q: 저는 목회하는 젊은 목사입니다. 이민교회의 목회자가 승리하는 목회를 하려면 실력이 있어야 하고 거기에다 인격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목회자가 실력보다 미성숙한 인격의 오점 때문에 목회에 큰 위기와 문제점을 가져 오기도 쉬운데 목회 리더십에서 인격이 왜 그리 중요한지? 어떤 인격을 가져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카고에서 K 목사

A: 한국에서 목회하는 홍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미국에 이민 목회하는 목회자의 아들로 중학교 때 이민 와서 1.5세로 이곳서 공부하고 자란 목사님이십니다. 웨스트민스터와 풀러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한국으로 돌아가 한국에서 목회를 하는데 리더십분야에서 학적으로 탁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쓰신 여러 책 가운데 "칼과 칼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명품의 칼일수록 칼집도 좋아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칼집이 없으면 명품의 칼도 예리한 칼날이 아무거나 막 베게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의 성능도 좋아야 하지만 칼집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칼은 콘텐츠 즉 실력이요 칼집은 인격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갖추어야 할 인격이라면;

겸손과 인내 절제의 인격과 실력 갖춰야

1) 겸손한 인격-낙차가 클수록 폭포의 파워가 큰 것처럼 겸손한 사람의 실력이 더 빛을 발합니다.

2) 부드러운 인격-대가일수록 부드럽습니다. 골퍼들의 스윙이나 축구선수들의 움직임을 보면 춤을 추듯이 부드러운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폭발력이 뿜어 나옵니다.

3) 인내할 줄 아는 인격-매미는 한철을 울기 위해 애벌레로 7년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부흥의 파도는 쳐오는 밀물의 때가 있습니다. 고난의 때를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4) 자기 절제의 인격-입맛이 당긴다고 다 먹으면 탈이 나고 비만증에 걸립니다. 힘이 있다고 마구 휘두르면 그것은 폭력이 됩니다. 생각이 난다고 다 말해버리면 그것은 남에게 상처를 줍니다. 웅변을 배우기 전에 침묵하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실력을 가진 사람일수록 훌륭한 인품을 갖출 때 그 실력이 더 찬란한 빛을 발하며 감동을 주는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그 성품에 결함이 있으면 그는 진정 사람들이 존경하고 믿고 따를 지도자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사야서에서는 이상적인 메시야의 모습이 나옵니다. 2종류의 메시야이십니다.

첫째 승리와 영광의 메시야인 동시에 그분은 고난의 메시야이십니다. 둘째, 탁월한 설교와 가르침 수많은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과 실력을 갖추신 분이시면서도 그분은 좋은 성품의 소유자란 것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실력과 인격을 갖추는 모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민교회의 목회자로서 예수님처럼 부디 실력과 인격 즉 칼과 칼집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청빙

뉴욕 퀸즈 플러싱에 소재하고 있는 든든한교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소속)에서 담임목사를 아래와 같이 청빙합니다.

1. 청빙요건
1) 정규 신학대학원(M.Div)을 졸업한 자
2)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소속 또는 가입이 가능한 자
3) 5년 이상의 목회경력자(부목사 포함)
4) 합법적 미국 체류가 가능한 자

2. 제출서류
1) 이력서
2) 목회계획서

3. 제출서류 마감
1) 제출기한: 2014년 9월 30일(화)
2) 접수방법: 우편 또는 이메일

4. 보내실 곳
1) 우편: 146-29 26 Ave. #2FL. Flushing, NY 11354
2) 이메일: kwanhochung@hotmail.com
3) 전화문의: (917)750-8174

5. 참 조
1)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든든한교회

담임목사청빙

루이지아나주 슈리포트보죠 한인장로교회(PCUSA)에서는
다음과 같이 담임 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자격
1. 장로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으신 분(M Div).
2. 목사 안수후 2년 이상 목회경력이 있는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및 학력증명서
2. 본인 및 가족소개서
3. 목회 계획서
4. 최근 시무한 교회 3개월이내 주보 1매와 설교 CD 2 회분, 온라인(동영상)

제출처
1. Shreveport Bossier Korean Presbyterian Church
1180 Dudley Ln
Bossier City, LA 71112 혹은
2 sbpc990@gmail.com

연락처
유호석장로 (318-349-2347)

제출기한: 2014년 10월 11일

슈리포트보죠 한인장로교회
SHREVEPORT-BOSSIER KOREAN PREBYTERIAN CHURCH

미주크리스천신문

기사제보와 문서선교 후원을 받습니다.

45개국에 복음을 싣고 나갑니다.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56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LA@chpress.net
NY@chpress.net

중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인도의 마라티(MARATHI)

마라티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인도 중부의 서해안 근처, 주로 마하라쉬트라와 주변 주에서 자리잡고 있다. 마라티 종족들에는 4개의 미전도 종족들이 포함되는데, 7백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베라르 마라티족(브라마니족), 단와르족, 6천만 이상의 인구를 가진 마라타족, 그리고 타쿠르족이다. 각 종족은 마하라쉬트라 주의 공식어인 마라티어의 각 방언을 사용한다.

마라티 종족들은 각각 거주위치나 형태가 다 다르다. 일부 부족들은 산지에서 살고, 다른 부족들은 데칸 고원에서 살아간다. 지주와 농토 경작자가 있는가 하면, 정글 마을에서 살아가는 문맹의 부족들도 있다. 이 부족들 가운데서 모든 수준의 사회를 볼 수 있다. 그들은 또한 각자 다른 종교적 관습과 문화전통을 갖고 있다.

마라티족은 고대 마라타 왕국에서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왕국은 위대한 지도자 마라타와 영웅인 시바지에 의해 시작됐으며 왕국은 17세기에서 19세기 초까지 권력을 떨쳤다.

삶의 모습

일반적으로 마라티족은 시끌벅적한 것과 맛있는 음식, 좋은 포도주, 성대하게 치루는 의식과 축제를 좋아한다. 그들은 남자의 용기와 여자의 순결을 중히 여기는 호전적인 사람들이다.

대부분의 마라티족은 힌두교도이기 때문에 카스트계급으로 나뉘어지며, 카스트 계급은 거룩한 경전에 관련한 정결의 정도에 기초해 만들어진다. 4개의 카스트가 주축이 되는데, 최상층 "브라만"(Brahmin)은 사제 계급이다. "크샤트리아"(Kshittree)는 무인 계급으로 강하지만 거의 사라져가는 계층이며, 그들의 역사가 다만 그들의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세번째 계층은 "웨이쉬"(Weysh)이며, 이들은 상업적인 또는 사업을 하는 부류다. 최하층의 계층 "슈더"(Shooder)는 농부와 경작자들로 이뤄진다. 마라티족들은 정부연금수혜자, 지주, 군인들로 구성되지만 대다수는 최하층의 농부들이다. 단지 일부만 지배계층으로, 일부는 상인이고 많은 사람들이 군대에 있거나 정부부처에 있다.

고원지역에서는 밭을 갈기 위해 황소가 사용된다. 최빈곤층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농부들이 소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에 상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농장의 축사에서 키우며, 때때로 집 안의 뜰에서 기르기도 한다. 주식은 밀로 만든 빵과 쌀, 렌즈콩, 채소류다.

아랍 해의 해안지대에 위치한 마라티족의 마을은 남북으로 뻗은 긴 거리와 그 양변의 가옥들로 이루어져 있다. 각 가옥에는 뜰이 있고 그 주변은 담이나 울타리로 둘러쳐져 있다. 데칸 고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밀집된 마을을 이루며, 각 마을에는 힌두교 사원과 부유한 지주의 저택이 있다.

대부분의 마라티족들은 소고기나 돼지고기, 술도 마시지 않지만, 남자들은 대개 담배를 피운다. 타쿠족과 같이 산지에서 살아가는 부족들은 평지인들과 왕래가 없으며 사냥꾼들로 잡은 동물들을 먹는다. 산지 사람들 대부분은 평지 사람들에게 의지해 살고 있다.

신앙

마라티족 대부분은 힌두교도다. 그들의 종교는 신앙보다는 행위에 의해 더 정의될 수 있다. 힌두교는 다신교이며, 따라서 여러 신을 숭배한다. 많은 경전이 있어 기도, 찬양, 제의와 신학 교리, 힌두교 신에 대한 신화, 철학 작품, 종교적 또는 사회적 규율 같은 것을 담고 있다.

힌두교 교리에 따르면 인간 뿐 아니라 동물에게도 영혼이 있어 동물의 형태를 띤 신에게도 예배를 드리며, 소가 신성시되는 외에도 원숭이와 뱀, 그 밖의 동물들도 숭배의 대상이 된다. 영혼불멸을 가르쳐 신체가 죽으면 영혼은 환생한다(윤회). 사람이 선한 삶을 살면 영혼은 보다 높은 상태로 태어나며, 악한 삶을 살면 낮은 상태로 태어나, 어쩌면 벌레의 몸으로 태어날 수도 있다. 윤회는 영적인 완성을 이룰 때까지 계속되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새로운 차원의 존재로 들어가게 된다.

마라티족 가운데 존재하는 소수의 무슬림들(8%)은 무슬림 침략자들의 후손들이며, 18세기에는 모굴 제국과의 전쟁이 있었다. 그들은 이슬람교의 하나피파에 속한다.

필요로 하는 것들

인도는 상당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은 충분히 개발되지 못해 매우 낮은 생활수준을 갖고 있다. 마라티족은 평안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이것은 그리스도를 앎으로써만이 발견될 수 있는 것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미공군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 입대선서 삭제

미 공군이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so help me God)라는 문구가 들어간 입대선서를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고 허핑턴포스트가 17일 전했다.

미국인본주의협회(American Humanist Association, AHA)는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라는 문구가 들어간 입대선서를 반대해 입대허가를 얻지 못한 항공병의 이름으로 고소하겠다며 공군을 지속적으로 압박했고, 공군은 결국 정책을 변경했다. 공군은 지난해 말까지 일부 입대 지원자들에게 이 문장을 생략한 선서를 허용해왔다. 그러나 이제 모든 항공병들이 이 문구가 생략된 선서를 하게 됐다.

미 공군 드보라 리 제임스(Deborah Lee James) 사무총장은 성명을 통해 "공군의 정책 변화는 즉각적인 효력을 가졌다"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 공군들의 권리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적절한 수정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미 해군과 육군 역시, 경우에 따라서 '하나님, 나를 도우소서'라는 문구가 생략된 입대선서를 허용하고 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에서는 공적 영역에서 기독교적인 색채를 지우기 위한 노력이 공공연하게 일어나고 있다.

'임신부 사형수' 수단 기독여성 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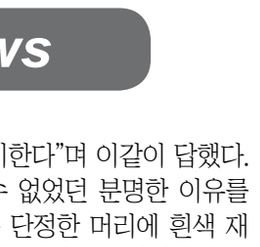
이슬람 개종을 거부해 임신한 채로 사형 선고를 받았던 수단의 기독교 여성 메리암 이브라힘(27)이 미국 망명 후 가진 첫 언론 인터뷰에서 "믿음이 없다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니다"라고 간증했다.

이브라힘은 최근 미국 방송 폭스뉴스에 출연해 "(종교적 신념 때문에)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가"라는 질문에는 "믿음은 곧 생명을 의미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죽음 앞에서도 신앙을 놓을 수 없었던 분명한 이유를 고백한 것이다. 어깨까지 오는 단정한 머리에 흰색 재킷을 차려입은 이브라힘은 밝은 표정으로 인터뷰에 응했다. 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확신했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에만 의지했다"고 말했다.

이브라힘은 수단법원이 최종 판결 전 이슬람학자를 투입해 자신을 회유했다고 전했다. 그는 "3일 동안 나는 상상할 수 없는 압박에 시달렸다"며 "그러나 이슬람 학자와의 대립 속에서 내가 가질 수 있었던 유일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 그것은 내가 가진 전부였다"고 강조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을 굳게 믿었다"며 "그분은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고 덧붙였다.

이브라힘은 임신 3주차부터 감옥에 갇혀 쇠사슬에 묶인 채 출산한 기억으로 아직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수단 등 아프리카의 여성과 어린이, 핍박받는 이들을 돕고 싶다"며 앞으로의 희망을 내비쳤다. 그는 "수단과 세계에는 수많은 '메리암'이 있다"며 모진 시련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는 많은 기독인에 대한 관심을 촉구했다.

"세계 기독인 무관심이 IS 키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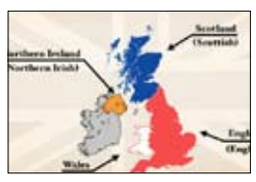
세계 기독교인들의 무관심이 이슬람 극단주의단체를 키운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선교단체 미국오픈도어 선교회(오픈도어)의 데이비드 커리 대표는 최근 미국 기독교매체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시리아와 이라크 등 중동 국가에서 기독교인 박해가 늘고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단체 '이슬람국가(IS)'가 활개 치는 원인을 묻는 질문에 "중동 기독교인에 대한 관심 부족이 그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IS의 위협은 이라크와 시리아에 국한된 것이지 세계를 향한 것이 아니다"며 "이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IS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지구 반대편의 기독교인이 핍박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당장 우리에게 닥친 일이 아니라는 이유로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일부 크리스천들을 비판한 것이다.

커리 대표는 "중동의 모든 이슬람교인이 극단주의자는 아니다"며 "그러나 소수의 극단주의자들이 기독교인에게 총을 겨누며 개종을 강요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이라크와 시리아 난민촌의 열악한 상황도 전했다. 그는 "IS를 피해 맨몸으로 난민촌에 온 사람들은 천막도 없이 매트리스에서 잠을 자며 구호단체가 나눠준 식량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다"며 "노숙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도 변변한 외투마저 없어 다가올 겨울이 걱정된다"고 말했다.

커리 대표는 "이라크와 시리아의 기독인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오랫동안 핍박을 당했다"며 "우리 기독교인들은 식량과 식수와 같은 실질적 지원뿐 아니라 기도로 그들을 지속적으로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코틀랜드-잉글랜드 갈등 '경제보다 종교'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를 계기로 스코틀랜드 장로교와 잉글랜드 국교회(성공회)의 역사가 재 부각되고 있다. 스코틀랜드의 분리 독립의 핵심은 경제보다 종교문제로 봐야 한다. 역사적으로 반복된 두 국가간 분쟁처럼 기독교 분파 간 갈등의 역사가 존재하는 것이다. 현재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을 주도하는 스코틀랜드국민당(SNP)은 장로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사가들에 따르면 17세기 초까지 대영제국은 잉글랜드의 튜더가와 스코틀랜드의 스튜어트가로 분리돼 있었다. 1603년 엘리자베스 1세가 후손 없이 사망하자 잉글랜드는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를 후계자로 지명했다. 제임스 6세는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로 즉위했고 100년이 넘는 치열한 논란 끝에 두 나라는 1707년 완전히 통합했다.

이에 앞서 종교개혁의 물결은 두 나라를 휩쓸었다. 스코틀랜드는 존 낙스가 칼뱅의 장로교를 전파했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신앙고백서인 '낙스 전례서' 등을 통해 스코틀랜드 개혁을 주도했다. 반면 잉글랜드 국교회는 전례와 예배 등을 강조해 자유로운 형태의 예배를 받아들인 스코틀랜드 교회와 달랐다. 이른바 '주교전쟁'(1638)은 잉글랜드 국교회의 주교제도를 스코틀랜드에 강요하다 발생한 갈등이다. 당시 제임스 1세는 스코틀랜드 교회에 잉글랜드 성공회 요소를 도입하기 위해 애를 썼지만 저항에 부딪혔고, 뒤를 이은 찰스 1세도 '공동기도서' 등을 스코틀랜드에 적용했지만 역풍을 맞았다.

이 때문에 스코틀랜드에서는 서약운동이 일어났다. 스코틀랜드 신자들이 자신들의 예배 방식과 신앙을 지키겠다는 서약이었다. 이어 스코틀랜드 하원은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모든 주교를 추방했으며 그 자리에 장로교 성직자를 세웠다. 주교전쟁은 잉글랜드의 찰스 1세가 추방당한 주교를 다시 세우기 위해 군대를 소집하면서 발생했다.

두 나라가 대영제국이 된 이후에도 갈등은 식지 않았다. 잉글랜드 국교회는 스코틀랜드 교회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러자 1834년 스코틀랜드 교회의 칼뱅주의 그룹인 복음주의파가 자유교회를 설립, 국교회에 '물든' 스코틀랜드 교회와 결별했다. 이후 자유교회는 스코틀랜드의 유력 세력으로 성장했다. 이들은 자체적으로 기금을 마련해 목회자들의 생계를 지원했고 에든버러대 안에 '뉴 칼리지'를 설립, 윌리엄 챔버스 등이 스코틀랜드 장로교회의 복고를 외쳤다. 총신대 라은성 교수는 "이들은 존 낙스 시대로 돌아가자는 운동을 전개했다"며 "현재 SNP가 내세우는 '새로운 스코틀랜드'라는 구호도 개혁정신과 일맥상통한다"고 말했다.

스코틀랜드교회는 세계 교회사에서 적잖은 기여를 했다. 웨스트민스터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 형성을 도왔고 아프리카 선교의 선구자였던 데이비드 리빙스턴, 로버트 모펫, 메리 슬레서 등을 배출했다. 최초의 한글 성경 번역자였던 존 로스 선교사도 스코틀랜드 출신이다. 복음주의 신학의 산실인 세인트앤드류대와 에든버러대, 에버딘대, 글라스고우대 등도 유명하다.

18일 치러진 스코틀랜드 분리 독립 투표는 교회의 향방과는 관계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승구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급속한 세속화로 두 나라 교회 모두 약하다"며 "지금은 부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스코틀랜드 기독교인은 132만명(25.7%)으로 50년 전에 비해 절반으로 줄었다.

선교 장학금 신청 안내

KWMC 평신도 선교운동본부에서는 선교 장학금 신청자원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The Center for Lay Mission Mobilization, KWMC invites candidates to apply for scholarship.

● 신청 자격 Qualification
*북미주 거주자로서 타문화권 장기선교후보자로 훈련에 임하는자이거나
(New candidate in training in U.S. for long-term cross-cultural mission), or
*북미주 거주자로서 타문화권 장기 선교사역을 준비중인 신학생
(Seminary students in U.S. preparing for long-term cross-cultural mission)

● 장학금액 Scholarship Amount
일인당 $1,000 per person

● 신청마감 Application Deadline
2014년 10월 31일 / October 31, 2014

● 신청 서류 Required Documentations
1.신청서 A completed application form
(신청서류는 www.kwmc.com 에서 download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2. 출석교회 담임목사 추천서 A letter of recommendation from the pastor of your church
3. 재학 증명서 혹은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Registration confirmation of your current school or copy of your diploma from your last School graduated)
4. 선교사가 되려는 이유에 대한 에세이 2-3장 (Essay on why you would like to be a long-term, cross-cultural missionary (2-3pages)

● 서류 보내실곳 Mail to: KWMC- Scholarship Fund
3731 Cedaridge Road, Kalamazoo, Michigan 49008

● 문의사항 For more informations;
*KWMC본부 T/845-267-4159 F/845-267-4169 kwmc@kwmc.com / www.kwmc.com
T/ 773-206-3809(Hyomyeong Rhiew) / hmrhiew@sbcglobal.net

2014년 9월 1일

기독교 한인세계선교협의회(KWMC) 평신도선교운동본부

본부장: 유효명/ 장학위원장: 이상진/운영복 회계: 홍순택/ 서기:김정균/ 홍보담당:이상천

전미주와 해외 44개국에 복음을 심어 나릅니다.

전미주 및 해외한인 교회 주소록 수록 신청서

교회 기독교 기관, 기독교언론 선교회, 신학교, 기도원 및 수양관

보내실곳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신규 □ 변경 □ 추가 변경전 전화번호 ( )

① 교회(기관) 이름	한글: 영문:
② 교회(기관) 주소	
③ 교회전화 & 팩스	Tel.( ) Fax.( )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영문: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 Fax.( )
⑦ E-mail Add.	@
⑧ Web Add.	http://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 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로 보내주십시오 ④ 번은 해당사항에 O표시를 하세요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49)

정 성 구 박사 |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총신대명예교수

카이퍼 목사의 설교내용(1)

천재적 수사학으로 "하나님 영광과 주권, 교회개혁,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 왕권 건설" 주제로 설교

우트레흐트교회에서 목회와 설교는 전과 다르기는 해도, 카이퍼는 국가교회가 반드시 개혁되어야 할 것을 설교를 통해서 주장했고 언제나 교회당을 꽉 매운 청중들에게 웅장한 설교를 했다. 우트레흐트중앙교회를 담임할 때가 약관 30세였다. 우트레흐트교회를 목회하는 중에 암스테르담교회가 카이퍼 목사를 청빙했다. 우트레흐트에서 3년도 채 되지 않았지만 카이퍼는 응했다. 카이퍼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설교는 계시록 3:11을 읽고 "정통주의와 보수주의"란 제목으로 "우리의 찬란한 정통주의를 거짓된 보수주의의 음험한 도랑에 처박지 말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그것은 거짓된 자유주의 사상을 기득권으로 지키려는 자들에게 일격을 날린 것이다. 암스테르담교회에서 카이퍼의 설교는 놀라운 것이었고 농익고 뜨겁고 확신에 차있었다. 정통주의 곧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암스테르담중앙교회 성도들에게는 카이퍼 목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가장 이상적인 설교자였다. 카이퍼 목사가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강단에 서는 것이 그들에게 가장 영광스런 일이었다. 카이퍼 목사의 설교는 항상 성경 본문의 뜻을 밝히 드러내어 알아듣기 쉽게 감동적으로 설교했다. 카이퍼 박사의 설교 신학적인 강의도 감정적인 훈계로 충동적인 설교가 아니라 영적으로 균형이 잘 잡힌 설교였다.

카이퍼 박사는 선천적이고 천부적 설교가요 연설가였다. 카이퍼는 언어를 훌륭하게 구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즉 카이퍼는 레토릭(Rhetoriek, 수사학)의 천재였다. 그가 설교할 때면, 간결한 단어, 절, 설명이 샘솟듯 했다. 그의 어휘력은 탁월했고, 그의 설교는 대가다운 문체였고 그의 발음은 우아하고 고전적이며 박진감에 넘쳤다. 그리고 영적 카리스마는 청중을 사로잡았다. 뿐만 아니라 그의 설교는 모두 예술작품처럼 훌륭했다. 사람들은 카이퍼의 설교를 듣고 영적인 유익은 물론이고 미적인 즐거움까지 함께 누렸다. 카이퍼의 그 웅장한 목소리, 능숙한 강연, 또한 카리스마적이고 생기가 넘치는 설교 태도로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시의 적절하게 설교함으로서 청중들을 완전히 사로잡았다.

카이퍼는 설교자지만 명 연설가요, 명 칼럼니스트였다. 그래서 때로는 어느 것이 설교이고, 어느 것이 연설인지 구별이 되지 않았고 또 어느 것이 설교이고, 어느 것이 명상록인지도 구별이 애매하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형식이 어떠하든지 간에 언제나 영혼의 깊은 문제를 다루었고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 그리고 교회개혁과 삶의 전 영역에 하나님의 왕권 건설이 주제였다. 어떤 이는 카이퍼의 삶을 모두 정치가로서, 또한 일반은총을 주장하는 문화신학자로만 이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실제로 카이퍼의 메시지는 '하나님께 가까이' 라는 대 주제아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삶, 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활화산처럼 외치고 있었다.

카이퍼의 설교가 기록으로 된 것이 여럿 있지만 그보다는 그의 명저 "하나님께 가까이"(Nabij God te zijn)라는 명상록에서 그의 설교사상을 엿보는 것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책은 카이퍼가 강단에서 설교하거나 또는 모든 기독교 공동체의 모임 또는 정치 또는 사회단체 앞에서 강연했을 때, 그의 사상을 명상록 형태로 모든 대중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쓰인 명저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책에서 카이퍼의 설교에 나타난 중요한 메시지를 찾아보고자 한다.

우선 카이퍼 박사의 설교에서 두드러진 메시지는 칼빈과 같이 하나님 중심사상에 맞추어지고 있다. 즉 시편 73:28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이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창조주요 속죄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언약의 주로서 진실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영접해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신뢰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 있다고 했다. 즉 "가까이란 단어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때어놓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을 암시해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그것이 인생의 광야에 오아시스로서, 죄와 세상에도 끊임없이 추구되어질 때 가장 값진 축복을 초래하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특히 카이퍼는 기도에 대해서 많이 설교했다. 그의 설교를 몇 곳 인용해보면 다음과 같다. 즉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역시 우리의 심령 속에 기도의 씨앗을 뿌리셨습니다. 그 기도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자라나야 되며, 우리의 영혼 속에서 기도가 성숙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미련한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정화된 기도에 도달하게 됩니다. 세속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슬로 떨어지며 보다 높은 차원의 햇빛을 비추는 좀 더 고상한 기도에 이릅니다.… 단지 입술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솟구치는 기도, 사람 자신의 감각과 기질이 일치하는 기도, 단지 무의식적인 생각뿐 아니라, 우리의 전 인격을 표현하는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영혼을 쏟아서 드리는 기도가 중요합니다.…만일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으로 된다면, 우리 안에서는 기도의 생활이 발전하지 않게 되며 기도가 우리 안에 정화되지 않습니다.

〈9면으로 계속〉

칼럼 음악목회 (36)

또 하나의 지휘자 (7)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소소장

교회음악은 크게 나누어 2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일예배에서 사용되는 예배음악과 둘째로 특별한 절기 등에서 사용되는 음악으로만 구성된 연주음악으로 나누어집니다. 물론 음악만으로 드려지는 찬양예배 또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양한 형태의 주일예배 즉 전통예배, 자녀들과 함께 드리는 온가족예배, 구도자를 위한 seeker service, 젊은이들을 위한 열린예배 등의 모든 주일예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미의 제사인 음악을 가리켜 예배음악이라고 총칭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수난절, 부활절, 성령강림절, 맥추절, 감사절, 성탄절 등 교력에 따른 절기에 음악으로만 드려지는 찬양 즉 칸타타나 오라토리오 또는 미사음악 등 시리즈 음악을 연주 음악이라고 구별하여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예배음악을 중심으로 "또 하나의 지휘자"라는 제목으로 여러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연주음악도 음악으로 드리는 예배이기 때문에 연주음악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물론 예배음악의 현장에서도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배음악도 포함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주 자주 당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인데 찬양대나 독창자가 찬양을 드리고 있는 중에 청중들 중에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하는 좋지 않은 버릇들이 있습니다. 저도 자주 당하는 일입니다마는 찬양을 듣고 있는데 누군가 내 옆에 다가와 찬양하는 사람에 대하여 또는 노래에 대하여 잡다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꾸하지 않아도 말을 걸어와 주변 사람들에게 민망할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말로 수군거리는 흉한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되는데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면 가르치기라도 하겠지만 특히 음악을 좀 안다는 사람들이 더 그런 행동을 합니다. 더욱이 지휘자들이 남의 연주를 들으면서 수군거리는 모습은 참으로 눈 뜨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교양이 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목사님들이 찬양을 들으면서 옆에 있는 다른 목사에게 수군거리는 모습 또한 참으로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목사가 다른 목사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기가 어렵듯이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다른 연주자의 연주를 듣고 감동 받기가 어렵다는 것은 참 미묘한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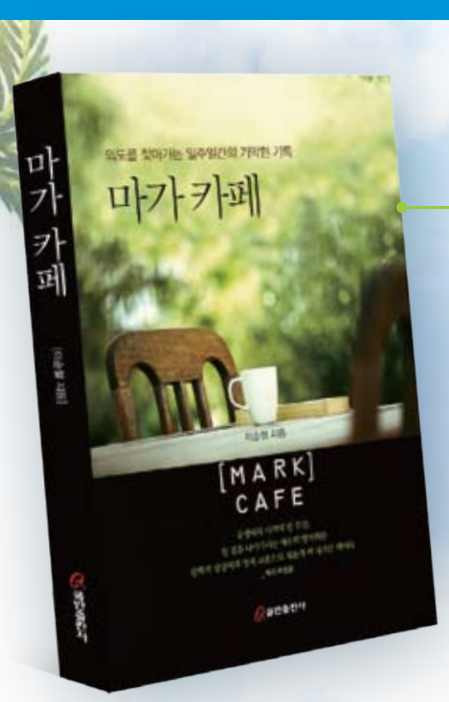
원래 예술이란 객관적인 요소보다는 주관적인 요소가 훨씬 강하기 때문에 연주자나 지휘자에 따라 곡에 대한 해석도 다르고 또한 지휘자나 연주자가 음악을 체험하고 느끼는 정도에 따라 표현도 차이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서로 같을 수 없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인격적으로 자기 자신의 품위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적어도 교양 있게 행동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난번의 글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음악은 시간예술로서 작곡자에 의해 기록된 악보대로 연주자가 그 순간 가장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 허공을 채우고 그 공간 안에 있는 모든 청중이 함께 듣고 느끼고 감동할 수 있도록 특히 찬양은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고 영광을 드리도록 창조된 작품입니다. 그런데 악보에도 없는 잡소리가 그 음악에 삽입되어 그 음악을 망친다면 아무리 지휘자나 연주자가 심혈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드려 찬양의 제사를 드린다고 해도 그로 인해 흠 없는 제물이 아니라 흠 많은 제물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더불어 더 심각한 문제점을 말하고 싶습니다. 바로 연주 도중에 사진을 찍는 분들입니다. 아무리 조심해서 사진을 찍는다고 해도 조리개가 열렸다 닫히는 소리가 납니다. 좋은 카메라일수록 셔터소리가 더 큽니다. 또한 사진을 찍는 분은 좋은 사진작품을 위해 앵글을 잡느라 이리저리 왔다갔다 합니다. 이는 결단코 그 음악을 헤치고자 하는 의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만일 콘서트홀에 가서 그런 행동을 하면 그 즉시 감독하는 사람들에 의해 카메라를 빼앗깁니다. 이는 연주자에게만 실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싼 티켓 값을 지불하고 감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음악이 아닌 다른 잡음으로 인해 돈보다 더 귀한 음악의 가치를 사고자하는 청중들에게 불쾌감을 주고 그 귀한 가치에 손상을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혹자는 돈을 내고 들어가는 연주회가 아니면 교회에서는 사진을 찍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귀한 최고의 가치의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흠집을 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진도 같은 예술입니다. 사진 자체가 나쁘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꼭 사진을 찍어야 한다면 리허설 때나 연주를 마치고 찍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예술이라는 최고의 가치를 위해 더 나아가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찬양의 제사를 위해 좀 더 성숙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 차세대연구소: (714)699-0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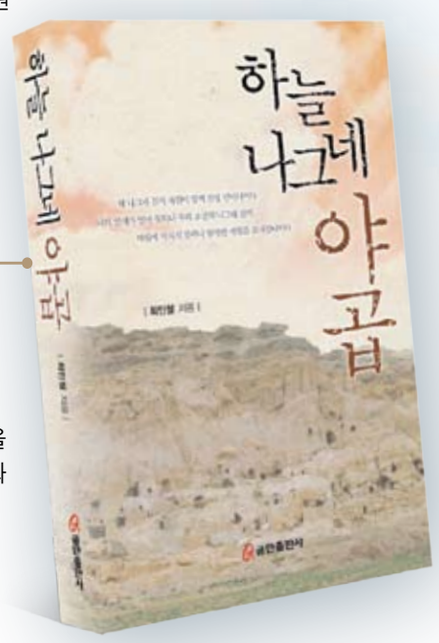
말씀 속으로 들어가요



마가 카페

예수님의 일주일간의 행적을 드라마처럼 전개한 최초의 장편소설
의도를 찾아가는 일주일간의 기막힌 기록
공생애의 마지막 주간, 한 걸음 나아가시는 예수의 발자취를 문학적 상상력과 영적 교훈으로 새롭게 써 내려간 책이다. 피할 수 없는 십자가를 등에 지고 부활의 영광으로 맺어지는 해피 스토리.
한 잔의 커피를 마시듯 편안한 마음으로 읽을 수 있으며 그 맛은 원두커피의 그것처럼 예수의 고귀한 사랑과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해 달콤하면서도 쓴 여운이 남는 그런 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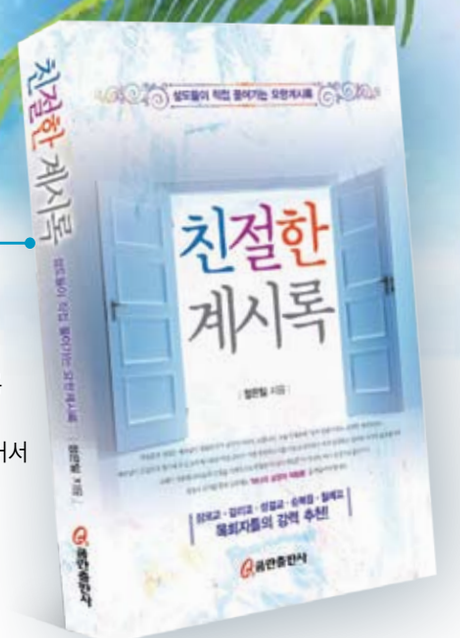
이순철 지음 / 368면 / 13,000원



하늘 나그네 야곱

야곱은 주전 2006년에 태어나 147세를 살고 죽은 역사적 실존 인물이다. 저자는 야곱의 삶을 1인칭 야곱의 시점에서 이야기 식으로 풀어냈으며, 성경에 숨어 있는 행간의 뜻을 쉽고 재미있게 그리고 생생하게 당시 정황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려냈다. 각 장마다 덧말 정리를 통해 성경적 해석과 역사적 배경과 상식을 설명하고 있어서 깊은 이해를 더한다.

최인철 지음 / 496면 / 18,000원



친절한 계시록

요한계시록에 대한 왜곡된 해석과 유혹이 난무하는 혼란한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묵회자와 평신도에게 건전한 요한계시록 읽기를 제안한다.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한번쯤 품어봤을 질문들을 목회자가 성도에게 설명하는 식으로 풀어나가고 있어서 혼자 읽어도 요한계시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정은일 지음 / 360면 / 13,000원

한글인터넷주소 쿰란, 쿰란출판사 홈페이지 www.qumran.co.kr 주소 서울 종로구 이화장길 6 쿰란출판사

창조과학 칼럼 (205)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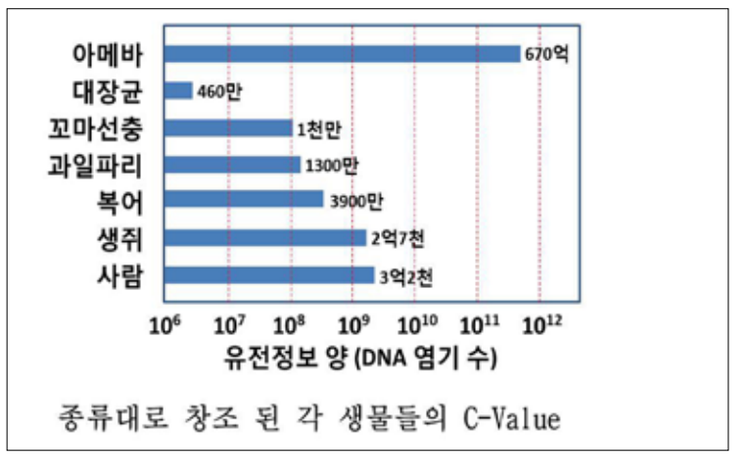
다 그의 손에 (14)

C-Value Paradox

C-Value란 각 생물 종(species)에 따라 놀랄 만큼 일정한(constant) 양의 DNA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서 나온 말이다. 그런데 아주 복잡하게 보이는 생명체의 DNA 양(C-Value)이 간단하게 보이는 생명체의 DNA 양(C-Value)보다 훨씬 적은 경우가 발견된다. 예를 들면, 간단한 생물의 대명사인 아메바(Amoeba dubia)는 사람보다 무려 200배 이상 더 많은 DNA를 가지고 있고, 도룡농도 40배나 더 많은 DNA를 가지고 있다. 이런 역설적으로 보이는 현상을 C-Value Paradox라고 한다. 왜 더 간단하게 보이는 생명체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일까?

왜 한 종(species)의 생물체들은 모두 다 같은 양의 DNA(C-Value)를 가지고 있을까? C-Value Paradox를 설명하기 전에 이 질문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약 생물들이 계속해서 진화가 되어가고 있다면 같은 한 종(species) 안에서도 각각 서로 다른 다양한 C-Value와 다양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생명체들이 발견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생명체라 해도 같은 종이라면 같은 C-Value와 같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물론 타락된 세상이므로 염기 숫자까지 완전히 같은 것은 아니지만 다른 종들과 충분히 구별되게 다르다는 것이다. 왜 각 종의 생명체들은 그렇게도 놀라울 정도로 동일한 양의 DNA를 가지고 있을까?

아메바는 사람보다 200배 많은 DNA 가져... '수수께끼'로도 표현
사람 전체 DNA 중 표현되는 2% 유전정보도 완전 파악 못해



종류대로 창조 된 각 생물들의 C-Value

대답 없는 진화론자들

진화론은 C-Value의 이유에 대해 이렇다 할 대답이 없다. 진화론은 생물들이 새로운 유전정보를 획득하므로 진화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같은 종이라도 어떤 생명체는 다른 생명체에게 없는 새로운 유전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기독교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으며, 유전학을 전공한 옥스포드 대학교의 교수인 진화론자 리차드 도킨스(Richard Dawkins)의 인터뷰 동영상을 보면 유전정보가 증가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https://www.youtube.com/watch?v=9W4e4MwogLo).

한편, 증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C-Value의 이유에 대해 논리적이고 분명한 대답을 얻을 수 있다. 모든 생명체들은 '종류대로' 창조되었고 여전히 같은 종류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화라는 현상이 없기 때문에 한 종류의 생명체는 예나 지금이나 또 내일도 동일한 C-Value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제 C-Value Paradox에 대해 알아보자. 아메바는 사람보다 200배나 더 많은 양의 DNA를 가지고 있다. 왜 간단하게 보이는 생물이 더 많은 DNA를 가지고 있을까?

1970년대 초에 과학자들은 드디어 C-Value Paradox에 대한 이유를 알아냈다고 생각했다. 전체 유전정보 속에는 표현되는 정보(coding DNA)가 있고 표현되지 않는 정보(non-coding DNA)가 있는데 후자의 DNA 양이 많으면 간단하게 보이지만 더 많은 DNA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전체 유전정보와 표현되는 정보(coding DNA)인 유전자(gene)의 수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사람의 전체 DNA 중에서 표현되는 유전정보는 약 2%에 불과하다. 사람의 경우 거의 모든 유전정보는 표현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아메바 유전정보는 어느 정도나 표현이 되는 것일까? 유전자가 몇 개나 될까? 아직 과학자들은 여기까지 연구할 여유가 없다.

최근에 과학자들은 C-Value Paradox 대신 C-Value Enigma라는 용어를 선호하고 있다. 역설(Paradox)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수수께끼(Enigma)는 과학이 발달하면 설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표현되지 않는 DNA가 얼마나 되며, 어디서 와서 어떻게 퍼져 나가는지, 그 DNA의 역할은 무엇일지, 왜 그만큼의 표현되지 않는 DNA를 가지고 있는지를 앞으로 다 알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역설' 대신 '수수께끼'라고 해야 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어느 정도는 사실이지만 모른다는 말을 하기 싫어하는 과학자들의 속성도 포함되어 있음도 사실이다.

여기서 우리는 junk DNA란 용어를 떠올리게 된다. 표현되지 않는 DNA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을 때, 일부 진화론 과학자들은 그 DNA를 필요 없는 junk(쓰레기) DNA라고 불렀다. 진화 과정 중에는 필요했겠지만 지금은 필요가 없어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사람의 맹장이나 꼬리뼈를 흔적기관이라고 했던 개념과 동일한 것이다. 그러나 최근 흔적기관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기능을 잘 모르는 기관이라고 부르듯이 이제 과학자들은 더 이상 junk DNA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실제로 수많은 유전적인 질병들이 이 표현되지 않는 junk DNA 이상으로 생겨난다. 그 표현되지 않는 정보들은 다른 유전자들을 조절하거나 DNA 정보 자체를 보관하는 데도 사용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종류대로 창조된 생물체들에서 보여지는 C-Value Paradox에는 창조자의 놀라운 지혜와 헤아릴 수 없이 높은 수가 들어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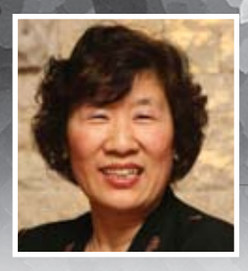
왜 그렇게 표현되지 않는 유전정보들이 그렇게 많은가? 표현되는 유전자의 양을 조절하기 위해서, 유전정보를 작은 공간에 잘 보존하기 위해서, 혹은 정보를 사용하기 좋은 위치에 두기 위해서 등 과학자들은 많은 가능성들을 상상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표현되고 있는 2%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인류가 그 질문에 답을 했다고 착각하는 것은 정도가 지나친 교만이다. 더 놀라운 기능이 거기에서 발견될지도 모른다. 과학은 결코 모든 것을 알아 낼 수 없다. 창조물들 속에는 이중 삼중의 목적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 더 간단하게 보이는 생명체가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사실상 아직도 역설이다.

창조주 하나님을 잘 알고 있었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했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이 주께서 지혜로 그들을 다 지으셨으니 주께서 지으신 것들이 땅에 가득하니이다"(시104: 24). 훗날 과학자들은 그 속에 들어 있는 창조자의 놀라운 지혜와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시139:17).

이메일: mailforwschoi@gmail.com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애굽의 우상, 애굽의 재앙

"너는 나 외에는 위하는 신들을 네게 있게 말지니라"(신5:7).

조주 하나님께 속하면 형상 회복이 일어나서 인간이 인간된 고귀한 인생이 됩니다. 허나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쫓아가면 참된 인간성의 모습이 쫓은 우상의 모습으로 변질되어 참혹한 우상 중독현상으로 쓰레기 인간이 됩니다. 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은 우리들을 각종 우상중독에서 빼어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업그레이드해주시려는 하나님 형상화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다음 작업입니다.

이스라엘이 빠진 애굽의 문화는 애굽이 신성시하는 우상문화입니다. 애굽 우상을 살펴보며 그토록 출애굽 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보겠습니다. 델타의 농업이 풍요의 근간이기에 나일 강물을 신성시하기에 제일 먼저 저들이 의지하는 나일강물이 먹을 수없는 피로 변했습니다. 다산과 부활의 상징을 치는 개구리재앙, 파리떼 재앙, 가축재앙, 악질 재앙, 의술의 신을 치는 독종 재앙, 하늘의 신을 치는 우박재앙, 삶의 상징인 태양을 치는 흑암 재앙, 생명을 주관하는 우상을 치는 장자 재앙 등 10가지 우상들을 보면 이생의 풍요와 다산과 생명을 가졌다고 믿는 것들입니다. 태양과 자연계 현상과 심지어 건강을 수호하는 의료의 신을 무색케 하는 독종 재앙 등등을 보면 하나같이 이 세상에서의 안정을 준다고 믿는 물질숭배 사상입니다.

사람들이 생명줄로 여기는 물질, 돈을 가져다주는 것들로 현세에서 우리의 발목 잡는 우상들입니다. 세상에 살아 있는 한 내 삶을 안전히 지켜준다 여겨 목마르게 움켜쥐려는 애굽식 우상들을 하나님께서 차례대로 돌아가며 치고 또 쳐도 지독하게 반항하고 놓아주지 않는 애굽 바로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연연해하는 우상들을 하나하나 쳐 내십니다. 쳐 내실 때마다 얼마나 아프고 힘든지요. 당연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기보다는 모두가 갖고 있는 인생 문제에 사명의 짐까지 덤으로 씌우고 고생바가지로 시키시는 냉혈의 폭군으로 하나님을 여기기 십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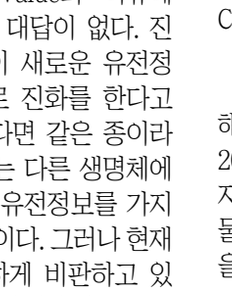
삶의 우선순위가 정립되기에 완전 수 10가지 재앙을 골고루 직접 인생가운데 다 지나야 겨우 세상 집착, 변질된 사랑을 내려놓고 정신이 드는 어리석은 못난이가 인간들입니다. 불신의 뿌리가 어찌 그리도 강한지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을 주도하기보다 교회안 깊숙이 들어와 교묘히 자리를 틀고 있는 물질만능, 큰 것이 성공이라는 사역관의 우상화로 인해 오히려 일반 세상이 오히려 교회를 염려하게 된 기막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온 세상에 숨겨놓은 작은 모세들을 흩어놓고 키우고 계십니다. 사명자로 택함은 받았으나 여전히 내면에 뿌리박힌 세상의 영향은 여전하여 쪄든 우리 안에 우상들을 잘라 내 주시려 성령님은 저를 의지할 때 나를 위해 싸워주십니다. 진솔히 주님을 따르려하면 바로가 쉽게 놓아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볏짚을 스스로 구해 벽돌을 구워내라 채근하듯 억장이 무너지는 환난이 삶속에 격동합니다. 이때 힘겹다 주저앉아 포기 말고 주만 바라봐야 이깁니다. 주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성령과 연합하여 우리의 발목을 잡고 늘어지는 온갖 불신의 육신의 세력에서 나를 구해내야 합니다.

주인은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하려들지만 노예의 근성은 그저 힘겹다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항합니다. 버티다 못해 다 잃고 쓰러져도 주님의 재앙의 시점이 불신자들에겐 죽음이나 신자들에겐 하나님의 은혜를 진하게 맛보는 때입니다. 성령님만 힘을 다해 의지하고 쫓아가는 물위를 걷는 아슬아슬한 동행이 가히 숨막히는 경주의 예술입니다. 이를 기이히 적절히 이루어 가시는 성령님의 지혜에 놀라 경배드릴뿐입니다. 천지에 하나님과 같은 이 어디 있으리오.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심과 상주시는 자임을 믿고 앞으로 앞으로 모든 악한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나가면 보장된 승리의 삶이 기다립니다. 주여, 내게 방해가 무섭고 괴로워 쟁기 잡은 자가 뒤돌아보지 않도록 담대한 믿음의 연합을 허락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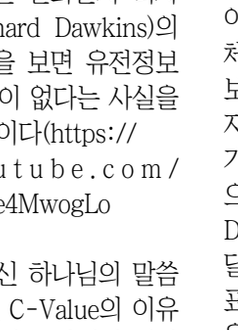
이메일 : heenlee55@hanmail.net

미주 갈멜산기도원 특별 기도성회

강사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www.galmelsan.or.kr / gstcenter98@gmail.com



장순직 목사
드림교회 담임
사단법인 민족복음화 운동본부 대표회장
한반도 회복 기도 운동연합 대표회장
CTS 운영이사
총회(합동) 부흥사회 증경회장

날짜 2014년 10월 23일(목) ~ 11월 6일(목)
※주일 성회는 없습니다

시간 새벽 5:30, 오전 10:30, 저녁 7:30

문의 213.382.1450

장소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한인타운 내 카타리나와 8가 코너에 있습니다

2014년 조성근 목사 부흥성회 일정

1 2014 기도성회
1일 송구영신, 신년예배
1일 ~ 9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산년축복 기도성회
2일 평화의 둥산 기도원피종진목사)
10일 ~ 12일 청파중앙교회(김형우목사)
13일 오산리 최자실기념 금식기도원
12일 ~15일 우리들교회(김호겸목사)
16일 ~25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9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26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
3일 ~ 6일 GST 32nd 신학생 훈련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7일 ~ 19일 용인 신세계교회(문홍구목사)
20일 ~ 26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1일 ~ 23일 LA 베이커스필드 한인장로교회 (한재신목사)
23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 (지동근목사)

3
1일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4일 성일교회원용식목사)
17일 ~ 19일 밝안 사랑의교회서기영목사)
23일 ~ 26일 동은교회(이동욱목사)
30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4
3일 칼빈대학교·대학원 채플
7일 ~ 9일 목동감리교회최한규목사)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0일 ~ 23일 신생중앙교회김연희목사)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5
1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일 ~ 4일 시애틀 성회최민하목사)
12일 ~ 15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9일 ~ 22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25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5일 ~ 28일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6
9일 ~ 11일 명수대교회(김강덕목사)
15일 주품교회(최성은목사)
16일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6일 ~ 29일 LA 나성동산교회(한기형목사)

7
1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6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동근목사)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8일 25일 드림교회김여호수아목사)
27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8일 ~ 31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8
4일 ~ 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5일 평화의둥산기도원피종진목사)
11일 ~ 14일 GST 33rd 신학생훈련
18일 ~ 20일 용인교회(권영호목사)
21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4일 남가주 평화교회(김은목목사)
31일 남가주 주님의교회(한조목사)

9
1일 ~ 6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8일 ~ 1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3일 ~ 16일 멜레이사 KL중앙교회(이충일목사)
17일 영문교회정영교목사 (극동방송 소망의기도 치유집회)
21일 ~ 23일 오병이어교회(김형채목사)
24일 블레싱 샘터교회고영수목사)
25일 칼빈대학교, 대학원 채플
28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10
5일 ~ 7일 포일남교회(김영주목사)
13일 백석대 실천신학대학원
13일 ~ 16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19일 ~ 22일 승현교회(김학기목사)
23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1
1일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0일 ~ 13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16일 ~ 19일 영동제일교회노태진목사)
24일 ~ 26일 대성교회충기웅목사)
30일 신모철 철야기도회(GST)

12
1일 ~ 3일 영신교회(이영무목사)
8일 ~ 11일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
14일 ~ 21일 GST 미션리서치캠보디아)
28일 신학생 철야 송년의밤(GST)
3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송구영신예배

목회서신

복음과 하나의 계명

여승훈 목사
(시카고 가나안교회)

첫째 계명이 무엇이냐는 어느 유대인 서기관의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은 첫째 계명(하나님사랑)과 둘째 계명(이웃사랑)을 동시에 대답하셨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작은 자에게 한 것을 주님 자신에게 한 것으로 동일시하는 말씀이다. 즉 첫째 되는 하나님 사랑과 둘째 되는 이웃사랑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의 오해는 이것을 첫째와 둘째로 분리하는데 있다. 하나님 사랑 따로 있고 이웃 사랑 따로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생활 따로 하고 사회생활 따로 하는 모순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이것은 십계명에 대한 오해이기도 하다. 사람들은 십계명의 계명은 보지만 계명 속에 흐르는 spirit은 잘 보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 된다. 1-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을 5-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과 관련된 내용이다.

그런데 이 열가지 계명을 지나고 있는 하나의 spirit이 있다. 그것이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온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무슨 말인가? 애굽에서 구출하여낸 사건을 상기 시킨다. 일종의 구원 사건을 상기 시킨다. 즉 죄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십계명 전체에 흐르고 있는 spirit이 되는 셈이다.

죄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라 할 수 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나로 묶고 있는 것이다. 무슨 말인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젖어들지 않으면 이중적 신앙인의 범주를 벗어나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이다.

미끄러져 실패할 때마다 이중성을 발견할 때마다 언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한다. 그 길이 유일한 길이다. 출애굽기 20장 3절 제 1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2절에서 구속의 여호와를 기억하라는 복음의 소리에 주목하기 바란다. 이 복음의 소리가 열 가지 계명 전체를 컨트롤 하는 것이다. 성경 전체의 중심사상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언제나 그분을 보아야 하고 그분을 말하여야 하고 그분을 초점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가 윤리와 도덕 정도를 실천하는 종교생활로 전락되고 말 것이다.

이것은 현대 기독교가 쇠퇴하는 가장 중요한 배경중의 하나다.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하면 성경에 나타난 삼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실제로 그리고 영으로 맛보아 알게 된다. 이것이 예수 믿는 비밀이요 즐거움이요 기쁨이다. 이 맛을 보지 못하고 종교생활 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초청하셨다. "수고 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종교 생활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참 안식을 취할 수 있는 곳이 어디인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이다. 바로 그 길이다.

"하나님 말씀 기준삼고 세상과 타협 말라"

제31회 HYM 청년연합컨퍼런스, 'Man of Integrity' 주제

제31회 HYM 청년연합컨퍼런스가 'Man of Integrity' 주제로 20일과 21일 양일간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담임 엄영민 목사)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컨퍼런스는 지난 2006년 유니온교회에서 열린 15회 컨퍼런스 이후 처음 마련됐다.

첫날 오후 5시와 둘째 날 오후 7시30분에 열린 오픈집회 주강사로 나선 김승욱 목사(분당 할렐루야교회 담임)는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는 제목으로 디모데전후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자들의 특징에 대해 설교했고, 둘째 날은 베드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실족할 때의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김 목사는 "하나님께서는 디모데를 가리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다. 디모데에겐 확실한 옳고 그름의 기준이 있었다. 요즘 세상의 기준이 애매해지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는 기준을 세상에 두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우리가 현실 속에서 쓰러질 때가 종종 있다. 그 이유는 각종

HYM집회를 마치고 강사와 스텝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유혹에 빠졌을 때 다시 회복될 수 없다는 자괴감에 빠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함을 잃어버려서이다. 베드로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켜야 할 온전함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는 일을 하게 됐다. 우리가 온전함을 잃어버리고 쓰러질 때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은 주님이 대제사장 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컨퍼런스는 첫날 오후 선택강의시간을 마련했다. 이도환 목사(독립장로교회 담임), 허현 목사(마운틴 뷰 메노나이트 교회 담임), 김성환 목사(가디나장로교회 담임), 더글러스김 대표가 강사로 나서 강의를 인도했으며, 최윤영 자매, 헤븐스 밴드, 이하나 자매, 윤요한 형제, 청소년 뮤지컬 팀 Seeds of Worship의 공연이 있었다.

또한 첫날 오후집회는 HYM찬양팀(리더 김섭리 목사)의 어쿠스틱 워십 인도를. 둘째 날 저녁 집회는 Potter's Worship Ministry(리더 최천국 전도사)가 뜨거운 찬양을 인도했으며 동방현주 집사와 이정열 자매의 특송이 있었다.

〈박준호 기자〉

LA목성연 주최 공감소통 대화법이 동문교회에서 열렸다. 사진은 대화법 실습하는 장면

상대방 말에 어떻게 반응하나?

LA 목회자성경연구원 주최 공감소통 대화법

LA 목회자성경연구원(목성연)이 주최한 공감소통대화법 세미나가 16일부터 18일까지 동문교회(담임 김상호 목사)에서 개최됐다.

공감소통대화법(공소대) 세미나는 목회자, 사모, 상담 치유 사역자, 소그룹 리더, 제직 등 교회의 리더십 뿐만 아니라 대화법에 대해 알기를 원하는 자, 치유 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건강한 대화법을 소개하는 세미나다. 18일에 열린 마지막 날 세미나는 참가자들이 자녀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어려움들을 주제로 대화를 하는 실습시간을 가졌다.

김경수 목사(미주목성연 치유사역 및 공소대 담당)는 "공소대를 연배경은 한국에서 해오던 치유사역을 미주지역에서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와서 실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대화 속에서 건강한 대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기보다는 내이야기를 하려고 하기에 결국 자신의 아픔을 내어놓은 자가 공감을 얻지 못하게 된다. 이번 프로그램은 대화를 잘하는 기술을 다루기보다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반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주로 다루었다"고 말했다.

그는 "공소대는 LA에서 처음 목회자 중심으로 시작했다.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들이 겉으로 보이기로는 발전돼 보이지만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사이에도 아픔이 있고 자녀들이 아픔안고 어른이 된다. 그 아픔을 유지하니까 풀리지 않는다. 실험한 경험, 실제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는 취지로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준호 기자〉

LA한인축제기간 열린 CCM페스티벌에서 익투스밴드가 찬양하고 있다

LA 한인축제기간에 CCM페스티벌 열어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제41회 LA한인축제가 열린 한인 타운 서울 국제공원 특설무대에서 찬양의 메아리가 울려 퍼졌다. 특별이벤트로 축제 마지막 날 오후 2시 장터부스가 설치된 곳에서 CCM페스티벌을 열었다.

이날 열린 CCM페스티벌은 찬양사역자 최윤영 자매와 김성아 전도사(은혜한인교회)의 사회로 최윤영 자매의 오프닝 송에 이어 제1회 CCM루키 대상 수상자 이아름 자매, 2회 CCM루키 입상자 익투스 밴드, 지저스홀릭의 3자매, 그리고 동방현주 집사가 출연해 은혜롭고 수준높은 찬양을 선사했다.

〈박준호 기자〉

아주사퍼시픽대학교 신입생 환영회가 LA리저널센터에서 열렸다. 사진은 신입생 박현주 전도사가 인사말을 전하는 모습

"하나님의 갈망, 사역을 감당하라"

아주사퍼시픽 개강예배 및 신입생 환영회

아주사퍼시픽대학교(총장 존월레스 박사) 신학교는 2014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환영회를 18일 오후 5시 LA리저널 센터(디렉터 도널드 브라운 박사)에서 열었다.

개강예배를 겸해 종유석 학우의 찬양인도로 시작된 예배는 정산 학우가 기도를, 동문회장 곽경동 목사(새삶교회 담임)가 '하나님의 갈망'(출19:4-6)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곽 목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이상 애굽에 종살이 하는 가운데 시내산으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세상가운데서 독수리 날개로 이곳까지 이끌어주심을 고백하게 됐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날개위에 우리를 태워서 인도해 주신 뜻이 있다. 하나님의 강하심과 사랑의 돌보심으로 우리를 이곳으로 오게 하셨다. 소망 뜻 없이 방황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깊이 생각해보길 원한다"고 말했다.

곽 목사는 "APU학우들은 하나님의 갈망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고민해야 한다. 우리 모두는 교회 등 사역지에서 사역하고 있지만 APU에서 학업에 임하고 있다. 먼저 공부역시 우리가 해야 하는 사역이며 참으로 귀하고 값진 시간들이다. 둘째 영혼을 사랑해야 한다. 셋째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하나님의 갈망이 여러분 삶에 성취될 수 있기를 축원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소희 학우가 특송을 했으며 본교 한인 목회학박사프로그램 디렉터 다니엘 뉴먼 교수가 축도했다. 예배에 이어 학교스텝들과 신입생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저녁 만찬을 통해 신입생과 재학생, 그리고 동문들이 교제를 나눴다.

〈박준호 기자〉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7면에서 계속〉

우리의 기도들 사이에 생겨난 잡초들(Onkruid)을 제거되어야만 합니다. 그 사이에 기어 다니는 전염병균들은 제거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기도가 정화되고 성화되어 거룩한 의미에서 그것이 믿음에 의해서 성숙해 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도달해야 할 완전한 수준에 도달하게 되어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 됩니다"라고 했다.

칼빈과 같이 카이퍼도 성도의 기도 생활에 대해서 이처럼 섬세하게 다루면서 설교하고 있다. 카이퍼는 이사야 54:4와 예레미야 18:19를 해설하면서도 기도를 크게 강조했다.

즉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처럼 하나님은 가까이 계심과 동시에 먼 곳에 계신다는(렘23:23)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우리의 간구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간구하는 소리가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 방법이나 시간에 구애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화로 비유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화를 거시고, 또 그분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전화로 응답합니다. 그러면 끊겨진 관계가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과의 의사소통(Gemeenschap met God), 즉 교제는 우리의 삶을 성화 시켜주고 보호해주시는 능력입니다"라고 했다.

카이퍼는 기도의 능력, 기도의 은혜, 기도의 축복, 기도의 방법을 절묘하게 표현하고 있다.

카이퍼를 평가하는 사람 중에는 카이퍼가 19세기 낭만주의적 요소가 있다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그의 진지한 설교를 들여다본다면 카이퍼의 메시지에는 거룩한 이상주의라고 할 수 있다. 오늘 우리식으로 하면 꿈과 비전의 사람이었다. 그 자신의 말대로라면 이상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이상주의는 하나님 중심한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건설을 위한 위대한 비전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그의 메시지를 몇 곳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즉 "개인들이나 집단들이 이상주의를 지향할 때에, 그것의 고상한 목표는 진리와 진리를 추구함에 있어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동기중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상주의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단조로운 물질주의 지식을 갈망할지 모르나, 인간의 삶에 있어서 보다 더 귀한 것들에 대한 지식은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거기에 말려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버린 사람들이 과연 인생에 있어서 참 가치 있는 것들에 관한 고귀한 지식을 좋아 하겠습니까?… 한 민족이 이 이상주의 관념을 갖지 못하면 그들은 물질주의와 감각주의로 떨어지게 되고 모든 고상한 삶으로부터 단절 됩니다.… 그러한 이상주의가 어느 민족에게 강하고 고무적으로 작용하는가 그렇지 못한가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에게 그 고귀한 목적의 입김을 불어넣어주시면 그 사람들은 더 고상한 목적들을 위해서 생활하기 시작하게 되고, 더 순수한 인간존재에 대한 지식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입김을 거두어 가시면 그의 이해력은 둔화되어지고 모든 고귀한 지식은 사라져버립니다"라고 했다.

〈다음호에 계속〉

이임하는 박신욱목사(좌)와 신임사장 송정명목사(우)

미주복음방송 신임 사장에 송정명 목사

19일 이취임식…박신욱 목사 3년6개월 재임

미주복음방송(이사장 김영길 목사) 사장 박신욱 목사 이임과 신임 사장 송정명 목사 취임예배가 19일 오전 11시 미주복음방송 사옥에서 진행됐다.

송병주 목사 사회로 이종용 목사의 기도에 이어 김영길 목사는 "믿음을 더 하십시오"(히4:2)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김영길 목사는 신임 사장으로 취임하는 송정명 목사에게 '사장 직무를 성실히 감당하고 미주복음방송의 유익과 건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서약하고 임직서를 증정했다.

한편 지난 3년 6개월 동안 온힘을 다해 헌신해오며 복음방송에 많은 덕을 세운 박신욱 목사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표하며 감사패를 증정했다.

박신욱 목사는 이임사를 통해 "지난 3년 6개월간 2대 사장으로 섬기면서 복음방송을 향한 여러분들의 희생적인 헌신은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캠페인 때마다 발로 뛰면서 눈물로 기도해주신 여러분들의 모습은 잊을 수 없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주복음방송을 통해 날마다 믿는 자가 더하고, 가정들이 회복되고, 이민사회가 변화되며, 교회가 하나가 되어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기를 소원한다"고 말했다.

한편 미주복음방송은 방송본부장에 노형건 선교사, 운영본부장에 데이빗문을 임명했다.

〈이성자기자〉

동부교계 게시판

east

이영훈 목사 초청 뉴욕 대성회

순복음세계선교회 북미총회(총회장 이만호 목사)가 동북부지방회(회장 박헌영 목사) 및 하나님의성회 한국총회 동북부지방회(회장 김명옥 목사)와 연합으로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 초청 뉴욕대성회 및 세미나를 갖는다. △뉴욕 대성회는 10월 21일(화) 오후 8시, 프라미스교회(담임 김남수 목사) △교역자 세미나는 당일 오전 9시플러싱 금강산 연회장에서 열린다. 이날 이영훈 목사 외에 최성규 목사(인천순복음교회 담임), 이태근 목사(순복음분당교회 담임)가 초청된다. 참가대상은 목사, 전도사, 신학생으로 선착순 200명. 식사와 선물이 준비돼 있다.

▲문의: (718)461-7835

담임목사 청빙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소속 뉴욕 든든한교회가 담임목사를 청빙한다. 청빙요건은 정규신학대학원(M. Div)을 졸업하고 KAPC 총회에 소속(가입 가능)된 5년이상 목회경력(부목사 포함)인 합법적 미국체류 가능한 자로 이력서와 목회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마감은 9월 30일(화)까지. 이메일 kwanhochung@hotmail.com

▲문의: (917)750-8174

2014 뉴욕 연합전도부흥성회

뉴욕전도협의회(회장 허윤준 목사)가 10주기를 맞아 연합전도부흥성회를 갖는다. 일시는 10월 31일(금)-11월 2일(주), 금, 토요일은 저녁 8시, 주일은 저녁 5시 30분에 시작한다. 강사는 정희량 목사(광정침례교회 담임)이며 장소는 뉴욕효신장로교회다.

▲문의: (718)639-1470 허윤준 회장, (914)393-1450 김영환 준비위원장

목양장로사역컨퍼런스

국제목양사역원이 주최하는 목양장로사역 미동부 컨퍼런스가 9월 30일(화)과 10월 1일(수)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담임 정인수 목사)에서 열린다. 강사는 최홍준 목사, 홍민기 목사, 고현권 목사, 김명섭 목사로 인터넷으로 등록(www.pastoralministry21.com)을 받는다. 등록비는 140달러. 선착순 120명.

▲문의: (949)751-8507

새생명 전도축제 바자회

새가나안교회(담임 이병홍 목사, 61-11 220th St Bayside)가 새생명 전도축제를 위한 바자회를 갖는다. 일시는 10월 4일(토) 오전 9시-오후 5시, 5일(주) 오후 12시-오후 5시.

▲문의: (718)229-0909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 감사음악회

롱아일랜드연합감리교회(담임 장재웅 목사) 설립 36주년 감사음악회가 10월 19일(주) 오후 5시 본 교회당에서 개최된다. 이날 세계밀알선교합창단(지휘: 이다윗 목사)이 특별출연한다.

▲문의: (631)499-1260, 292-2529

뉴욕장로연합회 제25차 목요기도회

대뉴욕장로연합회(회장 정권식 장로) 제25차 목요조찬기도회가 지난 19일 좋은씨앗교회(담임 임용수 목사)에서 열렸다.

임용수 목사는 이날 "오병이어 기적"(막6:34-44)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예배는 배상규 장로의 인도로 기도 박성범 장로, 특별기도는 △선교대회로 뿌린 씨앗 열매 맺게 하소서 △김영호 장로의 수술과 회복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정덕상 장로와 우화선 장로가 각각 인도했다. 헌금 특송은 임형빈 장로가 맡았다.

〈기사제공: 뉴욕장로연합회〉

뉴욕장로연합회 목요기도회를 마치고 기념촬영 했다. 앞줄 왼쪽에서 네번째 정권식 회장. 다섯번째 임용수 목사.

"시가 있는 목회" ...가을밤 적신다

뉴욕목사회 자작시 발표회 13명

뉴욕목사회(회장 황동익 목사)가 주최한 자작시 발표회가 "시가 있는 목회" 주제로 22일 저녁 뉴비전교회(담임 황동익 목사)에서 열렸다.

42회 뉴욕목사회가 출범하면서 황동익 회장이 밝혔던 목회자 정서함양의 일환으로 열린 "시가 있는 목회"는 "목동에서 왕이 된 다윗이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과 만나 눈물 흘리고 웃음 웃었던 그의 삶을 노래한 시편이 결국 찬양"이라고 소개했다.

목사회는 또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이 다윗의 삶을 보고 교훈을 얻는 것은 다윗이 '왕'이었다는 것보다는 그의 삶에 '시'가 있었고 시는 그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의도에서 이번 발표회를 갖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황동익 목사는 "바쁜 목회 중에도 시를 쓸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며, "신령한 시를 쓸 수 있는 목회자가 돼 목회현장이 메마르지 않고 성령 충만한 은혜의 단비가 내려 교회도 부흥하고 성도들의 마음도 기쁨으로 충만하며 교회가 연합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

옵서버로 참석한 시인 곽상희 권사(프라미스교회)는 "정서적 성숙이 없으면 영적 성숙도 없다는 말이 있다"며, "시는 설교가 아니다, 정서와 영성이 합해져야 감동이 주는 시가 된다"고 조언했다.

순서지 없이 "시모음집"만 배부됐으며 총무 유상열 목사가 자연스럽게 순서자들을 소개하며 시가 낭송되는 동안 피아노로 백 뮤직을 연주했다. 만찬후 시작된 모든 순서는 목회자들이 자신의 자작시로 발표됐다. 또 중간 중간에 노래와 연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11명이 총 28편의 시를 응모했으며, 즉석 작시를 포함 2명이 추가돼 총 12명이 시를 낭독했다(1명 출타로 불참). 이날 출연자는 김연규 목사(모세의 싯딤나무), 우병만 목사(가을의 기도), 이영상 목사(가을이 오는 소리) 임병남 목사(고향), 유태웅 목사(빈자리에 내가 서 있습니다), 임지윤 목사(Forgiveness), 장현숙 목사(사명자의 길), 조의호 목사(청개구리 더 울지 않으리), 지인식 목사(이민 갈매기), 윤세웅 목사(크리스천 시인들), 황동익 목사(초로의 향내), 김길홍 목사(천지창조).

황동익 목사의 시작기도 후 유상열 목사의 색소폰 연주가 있었으며 우병만 목사와 유태웅 목사, 캡블리 양이 노래를 불렀다. 마지막은 찬송가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합창하고 부회장 이만호 목사의 기도로 마쳤다.

한편 목사회는 참석자 모두에게 USB(4기가)를 선물했다.

〈유원정 기자〉

뉴욕목사회 자작시 발표회를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각 교단 정기노회 소식

(KAPC) 가든노회 정기노회를 마치고 노회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SBC 뉴욕한인지방회를 마치고 참석 노회원들이 기념촬영 했다.

KAPC 가든노회 분립후 첫 노회

뉴욕시찰, 뉴저지시찰 조직 · 양무리장로교회 이전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가든노회가 분립 후 첫 정기노회(제 75회)를 가졌다. 지난 16일 뉴저지개혁장로교회(담임 조문선 목사)에서 열린 노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헌의안을 상정하고 결의했다.

△김병용 목사 회원 가입은 서류미비로 보류하기로 하고 △양무리장로교회 이준성 목사 교회 이전은 허락했다. △시찰조직은 뉴욕시찰과 뉴저지시찰로 정하고, 상비부조직과 사업보고, 그리고 시찰 조직 보고를 했다.

회의에 앞선 드린 예배는 조문선 목사 인도로 기도 김재호 목사, 성경봉독 김지희 목사, 설교 조문선 목사("엘리바스의 믿음", 욥22:1-11), 성찬예식 이원호 목사 인도, 축도 김두해 목사, 광고 조성훈 목사의 순서로 진행됐다.

가든노회 임원은 다음과 같다.

△노희장 조문선 목사 △부노회장 이원호 목사 △서기 조성훈 목사 △부서기 박형기 목사 △회록서기 이종석 목사 △부회록서기 이준성 목사 △회계 김충헌 장로 △부회계 허철회 장로.

〈기사제공: 가든노회〉

회장 김재용 목사, 부회장 이재홍 목사

SBC 뉴욕한인지방회, '호칭 장로' 안건은 무산

미남침례회(SBC) 뉴욕한인지방회(회장 김영환 목사)가 지난 16일 영원한교회(담임 김재용 목사)에서 제31회 정기총회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호칭 장로'에 대한 뜨거운 논의가 있었다.

또 새 임원으로 △회장에는 부회장 김재용 목사 △부회장에는 총무 이재홍 목사 △총무 이선일 목사 △서기 박춘수 목사 △회계 안병재 목사와 각 위원장 등을 선출했다.

미남침례회는 지 교회에 목사와 집사 직분만 허용하고 있으며 한국의 침례교(기독교한국침례회)는 호칭 장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임원회는 몇 년에 걸쳐 일부 회원으로부터 호칭 장로제도에 대한 안이 계속 올라오자, 지난 6월 월례회에서 회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후 이번 정기총회에 정식안건으로 올렸다.

기존의 지방회 규약은 "장로 장립제도를 시행하는 교회는 본 회에서 자동 탈퇴하는 것으로 정한다"라는 조항이 있는데, 이를 "본회는 개교회의 안수집사 제도 시행을 원칙으로 정하지만 개교회의 의사와 형편에 따라 안수 받은 집사를 장로로 호칭할 수도 있다"라고 바꾸는 수정안을 냈다. 그러나 이 수정안은 대다수 회원들의 반대로 상정되지도 못했다.

회무 중 사업보고로 5회의 임원회, 뉴욕과 뉴저지 연합 송년모임, 중독 영화 상영, 뉴욕과 뉴저지 연합체육대회 등이 보고됐다. 이외에 3개 개척교회에 7천2백 달러 지원, 석정문 목사초청 코칭세미나, 목회자가족수양회, 찰랜지 청소년연합수련회 등이 보고됐다.

〈유원정 기자〉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동부(NY,NJ)교회

뉴욕겟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예배1부: 오전 9:00
주일예배2부: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수요저녁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40
금요기도회: 오후 8:30
Tel. (718)358-6225, Fax.(718)762-469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hse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00
금요철야: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718)361-9199, Fax.(718)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yang.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16)883-1977, Fax.(516)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일성경공부: 오후 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6:00 (화-토)
Tel.(917)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tae@yahoo.com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 일 예 배: 오전 10:30
영 어 예 배: 오전 10:45
수요기도회: 오후 8:30
금요찬양예배: 오후 9:00
새벽기도: 오전 6:00
주일학교 : 오전 10:30
Tel.(718)461-2810(Fax 겸용), (917)373-3411
46-04 162 St. Flushing,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718)637-1470
45-50 162 St. #2Fl, Flushing, NY 11358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은사)예배: 오후 8:3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Tel(718)461-7835, CP.(718)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ioch.com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45(월-토)
Website: nyjbc.org
Tel.(718)279-2757, 2758, Fax.(718)279-1823
252-0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1부 예배: 오전 9:00
주일2부 예배: 오전 11:00
EM영어 예배: 오후 1:30
화요성경공부: 오전 10:00
수요성경공부: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50(월-토)
Tel.(718)639-3021, Fax.(718)507-6376
210-10 Horace Harding Expy.
Bayside NY 11364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회
주일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기도회: 오후 8:30
(매주1주,3주)
Tel.(201)342-9194, Fax.(201)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예배: 오전 10:50
주일학교: 오전 10:50
청장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찬양연습: 오후 12:30
주일학교성경공부: 오후 1:30
수 요 찬 양모임: 오후 8:30
Tel.(718)961-2171, Fax.(718)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9: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4us.org
Tel.(516)333-1757, 목사관.(516)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동사목사: 박준열
주일1부예배: 오전 8:45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영어예배: 오후 2:00
수요제자훈련: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45
Tel.(718)482-7788, Cell.(917)349-5631
211-06 48th Ave. Bayside, NY 11364
www.nakwonchurch.org

에벤에셀선교교회
담임목사: 최창섭
주일낮예배: 오전 10:45
주일영어예배: 오후 1:00
주일중국어예배: 오후 1:00
주일스패니쉬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수요예배: 오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718)570-5858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y.us/

예사랑교회
담임목사: 손한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347)75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

주비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예배: 오후 12:30
새벽기도(월-토): 오전 6:00
금요중보기도: 오후 5:00
영어예배: 오후 1:00
Tel.(718)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ma Rd. Manhasset, NY 11030

퀸즈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12:15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
Tel.(718)886-4040, Fax.(718)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apcq.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젊은이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718)672-1150 Fax.(718)67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qny.org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마이클
주일대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9:30
수요찬양예배: 오후 8:30
금요친유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516)277-1103, Cell.(917)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vpakm@gmail.com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담임목사 : 임건택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성경강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오전6:30(토)
금요중보기도회: 매월 첫째, 셋째, 다섯째 금요일 오후 7:30
금요찬양및 기도회: 매월둘째(금) 오후 7:30
www.pcov.org
Tel.(604)584-5780, Fax.(604)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3277-1489, Fax.3209-9343
Rua Joaquim P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포어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45
Tel.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5:00
주일밤예배: 오후 7:00
Tel.(5511)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54)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오전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저녁 7:00
수요기도회: 저녁 9:00
714중보기도회: 아침 7:40
유,초,중,고등부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562)556-7628, (562)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정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영어)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예배: 오후 7:30
Tel.(416)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신학대학 학장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후 6:00
(1,2,3,부 스페니쉬 설교)
Tel.(595)21-574-985
E-mail: hanimkr@hanmail.net
Cervantes NO. 1001, Asuncion-PARAGUAY

하와이 행복한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삼일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808)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4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Tel.(808)947-5252, Fax.(808)947-5151
www.hawa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남가주지역 한인교단 가을노회 일제히 개최

KAPC 가주노회 로스앤젤레스노회, PCA 서남노회, KPCA 서남노회 서중노회 등

예배를 마치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노회장 이준우 목사

KAPC 가주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가주노회(노회장 이준우 목사) 제76회 정기노회가 16일 오전 10시 남가주리디머교회(담임 김요섭 목사)에서 은혜가운데 열렸다.

회의에 앞서 이준우 목사의 사회로 드려진 개회예배는 고승경 목사 기도, 조인 목사 성경봉독, 김학천 목사(부노회장) 설교로 진행됐다.

김학천 목사는 디모데전서 4장 1-5의 말씀을 통해 "목회자의 힘은 오직 말씀과 기도에서 생성된다"며 "말씀 안에서 능력 있는 목회를 이뤄가자"고 강조했다. 이어 이성주 목사(전 노회장)의 집례로 성찬식을 가진 뒤 정진구 목사(전 노회장)의 축도로 예배를 마쳤다.

회의는 서기의 회원호명이 있은 후 이준우 노회장이 개회를 선언했다.

이날 노회에서는 특별한 이슈는 없었으나 그동안 회원교회들의 동정과 노회에 상황들을 나누며 은혜 가운데 회의를 마쳤다.

〈이성자 기자〉

노회를 위해 수고해준 분들에게 회원들이 감사를 표하고 있다.

KPCA 서중노회

해외한인장로회(KPCA) 서중노회(노회장 강신평 목사)는 지난 15일과 16일 양일간 주님의빛교회(담임 주혁로 목사)에서 제 27회 정기노회를 개최하고 김명수 목사 안수식을 거행했다.

지난 15일 오후 7시 강신평노회장 인도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백태종 장로 기도, 강신평 목사가 설교, 성찬식(집례 주혁로 목사)이 있었다.

강 목사는 '섬김의 리더십'(막 10:35-45)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은 제일 낮은 곳에서의 헌신을 보신다. 오늘날 많은 이들이 좋은 자리를 원하고 헌신을 원지 않아 자리를 놓고 싸우며 미워하기도 한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해야하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이 능력을 잃어버렸다. 목회자들은 긍정적이고 책임지는 자세로 하나님을 목표로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16일 아침 경건회(설교 이응준 목사)로 둘째 날 노회를 시작한 서중노회는 감사보고 및 회계보고 시찰회 보고 등을 가졌으며 김창하 선교사 파송 임명과 김명수 목사 안수식을 거행했다.

〈이성자 기자〉

KAPC 로스앤젤레스노회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KAPC) 로스앤젤레스 제23회 정기노회(노회장 차병학 목사)가 16일 오전 10시 동문교회(담임 김상호 목사)에서 개최됐다 회의에 앞서 드린 개회예배는 김만수목사 인도, 조정기 목사 기도, 차병학 목사 설교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히12:14-17), 성찬식(김상호 목사 집례), 축도 김성일 목사로 진행됐다.

이어 노회장 사회로 각 부서 보고와 신안건 토의 등 회무처리에 들어갔다.

로스앤젤레스 금번 정기노회에서 특별한 논의는 제기되지 않았으며 남가주든든한교회 최환경 집사가 장로고시에 합격했음을 알리고 노회원들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새생명선교교회(담임 김만수 목사)가 정원국 목사 가입청원을 함으로 준회원으로 받기를 허락했다. 로스앤젤레스 2015년 봄 노회는 나성안디옥교회에서 갖기로 하고 노정기 목사의 기도로 폐회했다.

〈정리: 이성자 기자〉

KPCA서남노회기간 열린 목사안수식에서 안수받은 한희성 목사가 하객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KPCA 서남노회

오렌지카운티영락교회(담임 김경섭 목사)에서 15일과 16일 양일간 열린 해외한인장로회(KPCA) 서남노회(노회장 이선영 목사) 정기노회에서는 공로목사 추대식과 목사안수식이 열렸다.

15일 오후 7시 노회장 이선영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개회예배는 장영호 장로 기도와 이선영목사의 설교("본질에 집중하는 인생", 대하 1:1-12)가 있었으며 이성희 목사의 집례로 성찬식을 거행했다. 이어 서기가 회원을 호명하고 노회장이 개회를 선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부서의 보고와 함께 각 시찰 및 지시위원을 선정했다. 노회 둘째 날인 16일 아침 우상림 목사의 설교("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엡5:18)로 경건회를 가진 후 노회가 속회됐다.

특별히 이날은 한희성 목사 안수식(다우니제일교회)과 민준기 목사 공로목사 추대식을 가졌다. 민준기 목사는 1989년부터 2014년까지 목회활동을 했으며 노회 20년사 편집발행을 맡아 헌신했다.

〈박준호 기자〉

제63회 PCA한인서남노회가 나침반교회에서 열렸다. 이번 노회는 서남노회와 서남OC노회로 분리를 결정했다

PCA 한인서남노회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에서 열린 제63회 PCA 한인서남노회(노회장 박상목 목사)에서 서남노회와 서남 오렌지카운티(OC) 노회가 분립됐다.

16일 오전 9시부터 열린 서남노회 정기노회는 노회분리를 결의했다. 서남노회는 기존노회에서 LA지역과 네바다주를 카버하고, 새롭게 탄생한 서남 OC노회에는 오렌지카운티 지역과 애리조나주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과 목회자들이 소속하게 됐다.

또한 나침반교회 우종복 집사와 유영상 집사의 장로안수를 비롯 목사전입 및 노회가입 등이 결의됐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west

무료 다문화 건강검진 박람회

세인트 빈센트 병원(원장 캐시 픽스)이 2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2014 무료 다문화 건강검진 박람회'를 개최한다. 이번 건강 박람회는 LA 한국 총영사관을 포함한 10개국 총영사관 등이 공동 지원한다. 한인 참석자들에게는 한국어 통역서비스도 제공된다. 무료검진은 치과나 시력검사부터 독감 예방 접종, HIV 성병 검사, 갑상선·전립선·간·신장 등 초음파 검사, 혈당검사, 빈혈검사, 혈압검사, 한방 침술 치료, 유방암 검진을 위한 매모그램 촬영, 체지방·콜레스테롤·자궁경부암 검사 의뢰, 우울증 검사 등이 제공되며 모든 검사는 선착순으로 받을 수 있다. 건강검진 장소는 2222 Ocean View Ave. LA, CA 90057이다.

▲문의: (213)484-7111(#4167)

디모데성경연구원 미주지역 세미나

디모데성경연구원(대표 이재학 목사)는 미주지역 세미나를 13일(월) 오전10시부터 오후4시30분까지 선한목자장로교회(담임 고태형 목사, 1816 S. Desire Avenue. Rowland Heights)에서 개최한다. 세미나 주제는 '하나님이 빚으시는 성품'이며 강사는 이재학 목사와 총무 신현빈 목사가 맡는다. 참가비는 60달러(학생용강의안, 인도자 지침서, 파워포인트 CD, 강의 MP3 제공)이며 청강 시 20달러(학생용강의안만 제공)다.

▲문의: 82-70-8672-6020, tbm@worldteach.co.kr

마커스 임선호 예배찬양을 위한 기타 클리닉

원하트 미니스트리(대표 피터박 목사)는 예배찬양을 위한 기타 클리닉을 27일(토) 오전 10시 KCCC소극장 2층 205호에서, 같은 날 오후 6시 은혜한인교회 웨딩채플, 그리고 10월 4일(토) 오전 10시 시애틀형제교회 비전홀에서 갖는다. 참가비는 15달러(중고등부), 20달러(5명이상 단체), 25달러(개인)이다.

▲문의: (714)357-5518/LA, OC 최용일 전도사, (425)772-2522/시애틀 김구

미주 제34기 어머니학교(사모2기)가 만나교회에서 열렸다

두란노어머니학교 LA 사모대상 2기

"주님! 제가 어머니입니다"

두란노어머니학교 미주 34기가 15일부터 17일까지 만나교회(담임 남강식 목사)에서 열렸다. 이번 어머니학교는 목회자 사모들을 대상으로 열었으며 두 번째로 마련됐다.

강사는 이기복 목사(서울온누리교회)와 송현옥 사모(베이커형제교회)가 맡았다.

LA지역 총무 남미경 사모는 "사모어머니학교는 사모들이 평신도와 나누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에 사모들만의 시간을 갖기 위해 마련됐다. 16명이라는 적은 인원이지만 3일 동안 섬기게 됐는데 순간순간 사모들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돼 감사했다"고 언급하며 "이번 어머니학교를 통해 LA지역 교회들과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세계로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감사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영길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11:00
한어대학청년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00, 11:00
www.thanksgivingchurch.com
Tel.(714)521-0991, Fax(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나성순복음교회

담임목사 :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상)
주일영어예배: 오전 11:30
수-금요 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lafgcusa@yahoo.com / www.lafgc.com
Tel.(323)913-4499, Fax.(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

나성영락교회

담임목사 :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후 12:30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청년)
새벽기도: 5:30(월-금), 6시(토)
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

나성제일교회

담임목사 :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213)388-7101 , (F)(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나침반교회

담임목사 :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말씀묵상(월-금): 오전 5:30
토요일: 오전 6:30
EM,대학부: 오후 1:30
주일학교: 오전 11:00
Tel.(562)691-0691, (F)(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

남가주든든한교회

담임목사 :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 일 학 교: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0(월-금)
Tel.(213)481-2779 / Fax(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

남가주리디머교회

담임목사 : 김요섭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후 1:00
목 요 예 배: 오후 7:00
새 벽 예 배: 오전 6:00(화-토)
www.scrdm.org
Tel.(213)215-8523, Fax.(213)977-1183
1938 S. Western Ave, L.A., CA 90018

남가주사랑의교회

담임목사 : 노창수
주일1부 예배 : 오전 7:30
주일2부 예배 : 오전 9:10
주일3부 예배 : 오전 11:10
(Holywave:영어예배)
(KDC:한국어예배)
주일4부 예배 : 오후 1:10
Tel.(714)772-7777, Fax.(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

대흥장로교회

담임목사 : 권영국
주일1부예배:오전 8:00
주일2부예배:오전 9:30
주일3부예배: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오전 9:30
새 벽 기도회:오전 6:00(월-토)
금 요 예 배:저녁 7:30
Tel.(310)719-2244, Fax.(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dena CA 90248
www.dkpc.org

동문교회

담임목사 : 김상호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오전 6:30(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
Tel.(213)483-6625, Fax.(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90057
www.egkpc.org

동양선교교회

담임목사 : 박형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전통예배: 오전 9:30
3부 열린예배: 오전 11:00
4부 영어예배: 오후 12: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323)466-1234, Fax.(323)466-0816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

디아스포라선교교회

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동족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4:00
Tel.(213)559-7728 (전화 팩스 겸용), Tel. (213)210-6890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

드 림 교 회

담임목사 :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영어 2부예배: 오전 11:30
젊은 이 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새벽5:30(월-금), 6:00(토)
Tel.(626)793-0880, 0200 Fax.(626)793-641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

미주양곡교회

담임목사 :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11:00
주일오후찬양예배: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
Tel.(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

미주평안교회

담임목사 : 임승진
주 일 1부: 오전 8:30
(영어)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
www.mpcla.org
Tel.(213)381-2202, Fax.(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

빛과 소금의 교회

담임목사 :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회: 오전 5:45(화-금)
오전 6:00(토)
Tel:(310)749-0577
3521 Lomita Bl. #202-A Torrance CA.90505

베델한인교회

담임목사 :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후 1:00(청년)
성인영어예배: 오전 11:00
대학영어예배:오후 1:00
일어예배: 오후 1:00 수요예배: 오후 7:30
Tel.(949)854-4010 / E-mail: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
www.bkc.org

복음장로교회

담임목사 :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
Tel.(562)6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

브리지교회

담임목사 : 장세정
주일1부찬양예배: 오전 9:00
주일2부 대 예 배: 오전11:15
주일영어예배: 오후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Tel.(626)339-6177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

남가주삼성장로교회

담임목사 : 신원규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11:00
주 일 학 교: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금)
비전Acts 1:8 새벽기도: 오전 6:30(토)
중,고,대,청년부: 오후7:30(금)
www.samsungchurch.org
Tel.(562)690-9800, Fax.(562)690-8044
501 S. Ldaho St. La Habra CA 90631

새찬양교회

담임목사 : 변윤선
주일1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1:00
주일학교: 오전11:0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www.newpraisechurch.org / ysbyon@gmail.com
Tel.(714)826-0100, Cell.(714)944-9377
6269 Ball Rd., Cypress, CA 90630

새생명선교교회

담임목사 : 김만수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한어 2부예배: 오전11:00
성 경 공 부: 오후 7:00(금)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교 육 부: 오전 11:00(주일)
중, 고등부: 오전 11:00(주일)
Tel.(818)952-2449
1300S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

세계소망교회

담임목사 : 오세훈
주일 1부예배 :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Tel.(213)745-9191(CH), 사택(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

안디옥장로교회

담임목사 : 지윤성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2:30(영어)
주일오후예배: 오후 1:45
금 요 예 배: 오후 8:00
새 벽 기 도: 오전 5:30
교육부주일예배 : 오전 11:00
Tel.(818)249-2871, Fax(818)249-0516
www.laapc.org
2720 MontroseAve. Montrose, CA 91020

얼바인침례교회

담임목사 :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 벽 기 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www.irvinechurch.com
Tel.(949)857-9425 / Fax.(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요셉선교교회

담임목사 : 정상호
주 일 예 배: 오전 11:00
수 요 예 배: 저녁 7:30
금 요 예 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213)245-4090 Fax.(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

윌셔크리스천교회

담임목사 : 엄규서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11:00(전통)
주일4부예배: 오후 2:00(다민족찬양)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토)
주 일 학 교: 오전 11:00
토요젊은이예배: 오후 6:00
Tel.(213)384-7274, Fax(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

은혜한인교회

담임목사 : 한기홍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령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오전 5:30(월-금), 6:00(토)
은혜세계기도센터: 365일 24시간 오픈
www.gracemi.com
Tel.(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주님의영광교회

담임목사 : 신승훈
주일 1부 예배: 오전 8: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 예배: 오전 1:00
수요/금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
Tel.(213)749-4500, Fax(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cjc.org

코너스톤 교회

담임목사 : 이종용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 대 예배: 오전11:00
수 요 예 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www.cornerstonetv.com / e-mail:pastor@lacornerstone.com
Tel.(310)530-4040(CH), Fax(310)530-8400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

토렌스조은교회

담임목사 : 김바울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장년, 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EM)
주일5부예배: 오후 3:00(청년)
장애우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www.torranceg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

각 교단 정기총회

백남선 총회장 · 박무용 부회장 선출

예장합동 제99회 정기총회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은 22일 광주 남구 봉선로 광주겨자씨교회에서 제99회 총회를 개회하고 백남선(65) 광주 미문교회 목사를 총회장, 박무용(65) 대구 황금교회 목사를 목사부총회장으로 선출했다.

총대 1442명은 성찬식 후 임원선거에 들어가 기립박수를 통해 만장일치로 백 목사를 총회장에 추대했다. 백 목사는 "사도 바울이 자랑할 것은 자기의 약함이라고 말했듯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총회, 한국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총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백 목사는 광신대와 총신대 신대원을 졸업했으며, 광주기독교교단장협의회장, 총신대 재단 부이사장 등을 지냈다.

목사부총회장 선거는 제비뽑기 선거를 통과한 박 목사와 정연철 양산 삼양교회 목사가 맞붙었으며, 박 목사가 777표를 얻어 당선됐다. 박 목사는 총회세계선교회(GMS) 이사장과 총회서기, 총회군선교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등 한국교회 연합사업 문제를 예장합동이 잘 아우르면서 끌고 가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낙선한 정 목사는 정치적으로 무명에 가까운 인사였지만 조직과 자금을 동원하지 않고 본선에서 668표를 얻어 차기에 도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총대들은 경기남노회와 황해노회의 분립안을 통과시켜 예장합동 산하 노회는 총 143개가 됐다.

한편 총회는 류광수 다락방에 대해 "이단에서 해제할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 했다.

신임총회장 백남선 목사는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교회 연합사업은 건전한 교단 중심으로 진행돼야 합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에 대한 입장은 이영훈 신임 대표회장이 어떻게 이단을 가입시킨 한기총을 정비하는 것을 보고 밝힐 예정입니다. 제3의 연합기관 설립에 대해선 부정적 입장"이라며, "한국교회는 지금 동성애 문제와 차별금지법 문제 등 한목소리를 내야할 상황이고, 종교다원주의를 반대하는 예장통합 인사들과도 연합사업을 해야 한다. 앞으로 교단장협의회에 나가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영택 총회장, 채영남 부총회장 선출

예장통합 제99회 정기총회

2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소망교회(김지철 목사)에서 열린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제99회 정기총회에서 목사부총회장인 정영택(경주제일교회) 목사가 총대들의 만장일치로 총회장직을 승계했다.

정 목사는 총대들에게 "교회는 '화평케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을 확산시켜야 한다"며 "국가와 세계의 평화를 부르짖기 전 먼저 교회 안의 분열을 없애고, 다음 세대와 청·장년, 노년세대를 부흥시키는 실제적 방안을 실천하자"고 제안했다.

부총회장에는 채영남 광주본향교회 목사가 선출됐다. 채 목사는 총 1486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770표를 얻어 당선됐다. 진명옥 광주무등교회 목사는 716표를 얻었다. 단독 후보로 나선 박화섭(서울 삼각교회) 장로는 1486명 중 1431명에게 찬성표를 얻어 장로 부총회장에 올랐다.

한편 예장통합은 지난해 98회 정기총회에서 목회 대물림 금지를 결의한 뒤 후속조치로 연구한 헌법 개정안도 이번 총회에 상정됐다. 통합 헌법개정위원회는 지난 1년간 헌법개정 작업을 벌여 목회 대물림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연금재단 개혁 여부도 주요 논의 사항이다. 최근 연금재단의 투자 및 운용에 대해 교단 곳곳에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다수의 노회가 연금재단의 투자처 변경과 총회연금재단 이사의 지역·연령대 균등 배치, 금융 전문가 중심의 연금재단 이사 공천 등의 헌의안을 상정했다.

또 목회자 수급 불균형에 따라 목회자의 이중직(자비량 목회)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안건과 총회 파송 선교사가 은퇴 후 머물 안식관 건립을 요청하는 안건 등 목회자 처우 개선에 대한 안건도 올라와 있다. '사이비종교 특별법'에 대해 신학·법리적 연구를 한 뒤 국회에 법안 제정 청원을 해 달라는 헌의안도 논의된다.

한편 총회 둘째 날에는 미국장로교(PCUSA)의 동성결혼 허용을 놓고 대처방안을 논의했으며 가톨릭 협의체 탈퇴도 논의됐으나 결정은 하지 않았다.

예장 백석, 대신과 통합 결의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총회는 22일 충남 천안 백석대학교에서 제37회 정기총회를 열고 현 총회장인 장종현 목사를 차기 총회장에 재추대했다. 이에 따라 장 총회장은 앞으로 1년간 백석총회를 대표하게 됐다.

신임 장 총회장은 개회예배 설교에서 연합사업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장 총회장은 "다른 교단과 협력하고 연합하는 것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라며 "믿음으로 하나돼 통합의 역사를 새로 써나가자"고 강조했다. 장 총회장은 "교단 간 연합을 두려워해선 안 된다"며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 이 땅의 장로교가 모두 하나될 때까지 함께 기도하고 전진하자"고 말했다.

총회장 후보를 사퇴한 이종승(창원임마누엘교회) 목사는 "백석총회 회관 건립, 타 교단과의 통합 등 산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종현 목사가 총회장을 한 번 더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며 "제 사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백석교단은 물론 한국교회 부흥과 성장에 쓰임 받길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석총회는 또 예장대신 총회(총회장 전광훈 목사)와의 통합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대신총회는 지난주 49회 정기총회에서 백석교단과의 통합을 결의한 상태다. 백석총회가 배포한 합의서에 따르면 통합총회는 11월 25일 오전 11시 백석대 대학교회에서 열린다. 통합총회장은 장종현 목사가 맡는다. 또 제1부총회장은 이종승(백석) 목사, 제2부총회장은 유충국(대신) 목사, 제3부총회장은 이주훈(백석) 목사가 맡기로 했다.

총회에 참석한 한 목회자는 "대신교단과의 통합이 결의돼 정말 기쁘다"며 "한국교회에서 신학과 신앙이 같은 교단들은 통합을 이뤄가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금권 및 불법선거를 뿌리 뽑고 모범적인 선거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선거법 개정안도 비중 있게 다룰 전망이다. 여성 목회자에게 총회 대의원이나 임원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등 성차별적 조항의 개정도 주요 안건이다. 이슬람대책위원회는 이슬람 무장단체의 인권유린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유엔에 제소할 것을 상정했다. 94개 노회, 5276교회, 1089명의 대의원들이 참석한 백석총회는 25일까지 '믿음으로 연합하여 전진하는 총회'(시133:1-2)를 주제로 진행된다.

300억 교단 부채 · 구원파 피해대책 등 논의

기침 제104차 총회, 여성목사안수 규약개정안 통과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총회장 김대현 목사)는 22일 대전 유성 침례신학대학교 대강당에서 제104차 총회를 개막했다.

김대현 총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 시대 목회는 점점 어려운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면서 "이 상황을 이기는 길은 교단 전체가 연합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회예배에서는 유병문 증경 총회장이 설교말씀을 전했고, 위성교 미남침례회한인총회 총회장 등이 축사했다.

1300교회 1508명의 총회대의원(총대)이 등록한 올해 총회에서는 교단 발전과 교회 부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여성목사 안수와 관련된 규약 개정안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기침 총회는 '만 30세 이상 된 가정을 가진 남자'로 규정된 기존 목사 자격에 관한 조항을 '만 30세 이상 된 가정을 가진 자'로 고쳤다. 이와 함께 독신인 경우, 40세 이상 된 자로 기침 소속 교회에서 7년 이상 사역을 했다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등 미혼 독신자들을 위한 배려 조항도 추가했다.

교단위상 제고 방안도 통과시켰다. 기침 교단은 우선 교단의 유공단체 인증을 추진키로 했다. 조원희 기침 총무는 "일제강점기 시절, 신사 참배를 거부한 기침 교단이 폐쇄되고 재산을 몰수당한데 대한 유공단체 인증 작업을 정부를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여의도 총회 빌딩 안에 기침 교단의 역사관을 조성하는 한편 교단 마크도 새로 만들기로 했다. 앞서 기침 교단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일명 '유병언 구원파'의 공식 명칭(기독교복음침례회)과 비슷한 교단 이름 때문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뒤 교단 위상 강화 방안을 논의해왔다.

23일에는 차기 총회의장단 선거가 예정돼 있다. 현재 곽도희(남원주교회 담임), 윤덕남(서울 성일교회 협동) 목사가 총회장 후보로 출마했고, 제1 부총회장에는 유영식(동대구교회) 목사가 출사표를 던져 총대들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다.

총신대 신대원 여성입학 사실상 차단

운영이사회, 노회추천 목사후보생만 입학 허락

총회신학원 운영이사회가 18일 서울 총신대에서 정기이사회를 열어 총신대 신학대학원의 목회학석사 과정과 총회신학원의 여성 입학을 사실상 차단하는 결정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

운영이사회는 동광주노회가 제출한 '총회 직영 및 인준 신학대학원의 목회학석사(M. Div) 과정은 노회 추천 목사후보생만 입학하도록 허락해 달라'는 헌의안을 통과시켰다. 예장합동은 여성목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노회에서 추천하는 목사후보생은 100%가 남성이다. 따라서 노회 추천 목사후보생만 입학을 허락하면 여성은 입학을 할 수 없다.

이사회에선 "목회학석사 과정은 목사안수를 받기 위한 과정이고 예장합동에선 여성에게 목사안수를 주지 않고 있다"면서 "여성들은 목사가 될 수 없는데도 굳이 총신대 신대원과 총회신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싶다면 교육학석사(M.A.) 과정을 밟는 게 맞다"는 의견이 제기됐고, 만장일치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정은 총신대 재단이사회(이사장 김영우 목사)가 추인하면 그대로 실행된다. 총신대는 현재 임의기구인 운영이사회와 법적 기구인 재단이사회를 운영하고 있다. 예장합동은 전국 노회에서 파송한 146명의 이사들로 구성된 운영이사회를 통해 총신대 운영을 위한 안건을 상정하고 15명으로 구성된 재단이사회를 통해 결의하는 구조를 갖고 있다.

현재 총신대 신대원 목회학석사 과정에는 1179명이 재학 중이며, 이 중 여학생은 121명이다. 총회신학원은 재학생 370명 가운데 31명이 여성이다. 신대원을 졸업한 여성들은 주로 교회 전도사나 선교사로 활동한다.

운영이사회 결정사항을 접한 총신대 신대원 여학생들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A씨는 "아직 여성 목사안수를 주지 않고 있는 것도 황당한데 해도 해도 너무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B씨는 "여전도사에게 사역은 시키면서 사역자가 되기 위한 공부의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발상은 그야말로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예장개혁으로 통합…총회장에 홍계환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개혁총연총회(총회장 엄바울 목사)와 장신총회(총회장 홍계환 목사)가 교단 통합을 선언하고, 신임 총회장에 홍계환 목사(영남장로회신학교 총장)를 추대했다.

양 교단은 22일 중흥교회에서 1,221명의 총대가 참석한 가운데 '연합하라'하는 주제로 통합총회를 열고,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 적극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이로써 개혁총연 2천5백여 교회와 장신 5백여 교회를 합해 3천여 교회 규모의 교단이 됐다. 통합된 교단의 명칭은 '예장 개혁'으로 하기로 했다.

예장 개혁 새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총회장 홍계환 목사, 부총회장 정운엽·정상업·김태경·김정림·고충만 목사, 장로부총회장 김동근 장로, 서기 박명희 목사, 부서기 김태엽 목사, 회계 이숙희 목사, 부회계 고재준 목사, 회의록서기 안만광 목사, 부회의록서기 양선자 목사, 총무 최정봉 목사, 국제총무 김선희 목사, 감사 정해석·박형근·김권태 목사, 총회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신재 목사, 총회회관건립위원회 위원장 엄신형 목사, 신학교육위원회 위원장 이신재 목사, 해외선교위원회 위원장 배동률 목사, 특수목회 위원회 위원장 이신재 목사, 합동영입위원회 위원장 엄신형 목사, 대회중재위원회 위원장 진상철 목사,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진상철 목사, 복지위원회 위원장 최원석 목사, 행정심의위원회 위원장 심만섭 목사, 총회수호대책위원회 위원장 엄신형 목사.

예장합신 새 총회장에 우종휴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총회가 23-25일 부천 오정성화교회(이주형 목사)에서 제99회 정기총회를 열고 있는 가운데, 첫날 부총회장 우종휴 목사(경북노회 황상교회)가 신임 총회장에 당선됐다.

이어 부총회장에 안만길 목사(중서울노회)와 황인곤 장로(서서울노회), 서기 이내원 목사(부산노회), 부서기 최일환 목사(수원노회), 회의록서기 박병선 목사(경기중노회), 부회의록서기 홍문균 목사(남서울노회), 회계 공종복 장로(동서울노회), 부회계 이재형 장로(경기서노회)가 선출됐다.

우종휴 신임 총회장은 "먼저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에 합당하도록, 앞서 가신 분들의 수고를 이어 더 많은 열매를 맺고 더 나아가 하나되어서 어려움을 잘 이겨내도록 힘쓰는 교단이 되길 원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응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Tel.(702)579-7576, Fax.(702)257-9191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덴버예닮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Tel.(303) 364-1621
389 Quentin St, Aurora, CO 80011
YDKoreanchurch.com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303)-422-6950, Fax.(303)422-6943
7755 Kipling St, Arvada, CO 80005
www.kpcd.org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해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영어예배: 오전 10: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610)222-0691, 267-471-7777
Fax.(610)222-0692
3260 Morris Rd, Lansdale, PA 19446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풍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영 어 예 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15)945-1512, Fax.(215)945-2095
1550 Woobourne Rd., Levittown, PA 19057

벧엘교회

담임목사: 진용태
주일1부예배(한): 오전 7:00
주일2부예배(한): 오전 8:15
주일3부예배(한): 오전 11:30
주일4부예배(찬양): 오후 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오전 6:00(월-토)
Tel.(410)461-1235, Fax.(410)461-6823
3165 St. Johns Lane, Ellicott City, MD 21042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덕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중고등부(영어): 오전 10시, (한어): 오전 11시
유치, 유년느부: 오전 10:00
Tel.(508)425-4579, Fax.(508)435-5467
2 Main St. Hpkinton, MA 01748

샬롯장로교회

담임목사: 나성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아침예배: 오전 10:45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예배: 오전 11:00
Tel.(704)529-0900 / 0998(팩스겸용)
701 Scaleybark Road, Charlotte, NC 28209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융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Tel.(360)456-0191
6007 Pacific Ave, SE P.O.BOX 8358
Lacey, WA 98509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저녁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Tel.(206)527-0981, Fax.(206)524-1746
4040 N.E. 105th St, Seattle, WA 98125
www.kppcseattle.org

알칸사 제자들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철야: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Tel.(501)920-9049, 사택.(501)425-5178
600 Kirby Rd, Little Rock, AR 72211
www.jejas.com

앵커리지열린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오후 7:00
Tel.(907)344-6446, Fax.(907)344-3182
8220 Briarwood St, Anch., AK 99518

엘파소열린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Tel. 교회(915)755-1490, 사택(915)751-4365
3416 Atlas Ave, El Paso, TX 79904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청년예배: 오후 2:30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Tel.(215)542-0288, Fax.(215)542-9037
706 Witmer Rd. Horsham, PA 19044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성한
주일낮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Tel.(254)634-8705, (254)501-4933
408 N. 8th St, Killeen, TX 76541

워싱톤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
www.mpcow.org
Tel.(703)941-4447, Fax.(703)941-4448
4313 Markham St. Annandale, VA 22003

주예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15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www.ijkc.org
Tel.(804)560-7500, Fax.(804)560-7514
10201 Robious Rd, Richmond, VA 23235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광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www.josephsvision21.org
매일저녁7시(금,토,주일)
Tel.(410)203-0516, Fax.(410)203-0512
3173 St, Charles PL Ellicott City MD 21042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성경공부: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새벽 5:30(화-금) 새벽 6:00(토)
Tel.(253)565-1069
7461 S. Verde St, Tacoma, WA 98409

타코마새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규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한/영)
주일4부예배: 오후 2:00(열린)
Tel.(253)535-6207, 531-8424
Fax.(253)539-1433
9702 E. B St. Tacoma, WA 98445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장호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3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후 1시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 (화-토)
Tel.(253)536-6675, (253)888-9249
9424 S. Yakima Ave., Tacoma, WA 98444
www.tacomacrc.com

템피장로교회

담임목사: 윤정용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3부예배: 오전 10:50
주일4부예배: 오전 12:10
주일5부예배: 오후 2:00(젊은이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www.tkpcaz.com
Tel.(480)726-0191, Fax.(480)857-3997
1150 S. Dobson Rd, Chandler, AZ 85286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회중: 오전 11:00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Tel.(215)927-0630, Fax.(215)927-0643
1200 W. Cheltenham Ave, Philadelphia, PA 19126
www.kucp.org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토) 오전 6:00
Tel.(860)643-4738, Fax.(860)674-0565
300 Chapel Road Manchester, CT 06040

미주크리스천신문 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 L.A.: Tel. (323)665-0009
Fax.(323)665-0046
■ N.Y.: Tel. (718)886-4400
Fax.(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

선교의 창 (15)

내가 가야 할 선교적 땅 끝!

제임스송 목사 (대학선교, 수필가)

내가 가야 할 선교적 땅 끝은 어디인가? 장기든 단기든 사역할 선교지를 결정하는 것은 선교사로 헌신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사역자로서 첫 발을 띄기 전에 "어디로(Where)"에 대한 확실한 답을 찾지 못하면 방황하기 쉽다. 이를 위해 세계 230개 국가 24,000종족을 다 리서치 할 수는 없다. 설사 세계 모든 지역과 부족을 조사한다 해도 딱히 가야 할 길이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의외로 답은 간단하다. 예수께로 가면 된다. 주님께로 가면 자아가 발견되고 자기에게 맞는 사역지역과 대상이 보인다.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해 일하신다. 그러므로 나의 생각이 앞설 때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렵다. 크리스천은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는 자이다.

근대 개신교 선교역사는 크게 3시대로 구분한다. 첫째는 윌리암 케리(William Carey)를 중심으로 한 해안 선교시대(1792-1910년)이다. 그는 영국에서 출발하여 인도 해안가로 갔다. 둘째 허드슨 테일러(Hudson Taylor)를 중심한 내륙 선교시대(1865-1980년)이다. 그도 역시 영국에서 선교사가 없는 중국내지로 들어갔다. 셋째는 카메룬 타운젠드(Cameron Townsend)와 도날드 맥가브란(Donard McGavran)을 중심으로 한 미전도 종족시대(1934-?)이다. 이 두 사람은 고정된 지역보다 미전도 종족이 있는 곳으로 갔다. 이렇게 선교사들마다 바라보는 사역적 땅 끝은 달랐다.

21세기는 어떠한가? 현대는 글로벌(Global) 시대이다. 여기는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한 앞의 세 시대와 확연히 다르다. 전 시대가 사격종목에서 고정판을 맞히는 것이라면 현대는 이동판을 맞히는 것과 같다. 다시 말해 개인이나 부족이 태어난 지역에서 마르고 닳도록 정착하기보다 문명을 따라 엄청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급변하는 시대의 조류를 볼 때 선교 역시 상등 문화권에서 하등 문화권으로 가는 근세적 패러다임만을 고집해서는 아니 된다.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모든 선교의 원리를 근대 개신교 선교역사보다 성경에서 찾아야 한다. 사도행전에 보면 선교사의 모델격인 바울은 사역을 위해 역문화적 지형으로 동선했다. 그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자기 생각을 버리고 철저히 예수의 영을 따랐다. 그는 2차 전도여행에서 소아시아의 한 지역인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나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마게도냐로 간 것이다. 그리고 나중에는 로마를 갔다. 그는 당시 세계의 수도인 로마를 택함으로 지구촌을 한 손에 움켜쥐게 된 것이다. 심장에서 박동된 피가 온 몸으로 퍼지듯 그의 선교적 지형 선택은 옳았다. 그가 만일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한 오지로 갔다면 기독교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이다. 바울 사도에게 땅 끝이란 선교적 전략지를 의미한다.

우리는 이 거룩한 부담을 위해 각자 어디로 가야 하는가? 인간은 자기가 가야할 곳, 서야 할 자리를 제대로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장래의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한 필수적 과정이다. 하지만 대부분 인간은 진로나 방향을 설정할 때 이기심이 발동하기 쉽다. 어느 길이 "내게 편하고 부귀영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가?"를 심사숙고한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것도 학교 졸업을 앞둔 새파란 기독청년들이 이렇게 잔 머리를 굴린다면 한국교회는 소망이 없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도외시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결정하면 결과적으로 만족도 없고 불행하다. 여기 대한민국 경남에 명문사학으로 이름난 거창 고등학교의 직업 선택을 위한 10계명을 소개하고 싶다. 이 학교는 1953년 기독정신을 건학이념으로 세워졌다. 이 십계명은 고 전영창 교장의 정신이 담긴 내용이며 지금도 그 내용을 변개하지 않고 도전적 영성으로 운영되고 있다.

제1계명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하라. 제2계명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제3계명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제4계명 모든 것이 갖추어진 곳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황무지를 택하라. 제5계명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제6계명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제7계명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제8계명 한 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제9계명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제10계명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인생은 모험이고 또 광야 같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가야 할 땅끝 선교지는 어디인가? 이는 지리적이나 문화적 개념보다 사역의 대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원주민 사역에 부담이 있는 자는 그들이 있는 정글 같은 곳이다. 청년 사역에 사명이 있는 자는 소위 문명이 발달한 도시이다. 일반적으로 선교지를 택할 때 고려하는 바는 복음화 율이 낮은 곳, 가능한 선교사가 없는 곳,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 문화와 기후 음식 등 자기 체질에 맞는 곳, 특정 부족과 뗄 수 없는 인연이 있는 곳 등이다. 그러나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는 것은 문제의 발단이 된다.

21세기 우리가 사는 지구촌은 하나의 선교지로 탈바꿈하고 있다. 익히 아는 바 중반부터 초반까지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의 영향이 컸다. 1차 산업 위주에서 기술의 혁신으로 인해 사회, 경제 등의 큰 변혁이 일어났으며 이는 전 세계를 크게 바꾸어 놓았다. 이러한 문명의 기초에서 현대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세계인이 일일 생활권에 접어들었으며 세계인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따라서 지금은 배나 비행기를 타고 가지 않아도 피선교지민들이 우리 곁으로 와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크리스천은 자기가 서 있는 곳이 땅 끝이기도 하다. 정점에서 한 방향으로 나아가면 지구를 돌아 다시 제 자리에 도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선교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발등상에 있다고도 할 수 있다(There is a Mission on your doorsteps).

이처럼 땅 끝은 획일적이지 않다. 각자의 은사와 소명을 따라 선교적 부담이 있는 곳이 바로 땅 끝이다. 문제는 내가 "선교적 땅 끝에 대한 확신과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이다. 나아가 지금 선교적(Mission)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여기에서 선교(Mission)를 하지 않는 자가 내일 저기에서 선교(Mission)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선교는 삶의 도피가 아니다. 삶의 전환도 아니다. 오늘 삶의 연장이다. 단지, 주의 사랑으로 타 문화권 영혼들을 섬긴다는 차이일 뿐이다. 진정 내가 서야 할 선교적 땅 끝은 어디인가? 마라나타!

이메일: jrsong007@hanmail.net

바울은 선교를 위해 자기 생각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동선했다. 크리스천이란 나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가는 자이다.
(Christian is a person who does not go one's own way, but Lord's way.)

방지일 칼럼 (57)

"본대로 들은 대로"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의 그 강한 논조는 나의 나 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고전 15:10). 어찌 바울뿐이겠는가, 어느 누구나 속죄함으로 사죄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됨을 알지 못하는 이는 없을 것이다. 하나에서 열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산다, 나는 호흡한다, 나는 일한다, 나는 간다, 나는 하나님을 찾는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 나는 기도한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나는 마침내 하나님께로 간다, 내 생활 일체가 하나님의 은혜로 될 뿐이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는 감사한다.

은혜에 비례해서 감사한다. 감사에 비례해서 찬양한다. 이런 삶이 신앙인의 삶이다. 신앙인의 삶에 은혜가 제거되면 아무 것도 없어진다. 제로가 된다. 아니 영점 이하가 된다. 그러기에 바울은 은혜를 그렇게 고조한 바이다.

이것이 사실인데, 오늘 은혜가 어떻게 왔으며 뉘게 주며 누가 주시는 것을 미처 몰라서인가 오늘 신앙인이 그저 자기 육적인 어떤 득(得) 어떤 이(利) 어떤 익(益) 어떤 육의 쾌감 만족을 얻으면 얼른 은혜 운한다. 은혜는 전능하신 지공무사하신 하나님만이 주신다. 악을 선하다 하시지 못하는 그이가 주실 뿐이다. 죄는 그저 용납 못하시는 이가 주신다. 그러기에 아들까지 보내셔서 죽으시게 하시어 속죄해 주시고 사죄함을 받게 한 다음에야 그 속죄 사죄함을 믿는 자와만 그 담이 헐어진지라 그를 만나주시고 그의 경배를 받으시고 그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이다. 죄를 무시하는 자를 알아주실 수가 없다. 범죄한 그 죄를 모른척 하실 수 없다. 그 죄 값은 주님이 지불하신지라 그 죄를 자복할 때 중보되신 이가 하나님 우편에 계신지라 그의 대속은 이미 지은 죄 또 현행죄 모든 죄는 그가 대속하신고로 사함을 받는다. 이 사실이 복음이다. 이 복음을 이용하여 범죄한다. 남을 속인다. 죄를 범하고 남을 속인 그 일이 내게 득이 되었다고 내게 익이 되었다고 내게 쾌하다고 은혜 운 하는 신앙인이 있다. 크게 잘못일뿐더러 죄에 죄를 더함이 될 뿐이다.

한 교회에서 교인끼리 가게를 사고팔았다. 산 사람은 한 교회서 같이 믿는 형제인데 이렇게 속이다니 잔뜩 분함이 있으나 이미 완료된 일에 섭섭함 울분함이 목구멍을 치밀어 올라오는 중인데, 그 판 사람은 크게 입을 열어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가게는 잘 팔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다닌다. 이는 은혜를 모독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남은 속아서 분해하는데 자기는 은혜를 받았다, 잘 속였다, 그 속인 죄를 은혜로 미화시킨다. 이런 말은 얼마든지 소위 신앙인들 가운데 있다.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본다. 미국비자가 어렵다. 미 대사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다 꾸몄다. 그 위장서류를 제출했다. 그리고 비자 발급을 그 위장서류에 의해 받아가지고 도미해서 크게 입을 벌려 하나님의 은혜로 어려운 비자가 나왔다고, 비자를 얻어 이렇게 왔다는 자랑을 하고 있음을 들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모욕함도 대단하다. 하나님은 그 위장서류를 사기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심은 결코 아니다. 구원한 사람은 그래도 그 죄를 묵과하시거나 덮어두시지 않으신다. 반드시 그 언제인가 그 죄는 결산을 받으신다. 그때서야 그 사기 친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송했음을 가슴을 치며 느낄 것이다. 그 값을 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는 대로 할 짓을 다 하고 하나님의 은혜 운운 할 수 있을까 그 잘못됨이 크다 하겠다.

죄 인식에 비례해서 은혜는 받게 되어 있다. 죄를 지으면서 은혜 운운함은 십자가를 모독하는 일이 됨이다. 그 죄를 추적하여 하나님께서 찾아내실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죄를 추적하셔서 찾으신다함은 그 범죄한 자로 그 추적하는 죄를 바로 알게 하시기 위하심이다.

"너희 죄가 정녕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민32:23). 내 죄가 나를 추적하여 어느 경우에 어떻게 남을 속여 내 이익을, 관을 속여 비자를 얻은 것은 내게 찾아주신다 함이다. "네가 호리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마5:26).

은혜를 오용해서는 안된다. 은혜는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다.

〈1997년, 4권〉

15년간 성지순례를 인도해 온 **이스라엘 알리야 선교회(I.A.M)의 KNOW-HOW와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전문여행사(SINCE 1986년)**의 풍부한 경험이 합쳐진 명품 순례

이스라엘, 요르단, 터어키,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팀 대모집

〈2015년 봄 성지순례 일정〉

2015. 2.16~2.24 - 이스라엘 전 일정 순례 (8박9일) $2,299
2015. 2.16~2.26 - 이스라엘,이집트,요르단3개국(10박11일) $2,699
2015. 3. 2~3. 9 - 터어키 소아시아 일정(7박8일) $1,999
2015. 3. 2~3.12 - 터어키, 그리스 2개국(10박11일) $2,699
2015. 3. 2~3.14 - 터어키,그리스,로마3개국(12박13일) $3,199

〈※ 위의가격은, 15명 이상 LA 출발 기준이며, 금년 9월~10월 등록시 가능한 가격입니다. 비행기 요금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차별화된 명품 성지순례, 옵션이 없는 순수한 성지순례, 기독교 역사적, 선교적 관점으로 진행하는 순례, 교회들이 원하는 맞춤형 순례, 젊은이들을 위한 단기선교 및 정탐, 한국 성지(선교지)순례 등등..
* 특별혜택사항 : 항공, 호텔, 버스, 음식(한식포함), 편안하고 여유있는 스케쥴,현지 한국 가이드의 질적 우위와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의 경쟁력
* 성지순례 및 항공권 문의전화번호: 714-351-0124
* 성지순례 프로젝트 팀장: Paul 최 목사(15년간 성지순례 인도)
* E-mail : choigh1115@gmail.com
* **모든 항공권 가격 최저 보장!**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시켜 드립니다!!!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나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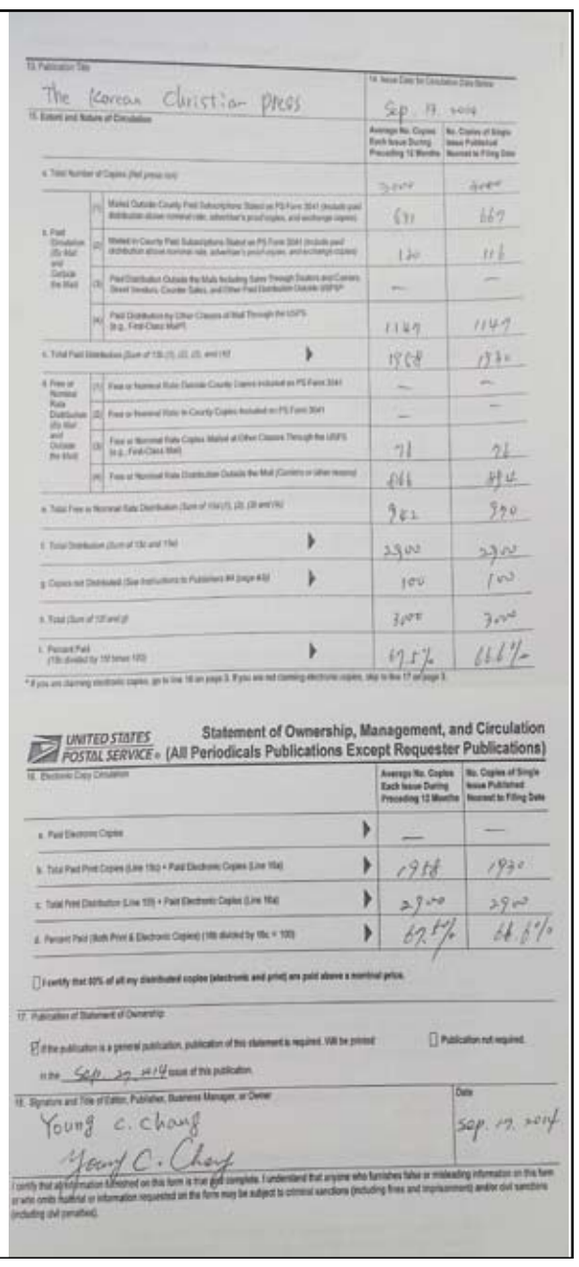
몰몬교는 과연 기독교인가?
몰몬교에 접해 신앙의 혼돈이 생기신분
몰몬교에 관해 알기원하시는 분
상담 및 소그룹 클래스, 세미나
문의 정 일 국 목사
- 전 화: 714-833-2345
- 이메일: miranjung7@gmail.com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사랑과 행복을 드리는
'한나 꽃집'
Hanna Flower Shop

각종 선물포장
꽃/과일바구니
결혼 꽃 / 파티 꽃
축하 꽃다발 / 장례 꽃
한국 꽃배달 / 타운내 무료배달
주소: 4034 W. Olympic Blvd, LA, CA 90019
전화: (323)936-1077 / (213)254-7003



선교 편지

온두라스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7월과 8월 이상기온이 계속됩니다. 우기철임에도 물 전쟁이었습니다. 가뭄이 오랫동안 지속되어 작황이 좋지 못합니다. 주식인 옥수수의 가격이 폭등하네요. 단기선교 팀들도 물 전쟁을 치렀습니다. 고생을 엄청 많이 했지요. 미국에서 매일 샤워를 하던 분들이 몇 날 샤워를 할 수 없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화장실의 불편함 또한… 극기 훈련 같다고 "데모(?)"를 하기도 하고, 일주일 동안 샤워를 하지 않고 불편을 감수하겠다는 학생들도 있었네요. 저도 참으로 난감하였습니다. 그래도 마실 물은 살 수 있었으니 감사하지요. 저는 선교하는 분들은 "자발적인 불편"의 삶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여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살기 때문이지요. 선교역사 가운데 허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불편한 삶을 살아간 분이지요. 요즈음 같이 편안한 삶을 추구하는 시대에 "자발적인 불편"으로 평강의 삶을 누리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행히 어제와 오늘에는 비가 오네요. 가뭄이 지난 것 같아 감사하네요.)

8월 달에는 워싱턴 열린문장로교회(김용훈 목사)와 뉴욕선교교회(김명국 목사)에서 단기선교로 섬겨주셨습니다. 열린문장로교회 팀(1-9일)들은 산골 마을에서는 처음으로 태권도 시범에 이어 아이들에게 말씀, 공작, 태권도, 줄다리기 등으로 몽케카구아 학교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섬김이 있었습니다. 뉴욕선교교회 팀(11-16일)은 카카오라는 마을에서 학교 학생들을 정성을 다하여 섬기시고, 침술로 동네 분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수요저녁 시간에는 성도들에게 김명국 목사님과 이다니엘 목사님께서 내적치유 집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여름 단기선교를 잘 마무리하면서 바로 야마랑길라 교회건축(서울장로교회/김재동 목사 후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세이비타교회와 뿌에블로 비에호 교회에 이어 올해 세 번째 교회 건축입니다. 월요일(25일)에는 성도들과 함께 벽돌을 나르고 목재를 운반하는 일을 했습니다. 정말 힘이 들고 어려운 일들이었지만 성전을 세운다는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함께 기도로 시작하면서, 성전을 지으면서 작은 일 하나도 수월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를 하였지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라몬 목사님이 신이 났습니다. 신나는 모습으로 보는 저도 너무 기쁘네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뉴저지동산교회(김형모 장로님, 정우권 목사님 부부)에서 한 주간(18-23일) 동안 교회 개척지를 위한 비전트립이 있었습니다. 테구시갈파, 산페드로술라를 위시한 도시와 산골 마을들을 방문했지요. 이미 개척된 지역과 함께 앞으로 세워져야 할 지역들(몬테베르데, 야마랑길라, 리오콜로라도 등)을 방문했습니다. 연일 장시간 운전으로 피곤하였지만 오랜 만에 여러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는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별히 당부드리는 것은 오초아 목사님과 교단을 위하여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목사님께서는 뇌종양 수술 후 병상에 계십니다. 오초아 목사님은 12년 전부터 저의 사역을 도와주시는 프로페시아 교단을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뿌에블로 비에호 헌당예배는 10월 12일에 드릴 예정입니다. 위하여 기도해주시고, 셀롬교회 목사관은 이제야 마무리 되었습니다.

C&MA 교단의 중미 모임인 Aliansa Cristiana y Misionera(ACM) 모임이 9월 22-25일까지 온두라스 산페드로술라에서 모이게 됩니다. 중미 및 남미에서 약 70여 대표들이 모이는데 우리 산골교회 목회자들이 처음으로 참석하게 됩니다. 위하여 기도해주셔서 앞으로 ACM과 함께 네트워크가 되어서 렌카교회들이 더욱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가경비(약 1,000불)도 잘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7월과 8월 사역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8, 9월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도의 줄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1. "삶으로 그리는 복음"을 위하여
2. 오랜 친구이며 온두라스 프로페시아 교단장이신 Francisco Ochoa목사가 뇌종양수술 후 회복 중입니다.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3. 교회 사역: △중미 ACM(Alianza Cristiana y Misionera)와의 연합사역을 위하여 △9월 모임(22-25일, 산페드로술라)에 참가하는 목회자들과 경비(1,000불)를 위하여 △아자꾸알파교회, 몽케카구아교회, 에스페란자교회, 셀롬교회, 뿌에블로비에호교회, 까스타뇨교회, 세이비타교회, 몬테베르데교회의 성장과 새로운 지역에 교회개척 및 Pueblo Viejo교회 헌당(10월 12일)을 위하여 △교회 건축(야마랑길라, 리오콜로라도) 및 건축 예정지(테구시갈파, 몬테베르데)를 위하여
4. 학교 사역: 방과후학교 겨자씨학교 아자꾸알파, 겨자씨학교 몽케카구아를 위하여 △겨자씨학교 학생들 수도 수학여행(10월 6일) △산페드로술라 푸엔테데 루즈 학교를 위하여 △정규학교인 Christian Bilingual School (기숙사학교) 시작을 위하여
5. 목회자 훈련 및 미래 지도자 양육: 목회자 훈련으로 현재 SEAN 제 2권 과정을 마치고 3권 시작 예정 △멕시코 유학: 2015년 8월에 Olvin과 Joel을 멕시코 올네이션신학교(후아레스, 이상원 선교사)에 유학을 보낼 예정입니다. 모든 입학절차와 필요한 것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6. 강해설교학교: 많은 목회자들이 훈련 받고 말씀 사역에 힘을 얻도록, 강의 및 학교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도록
7. 동역자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Paz 목사님과 Blanca 사모, Antonio 목사, Myer 형제, Dario 형제, Miriam 선생, Brenda 선생, Olvin 형제, Ambrocio 형제, Dionicio 형제)
8. 미국 일시 방문(9월 2일-18일)을 위하여

장세균 선교사
segyunjang@gmail.com

파라과이

사랑하는 파라과이 선교협력자님들께.

할렐루야!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가정과 하시는 모든 사역위에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불모지 파라과이 복음화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정성어린 기도와 물심 양면의 협력을 다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느덧 땅끝 선교지 파라과이에 몸 담고 사역한지도 금년 8월로 만 25년이 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23군데 시, 읍, 면 단위에 개척교회를 설립케 하시고, 인재를 양성하는 미션스쿨 설립과 신학교를 파라과이 정규 신학대학으로 인가를 받게 하시고, 사회빈곤층과 고아원, 정계, 학계, 군계 등 모든 분야의 생명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역사적인 일들을 홈페이지에 담아놓았습니다. (https://docs.google.com/file/d/0B1mNgMgtsaCHTVJtLW01WTFJNFk/edit?pli=1)

보신 후에는 아래의 제목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3군데 개척교회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
2)14분의 원주민 목회자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3)17번째로 건축하는 "산로렌소교회"가 건축을 속히 재개하여 마칠 수 있도록
4)다가오는 2020년까지 23군데 개척교회들이 다 예배당을 건축할 수 있도록
5)파라과이신학대학의 발전과 신학생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하고 학업에 전념하도록
6)저희 내외가 영육 간에 강건하도록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섬기시는 교회의 부흥과 담임목사님의 가정을 비롯한 성도님들의 가정의 평안과 생업위에 은혜가 충만하시도록 기도하면서 사역에 전념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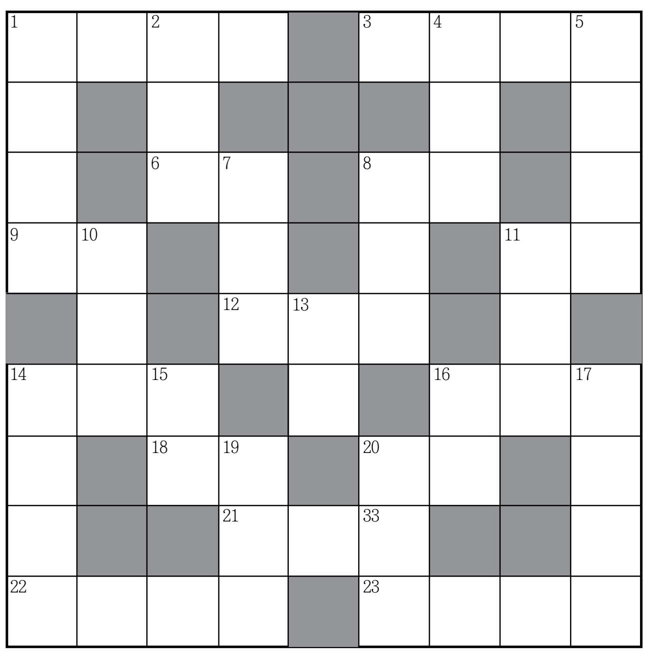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주님이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나라 파라과이 선교사 임한곤, 임길선 올림.

hanimkr@hanmail.net

십자말 • Cross Word (53)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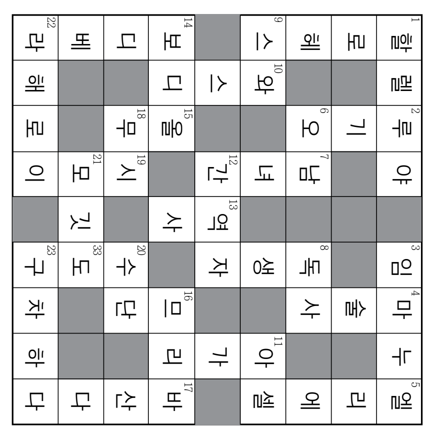
<가로 푸는 열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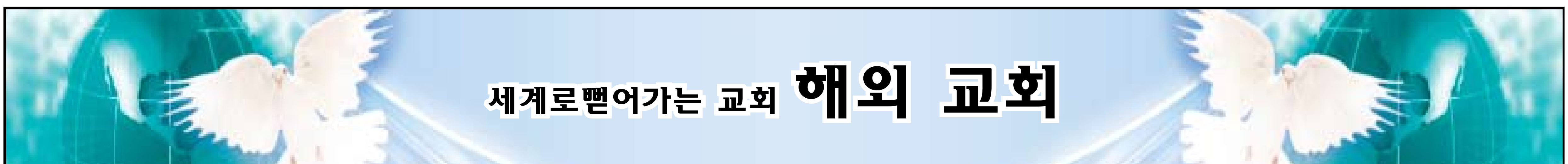
1. 여호와를 찬양하라(시편).
3.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마1:23).
6. 소발의 자녀(창36:23).
8. 독이 있는 뱀(창49:17).
9. 다윗의 중신의 한사람으로 서기관이 되어 공문서의 전부를 관장했다(삼하20:25).
11. 야곱의 첩 실바의 소생자(창30:13).
12. 집을 짓거나 고치는 일을 보살피는 사람(출3:7).
14. 이달리 반도 서해안에 있는 한 개항장.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한주간 유한 곳(행28:13, 14).
16. 일명 맛사. 신광야 가데스바네아 부근에 있다. 모세, 반석, 물과 유관(민20:13).
18. 존재를 알아주지 않음. 업신여김(시73:20).
20. 일을 처히해 나가는 꾀와 솜씨(신32:27).
21. 여호수아가 공취한 가나안의 31왕 중 한 사람의 땅(수12:21).
22. 리브가가 약대를 타고 갈 때 이삭이 이곳에 와서 맞이했다(창24:62).
23. 몹시 가난하고도 군색하다(막12:44).

<세로 푸는 열쇠>

1. 예루살렘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자(느3:12).
2. 안디옥교회에 있던 선지자 혹은 교사로 구레네 사람(행13:1).
4. 요술쟁이(사8:19).
5. 아브라함의 충복. 다메섹 사람(창15:2).
7. 남자이건 여자이건(출21:4).
8. 홀로 태어난 아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의 외아들 됨을 표현한 말(요1:14).
10.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의 왕비. 폐위됨(에1:9).
11. 속으로 통하는 구멍의 어귀. 입(겔38:4).
13. 보통보다 뛰어나게 힘이 센 사람. 장사(삿3:29).
14. 요셉의 아내 아스낫의 아버지(창41:45).
15. 새나 짐승을 잡는데 쓰는 올가미(출23:33).
16. 아브라함의 후처 그두라가 낳은 셋째 아들(창25:2).
17. 하만의 장자(에9:7).
19. 베냐민지파 게라의 아들인데 사울 왕에게 충성. 다윗을 저주했다(삼하16:5).
20. 물을 흘러 보내는 시설의 입구(사36:2).

십자말 정답





강남중앙감리교회

담임목사: 노재현
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Tel.(02)525-7767, HP.(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

군포제일교회

담임목사: 권태진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00
주일5부예배: 오후 2:30
저녁예배: 오후 7:30
Tel.(031)397-6754~5
군포시 금정도 870-10호

금란교회

담임목사: 김정민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밤예배: 오후 7:30
www.kumnan.org
Tel.(82)2-490-7000, Fax.(8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본동 340-1(131-231)

광주신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기승
주일1부예배: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00
Tel.(062)523-9419, Fax.(062)522-4834
500-170 광고광역시 북구 운암동 936-1번지

동경중앙교회

담임목사: 이강헌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
Tel.(03)3208-8491~5, Fax.(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

든든한교회

담임목사: 장향희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철야예배: 오후 9:00
Tel.(031)977-8383~9, Fax.(031)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1670-1

로마한인교회

담임목사: 한평우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
Tel.39-06-827-3585, 39-348-339-1726
39-06-943-8676(교육관)
VIA DEI QUINTILI 32-38 00175 ROMA, ITALY

명성교회

담임목사: 김삼환
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 오전 4:30
(1부)부터 4회
Tel.(82)2-440-9000, Fax.(9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일동 330-5, (134-830)

새에덴교회

담임목사: 소강석
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젊은이를 위한 현대예배)
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신시 수지국 죽전동 1312번지

성문교회

담임목사: 황정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1부예배: 오전 5:00
새벽2부예배: 오전 6:30
Tel.(82)2-2646-3181~3, (8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2동 520 (158-808)

성실교회

담임목사: 김영복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www.seongsil.or.kr
Tel.(82)2-998-9988, Fax.3927-1008
서울 강북구 수유3동 221-49 (142-073)

성일교회

담임목사: 김정곤
주일1부예배: 오전 5: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토요일은 쉽니다)
Tel.(82)2-2643-8553~4, Fax.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3동 713-26호

수영로교회

담임목사: 이규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12:2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Tel.(82)51-740-4500, 4556~8, Fax.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2동 1418-1, (612-824)

수정교회

담임목사: 조일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영어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Tel.(82)32-568-0191, Fax.(8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

승동교회

담임목사: 박상훈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
주일저녁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저녁 7:00
Tel.(02)732-2341~3, 사택(02)389-2235
(110-290)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 137 번지

시은소교회

담임목사: 김성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새벽예배: 오전 5:00(월-토)
Tel.(031)253-1004, Fax.(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419-2

신길교회

담임목사: 이신웅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82)2-842-1968, 사택(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 1동 63-3, (150-051)

신천교회

담임목사: 송용걸
주일1부예배: 오전7:30
주일2부예배: 오전9:30
주일3부예배: 오전11:00
주일4부예배: 오후12:50
주일찬양예배: 오후3:00
새벽기도회: 오전5:00/6:00
Tel:(02)418-0481 Fax:(02)422-0751
서울시 송파구백제고분로 17길 29(잠실동)
www.shincheon.org

신촌교회

담임목사: 이정익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786-6579, 사택(8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산동 49-45

안암 제일교회

담임목사: 조 윤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오후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
Tel.(011)82-2-927-5511
서울 동대문구 제기 2동 146-7

양곡교회

담임목사: 지용수
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저녁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
Tel.(055)210-5500, Fax.(055)210-5510
(6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봉양로 415
www.yangkog.org

왕성교회

담임목사: 길요나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Tel.(82)2-888-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1641-24 (151-029)

장위제일교회

담임목사: 김기원
주일1부예배: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심야기도회: 오후 9:30
Tel.(02)942-6881, Fax.(02)942-6882
(136-8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

주안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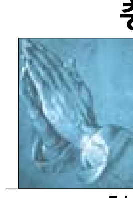
담임목사: 주승중
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12:00
주일5부예배: 오후 2:00
주일6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
Tel.(8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4동 294-10(403-838)

창대교회

담임목사: 최용도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3:00
Tel.(82)2-482-3536, Fax.(8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3동 448-23

청주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주서택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
Tel.(043)275-9191, Fax.(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창동 259-12

충신교회

담임목사: 이전호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
Tel.(82)2-793-7740
서울시 용산구 이촌동 302-67 (140-031)

사모칼럼// 회복된 사모, 행복한 사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9. 사모의 행복 가꾸기-

사모의 인격가꾸기(5)

사모의 인격은 스트레스 관리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모교실에서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방법이 다양합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30대와 40대가 다르고 50대 60대가 다릅니다. 나이별로 다르고 지방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의 사이즈와 상관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인격의 성숙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처음 직면하는 사건은 물론 자주 겪는 사건과는 그 대응책이 다릅니다.

같은 사건이 반복됨에 따라 스트레스의 해소방법을 스스로 터득하여 풀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고비는 갱년기입니다. 거기에다 사춘기를 둔 자녀가 있기라도 한다면 그 가정은 더욱 침체되기 쉽습니다. 이것 또한 교회에 끼치는 영향이 제법 큽니다. 호르몬에 이상 현상이 오는 것이므로 남편이나 주변식구들의 이해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에게는 물론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사모들의 갱년기는 더욱 더 어려운 고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면 사전에 미리 예비하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힘든 고비고비를 넘기며 목회의 일선에서 뛰는 사모들에게는 이것조차도 한 폭의 그림입니다. 평소에 마음가짐이 습관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제일입니다. 우리의 몸의 세포들은 기억장치가 잘되어 있습니다. 갱년기를 오히려 잘 선용하면 인생 후반부는 건강하고 발랄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갱년기는 어느 누구에게나 다 같이 오는 법입니다. 사람의 체질에 따라 강도의 차이는 좀 있기는 하지만 남성에게도 옵니다. 카톡문화가 새로 나오면서 좋은 글 좋은 그림 좋은 음악이 유튜브에 풍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이나 자살율은 줄지 않고 있으니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필자에게도 갱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풍랑이 나의 인생 후반부에 찾아왔기 때문에 갱년기의 호르몬 변화는 무색하리만큼 인식조차 못한 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10여년 전의 일입니다. 갑작스런 혼수로 병원에 실려갔던 날이 기억납니다. 간이식을 하지 않으면 살수 없다는 의사의 청천 벽력같은 진단에 오열을 하던 그 날이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C형간염을 치료하지 못한 채 어렵고 힘겨운 생을 살다보니 간경화증이 된 것도 모른 채 세월이 흘러간 것입니다. 9병의 수혈을 받고서야 정신을 회복하고 보니 천국은 아니고 아직 세상에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남편의 얼굴도 볼 수 있었고 자녀들의 얼굴도 아직 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살기 위해 하지 않던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식이요법을 철저히 하였습니다. 드디어 육신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육신의 건강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며 정성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하기 싫은 운동도 아침저녁으로 하였습니다. 규칙적인 생활과 건강식으로 열심히 하였습니다.

그 후 면역체계가 아주 강해지게 되자 감기는 아예 겁나서 나의 곁에 오지도 못할 뿐 아니라 갱년기 증후군도 겁에 질렸는지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한 채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건강하게 비행기를 20시간씩 타고 다니면서 오대양 육대주에 흩어져서 사역하느라 지쳐있는 사모들을 향해 주님의 사랑안고 가게 되었습니다.

갱년기를 거쳐 가고 있는 사모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람에게는 말의 권세를 주었습니다. 우선 말을 바꾸어야 합니다.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도 이런 점은 매우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온 세상을 점령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함부로 사용합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현실에 보이는 대로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경을 극복하며 세계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결코 우리 앞에 보이는 현실은 이미 우리의 말 앞에 굴복하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현실도 우리에게 주신 말의 특권을 사용하여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을 사용하기 전에 어떤 말을 할 것인가를 선택해야 하겠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권세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말에 대한 지침서가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잘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태어나서 배운 말들은 익숙하여 별 어려움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부모로부터 배운 말이거나 성장과정에서 이웃으로부터 습득된 언어들입니다. 의지가 발달되어 성숙할수록 선택권을 사용해야 합니다. 판단능력도 성숙합니다. 결단력도 늘게 됩니다. 그런 반면에 말하는 습관은 쉽게 변화되지 못합니다.

스트레스 관리가 인격 성숙도 알려주는 것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말의 권세 믿고 활용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은 초기에는 거짓말을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성숙한 후에는 믿음의 조상이 된 이후에는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믿음에 근거한 말들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5절 종들을 산 밑에 두고 아들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면서 하는 말을 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얼마나 철저한 믿음에서 나오는 말입니까? 히브리기자는 아브라함의 결정한 행동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11장 19절에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데 귀히 사용됩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은 믿음에서 나온 말은 아브라함의 입술에서 선포되어졌습니다.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사건 앞에서,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브라함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오리라"

그렇습니다. 믿음의 언어에는 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 어떤 것에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믿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말을 할 때 자신을 믿거나 혹은 환경을 바라보고 생각되는 대로 말을 내뱉습니다. 특히 자녀들에게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기도해도 안되고 암만 기다려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고 불평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점검해보십시다. 어디에서 나오는 말들인가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어집니다. 현실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나오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분 내키는 대로 나오고 있는가? 나의 오늘의 모습은 지금까지 내가 한 말들이었고 앞으로의 나의 모습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들입니다.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매일가정예배

전화령 목사(캄보디아선교사)

월 그리스도인의 고난(요9:3)찬431장

본문은 그리스인의 고난에 관해 무엇을 말해줍니까? 주님은 한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을 벌로 보기보다 다른 면을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고난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도구입니다. 유대주의 영향을 받은 제자들은 소경됨이 부모나 자신의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으나 주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도구라고 단정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모든 고난은 여기 속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둘째, 세상의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고 그를 전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죄를 범해 넘어져 당하는 고난일지라도 모두 여기에 속합니다. 그만큼 그리스도 죽으심의 효능은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육체에 가진 사탄의 가시가 강하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누리는 은혜가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었습니다(고후12:7-10).

화 만나의 실체(요6:30-40)찬204장

본문은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어떻게 보여줍니까? 첫째, 광야 이스라엘이 먹은 만나는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31). 장대에 매달린 놋뱀이 십자가에 달릴 자신이라고 설명하심처럼 그는 만나의 실체를 나타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일시적 기적의 떡으로 살았으나 새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참 떡이 떨어졌어도 믿지 못하면 그 부요를 알 수 없습니다. 둘째, 35절 "생명의 떡", "참 떡", "하늘로 내리신 살아있는 떡"이란 말에 중요한 것은 수식어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 진리 그리고 새생명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신자의 삶, 곧, 성령충만,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삶을 가리킵니다. 셋째, 구약의 이스라엘은 한계에 머물었으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참 만족을 누리고 그 복을 알리고 영원한 효력을 가져오도록 돼있습니다. 이것은 오직 그를 믿음으로 시작되고 진행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갑시다.

수 은혜와 진리(요1:17)찬358장

본문은 그리스도에 관해 무엇을 가르칩니까? 첫째,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복입니다. 모세가 증거한 율법도 은혜와 진리 안에서 요약됩니다. 본래 율법은 이것을 증거한 그림자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공의가 입을 맞추고 은혜와 진리가 하감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이상입니다. 이 둘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천국이며 신자의 이상향입니다. 이 둘이 입맞추는 연합이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둘째, 신자의 최고의 행복은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 곧 그와 연합하는 삶입니다. 그 안에 자유가 있고 생명이 있고 은혜가 흐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을 내 영혼에 받아 거기에 머물러 그 지배를 받는 삶을 가리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늘보화를 즐길 수 있습니다. 승리의 관건이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목 넉넉한 구원(요6:37)찬193장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2가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근본이 하나님께서 나오며 하나님이 이끌며 하나님이 친히 구원하십니다. 자유선택으로 구원이 시작되는 것처럼 보여도 먼저 아버지가 예수께 보내 그를 믿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 시작한다는 뜻입니다(빌1:6). 그리스도인은 아버지의 소속이며 곧 그의 자녀입니다(요1:12-13). 주님께 와서 그를 믿지 않는 것은 아버지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책임지시고 넉넉한 구원을 보장하셨습니다. 능력이 없으면 아무리 사랑해도 관계를 끊을 수 있고, 소홀히 할 수 있고, 위급할 때는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기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떨어져도 반드시 책임지시고 넉넉한 구원을 보장하셨습니다. 천국의 보험은 시공간을 넘어 보장된 완전구원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신자는 이 세상에서 참된 능력자이며 참된 유복자입니다.

금 마지막 선지자(요6:1-15)찬504장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본문은 어떻게 보여줍니까? 첫째, 38년된 병자를 치료하신 사건으로 치료자는 예수님이시며 치료의 샘물인 성경으로 나오라(요5:39)고 하시며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해 성경을 먹으라(요6:63)는 결론으로 이끄셨습니다. 둘째, 오병이어 기적으로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라는 결론에 도달했으나 억지로 세상임금 삼으려 했습니다. 신18:18의 예언된 메시야 사역을 오해한 증거입니다. 그는 정치적, 민족주의적 구주가 아니고 죄에서 구원한 백성을 통해 하나님나라를 이루실 왕이십니다. 셋째, 그리스도 예수는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종말 선지자이십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을 들으면 영생을 얻고 듣지 않으면 가차 없이 망합니다. 복음을 받은 우리는 예수님과 그의 말씀만이 진리임을 알고 거기에 나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잃은 진리는 둘째 아담 그 선지자를 통해 알려지고 회복됐기 때문입니다.

토 두 요한의 발견(요3:22-36)찬206장

본문에 나온 두 요한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무엇을 발견했습니까? 첫째,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그 선지자. 불 세례 주시는 자로 알고 자기는 쇠하여도 그는 흥하여야만 하는 복음의 필연성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게 되었습니다. 둘째, 사도 요한 역시, 그의 책을 기록하면서 예수님을 하늘로서 오시는 분, 하나님이 보내신 분, 성령을 한량없이 받으신 분 그리고 영생과 심판의 기준이신 분으로 보았습니다. 셋째, 두 요한의 증거가 사실이라면 인간은 누구든지 모든 생사가 그 분에 달려있습니다.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현재, 나의 미래 그리고 나의 영원이 예수의 손에 좌우된다는 확신은 양심대로 그를 믿는 사람의 열매입니다. 그리스 안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열매를 나타내는 신자로 살아갑시다.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헌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요.

상담 환영!!!
300여종 이상 디자인 보유!
2014년 달력주문 받습니다.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신앙의 본질회복을 통한 미래목회 계언(2)

-예배가 무너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다

전 남 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목회자가 영적 아비의 위치 회복되도록 가르쳐야
영적생명 지속되는 성만찬 의미의 온전한 회복 필수

IV. 주의 종의 권위의 회복

목회자와 성도에게 주님이 주신 사명은 다르다. 사람은 같을 수 있으나, 사명은 다르다. 성경에는 계층이 없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질서가 있고 구별이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다. 질서가 깨어지면 예배가 깨어지는 것이다. 오히려 너와 나를 강조하면 파당을 짓는 것이 된다. 그러나 구별을 강조하면, 거룩한 공동체로 집약이 되고 교회는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된다.

유럽의 한인교회들 가운데 여건이 되면서도 담임목사를 세우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세우더라도 위임까지는 지루한 과정을 지나간다. 왜냐하면, 100불정도이면 한 주간 적당한 강사 유학생 목사들을 자유롭게 세울 수 있고, 교회는 얼마든지 평신도 중심으로 운영이 될 테니까, 부담스러운 일을 애써 방지하자는 것이다. 직접적인 형편이 어려운 이유도 있을 수 있지만, 영적 지도자를 세우고 따르는 것을 부담스러워 하는 것은 사단이 틈타기 좋은 통로가 된다. 왜 그런가?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니까, 예배인도자를 자신들이 마음껏 조종하려고 할 때 결코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다. 과연 그 결말이 무엇인가? 허물어지는 교회의 기초위에 몰락의 위기가운데 회개할 일들만 쌓아가게 될 것이다.

많은 목회자들에게서,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제일 많이 듣게 된다. 그러나 좀 더 들어가 보면, 결국 말씀을 증거하는 목회자와의 관계에서 구별되게 대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의 통로가 막혀지고, 말씀에 막혀지니까 순종과 헌신의 삶이 결여된 행동들이 나오는 것이다.

육신의 아버지가 육의 양식을 공급하듯이, 주의 종들은 성도들의 영적양식을 공급하는 영적 아비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할 수 있다. 요즘 시대에는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예전의 믿음의 삶에 지극히 성실하였던 분들의 신앙은 이와 같았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을 때, 지금은 어려워도 미래가 있듯이 교회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반차가 분명히 있고 이것을 온전히 쫓을 때 교회의 회복이 이루어진다. 아무리 가난한 집안이어도, 아버지가 먼저 숟가락 들기를 기다리는 집안을 보면, 가난하지만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생각되어 이를 증거로 보고 혼사가 오간다는 말이 있다.

교회의 미래가 무엇인가? 오늘날의 교회는 주의 종들이 영적 아비의 위치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아버지가 아버지됨을 가르치고 설득해서 아버지되게 할 수 있겠는가? 자식에게 내가 아버지라고 설득시키는 아버지는 너무나 불행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르쳐야 할 난제가 바로 주의 종의 권위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다.

V. 성만찬의 회복

초대 기독교는 결코 의식주의적 종교는 아니었다. 초대 기독교의 중심은 성령을 통한 인간과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접촉에 있었다. 물세례와 성찬식은 성격상으로 보아 매우 신성하기 때문에 이들을 가리켜 성례(聖禮)라고 칭한다. 또한 이들을 가리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친히 정해주신 하나의 예식이기 때문에 물세례는 기독교에 입교하는 하나의 의식으로 영적생명이 시작된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주의 만찬은 성찬의 의식으로 영적생명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는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나타내주는 것이라면 후자는 그리스도와의 친교를 나타내주는 것이다. 세례는 한번 받으면 된다. 영적 생활이 시작되는 때는 한번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찬식에는 자주 참여해야 한다. 그 이유는 영적 생명은 끊임없이 영적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성만찬은 교회마다 다르지만, 대개 1년에 2-3번 정도 성만찬을 한다. 그리고 예배를 강조하시는 분들은 성만찬은 자주하면 할수록 좋다고 한다. 그러나 성만찬은 오용이 되어도 남용을 해도 문제가 된다. 오용의 문제점은 먹고 마실 집이 없어서 하나님의 집을 업신여기듯 먹고 마시는 장소로 생각게 하는 것을 오용이라고 한다면, 남용은 미신적인 요소가 섞여있는 것을 말하고 있다. 미신적이고 마술적인 것이 성만찬에 있다는 것이 바로 남용하는 것이다. 이들이 와서 빈궁한 사람처럼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나중에는 취하고 했던 것은 성만찬의 본질이 아니었다. 잔치의 성격을 가졌지만 먹고 마시는 것이 주가 아니라,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의 중요성이다. 성만찬은 교제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복을 받는다. 주님의 피흘리심과 몸 찢기신 성만찬의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 마지막 시대 신앙의 본질회복의 중요한 내용이 된다.

성찬식은 기독교의 독특한 성례전으로서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죽기 전날 밤에 시작하여 하나의 제도가 된 것인데, 성찬식에서 취하는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회생을 기념하는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신자의 믿음과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더욱 증가케 하는 은혜의 수단도 되는 것이다. 생명의 떡 되시는 그리스도께서는 죽음을 통하여 그의 몸을 깨뜨리신 것처럼, 또한 영적으로 굶주린 심령들에게 소생케 하는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는데 포도주는 이러한 주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삶, 교회와 예배의 회복을 소망한다면 반드시 성만찬의 의미의 온전한 회복이 일어나야 한다.

〈다음호에 계속〉

인/터/뷰

은혜의강교회 새 담임 우 상 훈 목사

"선교 열정 이어가며 차세대 사역 주력"

"교회의 첫인상은 선교에 열정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전임 목사님이 선교사 출신이라 그런지 선교에 대해 각별함을 느꼈어요."

가디나에 위치한 은혜의강교회(1957 W. Redondo Beach blvd. Gardena, CA 90247) 새 담임목사로 취임한 우상훈 목사는 '은혜의강교회의 강점은 바로 선교에 대한 열정'이라고 언급했다.

우 목사는 전임 강기평 목사의 선교적 마인드를 바탕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우선은 예수님이 지상명령인 전도와 선교를 보다 튼튼하게 일궈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교회가 선교와 전도를 더 잘 수행해가기 위해서는 내적인 부흥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즉 아무리 선교와 전도를 잘하려고 해도 내적으로 부실하면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제대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교회가 추구하는 방향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내적인 부흥과 외적인 선교가 밸런스를 맞추어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목사는 교회공동체는 연합체라고 강조하며 실질적인 연합이 될 수 있도록 목회를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사역하실 때 말씀, 기도, 그리고 치유사역을 밸런스를 유지하며 실시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은혜의강교회 역시 이와 같은 사역을 기본적으로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역은 사역의 본질이자 기본이기에 저희 교회 역시 본질과 기본에 충실하려고 합니다. 우선 3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를 디자인해나가고 있습니다. 즉 자녀와 부모가 함께 예배하며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로 가꿔나가고자 합니다. 이미 전임인 강기평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잘해놓으셨습니다."

바쁜 이민생활 속에서 자녀의 언어교육에 소홀해 부모는 한국어예배, 자녀는 영어예배에 출석해야 하는 병폐를 가진 이민교회의 예배문화속에서 은혜의강교회는 자녀들이 한국어를 구사하는데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비록 2세와 유학생들로 구성된 자녀세대의 숫자는 10여명에 불과하지만 이들을 중심으로 차세대들을 세워나가고 있다.

"청년이 없는 교회는 미래가 보장되어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청년이 있는 교회일지라도 청년들에 대한 접근이 제대로 돼있지 않으면 청년들은 떠나게 되거나 힘없는 존재로 전락됩니다. 따라서 저희교회는 자녀세대들을 장년들과 동일하게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은혜의강교회는 자녀세대들을 위해 청년목장을 세웠다. 단순히 목장하나를 세우는 것이 아닌 전교인이 청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으는 작업을 하고 있다. 또한 말씀을 통해 삶속에서 함께 소통하며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다.

우 목사는 자녀세대 사역과 더불어 이민교회가 안고 있는 상처를 보듬어주는 사역을 진행시키고 있다.

"이민교회 사역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사랑입니다. 워낙에 상처가 많은 곳이기에 상처가 아물게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랑으로 보듬어주어야 합니다. 사랑은 결국 서로를 신뢰하게 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니까요."

은혜의강교회 새 담임 우 상 훈 목사

자녀와 부모 같은 언어로 함께 예배
사랑과 보살핌으로 치유 받는 교회로

이를 위해 은혜의강교회에서는 지난 20일과 21일 양일간 브라질 선교사인 원준상 목사를 강사로 초청, 치유집회를 가진바 있다. 이미 다년간 치유사역을 펼쳐온 바 있는 우상훈 목사는 이번 집회가 남미지역에서 치유사역으로 정평이 나있는 원 선교사 초청집회를 통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체험을 통해 한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우상훈 목사는 아주사퍼시픽신학교에서 목회학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오하이오사랑의교회 담임목사와 남가주초대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했다. 가족사항은 우희경 사모와 두 자녀가 있다.

문의처:310-863-6858

〈박준호 기자〉

미주 및 전세계의 한인교회, 목회자, 교우간 교류가 가능해 집니다. 매년마다 한인교회 주소록이 만들어 지고 있습니다.

2015년 해외 한인 교회 주소록 발간 안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사업체 위에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본사에서는 2015년 을 맞이하면서 보다 나은 주소록을 발행코저 하오니 지금까지도 많이 협조해 주셨사오나 정확한 주소록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속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배전의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다 음

(1) 미국(전미주)을 중심으로 해외(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에 있는 교회(교단명)와 기독교 기관을 한 눈으로 볼수 있도록 정확하게 수록한다.
(2) 각 지역별로 목차(교회명, 기관명, 기관장<인명>)를 수록한다.
(3) 수주된 광고는 반드시 광고주의 디자인 확인 후 해당 리스팅 난에 게재한다.
(4) 한국은 광고를 원하는 교화와 기관 또는 사업체에 한하여 별도로 리스팅한다.
(5) **리스팅 접수마감 2014년 9월 30일**
광고 접수마감 2014년 9월 30일

발행 : 미주크리스천 신문사

유료광고안내

돌출(표지)	3.5cm × 4.5cm		$600.00
전면칼라	17cm × 24.5cm	표지내면(2면, 3면)	$3,000.00
		Back 면	$3,500.00
		Back 면 내면	$2,500.00
		Inside	$2,200.00
*전면칼라일 경우 Inside에 흑백을 넣어줌			
전면흑백	15.5cm × 23.5cm		$1,000.00
전면 1/2	15.5cm × 5.8cm		$600.00
전면1/4	15.5cm × 5.8cm		$350.00
	7.7cm × 11.7cm		
전면1/8	15.5 × 2.8cm		$250.00
	7.7cm × 5.8cm		
돌출 Listing	Listing size		$100.00
축하광고(사진삽입)	3.7cm × 7.5cm		$200.00

무료리스팅신청서

① 교회(기관)이름	한글 :	
	영문 :	
② 교회(기관)주소		
③ 교회전화 &팩스	Tel.( )	Fax.( )
④ 목사, 전도사, 기관장	한글 :	영문 :
⑤ 사택주소		
⑥ 사택전화 & 팩스	Tel.( )	Fax.( )
⑦ E-mail Add.		
⑧ Web Add.		
⑨ 소속교단(정확하게)		

※위의내용을 편지나 팩스 또는 E-mail : dir@chpress.net 로 보내주십시오.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 ny@chpress.net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